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9월 6일(음력 윤 7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 594 호

경전 - 깨달음의 길을 말한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 주제 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당대 최고 강백들 '사자후'



지관 스님 월운 스님 의룡 스님 혜남 스님 응각 스님 지안 스님 각성 스님 백운 스님 우룡 스님 통광 스님 전계회상 무관 스님

1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봉선사서

봉선사 · 本社 공동 주최

중국 선종의 제6조(六祖)인 혜능(慧能 638~713) 선사는 나무꾼이었다. 젊은시절 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읽는 <금강경>의 한 대목을 듣고 크게 발심하여 출가를 하게 된다. 혜능 선사에게 가사와 의발을 전한 5조 홍인(弘忍 602~675) 선사는 병풍을 둘러치고 <금강경>의 대의를 가르치고 제자를 하산시킨다.

선객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깨침의 기연(機緣)을 심어 주었던 덕산선감(德山宣鑑 780~865)은 <금강경>에 해박하여 주석서 '청룡소초(靑龍疏鈔)'를 지을 정도였다. 그런 그는 용담(龍潭 763~835) 선사를 찾아가 선사들이 경학을 무시하고 마음 도리만 외치는 데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려다 용담 선사가 등불을 훅 불어 끄는 장면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혜능 선사가 우연히 들은 <금강경>의 한 대목(應無所住而生其心)은 중국 선종을 확립시키는 인연이 되었고 덕산 선사가 매진했던 <금강경> 연구는 '찰나에 몰록깨침'의 바탕이었다.

선과 교에 대한 오해풀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선(禪) 밖에 없을까? 선종의 전통 속에서 교학은 '깨달음과 상관이 없는 분야'라거나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 쯤으로 고착된 것은 아닐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교를 버리고 선에 든다(捨敎入禪)"는 말이 '교학은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 쯤으로 오해시켜 온 세월이 참으로 길다.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받은 가섭의 법도 아난 존자가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고스란히 암송해 냄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가섭의 염화미소나 아난의 경전 결집은 똑같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한 소식'임을 명쾌히 밝혀주는 대형 법회가 마련된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철안)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가 '10대강백 초청 강설대법회'를 봉행한다.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봉선사 청풍루에서 열리는 강설대법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백 열 분이 각 경전을 주제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이는 자리다.

전통강원에서 이력을 마치고 중강 강사 강주를 지낸 원로급 강백들이 하나의 경전을 주제로 강설하고 이어 미리 정해진 스님과 학자가 청중을 대표해 질의해 청중들의 안목을 밝힌다.

특히 이번 법회의 주제가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란 점에서, '과연 경전공부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강백 스님들이 어떻게 풀어 줄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살계 수계로 '회향'

9월 16일 입제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녹아 흐르는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질의에는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과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교수(충남대)가 나선다. (일정표 참조)

11월 25일 회향법회에서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능엄경> 강의에 이어 해인총림 율원장 무관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보살계를 수계함으로써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수계법회는 입제 때부터 접수를 받아(접수비 3만원) 강설대법회 전체가 하나의 수계절차라는 의미도 갖는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이번 강설법회는 경전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는 수행과정"이라며 "열번의 강설법회가 끝난 후에도 경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다는 발원을 담아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선사는 조선시대부터 교종본찰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운허 스님과 월운(현재의 조실) 스님의 강맥과 역경의 원력이 담겨 있는 유서깊은 사찰이다. 특히 능엄학림에서는 지난달 시작으로 지난해 3~5월 범어사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개최하고 이어 8~10월 '깨달음으로 가는 길,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10~12월 '부처님의 제자와 행복한 삶'을 주제로 광주에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 본사는 이번에 봉선사 경전법회까지 열므로써, 선과 계율에 이어 경전에 대한 불자들의 안목을 넓히고 수행과 불교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제공하고 있다.

강설대법회 법문과 질의응답은 봉선사 홈페이지(bongsunsa.net)와 붓다뉴스(buddhanews.com)에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문의(031)527-1951~2, 1956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강설대법회 일정표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봉선사 청풍루

일정	강백	주제경전	질의자
9월 16일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금강경	진월 스님 / 이평래 교수
9월 23일	의룡 스님(前 직지사 강주)	육조단경	정원 스님 / 서재영 교수
9월 30일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화엄경	성관 스님 / 권탄준 교수
10월 14일	응각 스님(수덕사 강주)	아함경	현봉 스님 / 박경준 교수
10월 21일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열반경	월호 스님 / 황수경 교수
10월 28일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	해심밀경	명법 스님 / 안성두 교수
11월 4일	백운 스님(前 범어사 강주)	법화경	혜조 스님 / 이재수 교수
11월 11일	우룡 스님(울산 학성선원장)	정토삼부경	화랑 스님 / 송재근 교수
11월 18일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원각경	수경 스님 / 석길암 교수
11월 25일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능엄경	진원 스님 / 정진원 연구원
11월 25일	무관 스님(해인총림 율원장)	보살계수계식	인례: 혜만 스님 / 영명 스님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청소년프로 40%

신행정보센터 참여도 분석

조계종 신행정보센터에 게시된 프로그램 중 어린이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8월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행정보센터를 운영한 뒤 프로그램 참여 연령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어린이 26%, 청소년 13% 등 어린이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40%에 이르렀다.

또 지난 5년간 150여개 사찰이 신행정보센터를 이용했으며, 합천 해인사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게시했다. 남동우 기자

정기국회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조계종 환영 … 관람료주지회의 열어 대안 모색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9월 1일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폐지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이날 회의는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정은 1일부터 열린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안은 70명의 의원들이 서명발의 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제종길 위원장은 "서민들의 휴식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이용객의 입장료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와 국립공원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대변인 동선 스님(기획실장)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조계종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조만간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어 국립공원입장료폐지 뒤 관람료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보은정사 회주 원법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시방세계 9면
봉녕사 불복장의식
복지사각지대의 복지사 4면
지옹 · 도안 스님 입적 14면
수덕사 '지심귀명례…' 展 23면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706-3493 www.bexpo.org

정체성 확립 '진지한 연구'

조계종 불교사연구회 '개항기부터 …' 주제 첫 워크숍

태고종조설 · 도의종조설 · 지눌종조설 등 개항기 이후 한국불교의 종조 논쟁에 얽매이기보다 일제에 의해 강압돼왔던 종파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자생적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한국불교의 정체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9월 1일 근현대 불교사 및 종단사를 연구하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발족시킨 불교사연구위원회의 첫 번째 워크숍에서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조와 법통인식'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했다.

김상영 교수는 "정화운동시대의 종단 분쟁과 연계되면서 종조 · 법통 논쟁은 비학문적, 감정적 방향으로 치닫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해 논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진행됐던 논쟁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종조 · 법통 논쟁을 일제강점기 구한말 불교인들의 종파 재건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개항기부터 8.15해방까지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개의 소주제에 대해 마라톤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이번 워크숍은 〈태고종사〉 파문으로 제기된 조계종 역사 및 정체성 문제도 워크숍 개최 목적으로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워크숍에서 '조선불교 선종과 수좌대회'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조선불교선종을 등장시킨 수좌대회의 전모를 알려주는 '조선불교선종수조대회록'을 입수해 당시의 회의 진행 상황, 회의에서 결정된 선서문, 종규, 규칙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발제문에서 김광식 교수는 "1935년 3월의 수좌대회는 1934년 12월 선학원이 재단법인 선리참구원으로 전환된 이후 수좌들의 현실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회"였다며 "자기 정체성을 정비하고, 물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수좌들이 나가야 할 노선,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지표로서 분명한 역사적 성과를 담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광식 교수는 또 "수좌대회를 통해 수좌, 선원, 선리참구원이 일체가 돼 조선불교선종을 설립하고, 선원 및 수좌들의 조직체인 종무원을 출범시킨 것에서 기존 교단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이 외에도 △개화기 사찰의 조직과 운영(한상길) △근대 불교 교단의 변천 과정(김순석) △사찰령과 30본산 확정의 의미(한동민) △전근대와 근대의 갈등(법진스님) △교사(校史)의 정립과 중앙불전(황인규) △대한시대 불교학 연구의 지형도(고영섭) △근대 한국불교의 타종교(이재헌)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北 수해민에 생필품 전달 종단협, 강원도엔 '성금'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올 여름 수해로 고통을 당한 북녘동포들을 위해 전국 70여개 사찰에서 보시한 생필품 8만여점 (시가 5억 2천만원상당) 등을 북한에 지원한다.

종단협 등은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불자들이 모아준 컨테이너 10대 분량 내의, 양말, 비누, 치약, 수건 등 생활용품과 밀가루, 라면, 식용유, 건설자재 등을 트럭에 싣는 상차식을 치른다.

이번 물품지원에는 조계종 5천만원, 천태종 2천만원, 진각종 2천만원, 종단협 1천430만원들 모금해 힘을 보탰으며, 불자들의 백중재물품 보시가 큰 힘이 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전달될 이번 구호물품은 13일 인천을 통해 남포항으로 보내진다.

또 종단협은 12일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민들을 찾아가 수해성금을 전달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각 종단이 모금한 성금과 불교텔레비전에서 모금한 성금 등 8천500만원을 인제군과 평창군청에 전달하고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가 수재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주일 · 조용수 기자

"한 · 스리랑카 우호 지속 되길"

지관 원장 랏트나시리 총리 예방 받고 환담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스리랑카 랏트나시리 위크라마나야카 총리 일행이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지관 스님은 먼저 위크라마나야카 총리에게 이번 아태지역 회의의 성과를 묻고 스리랑카 정부와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축원했다. 특히 조계사 마이트리를 비롯해, 파주보광사, 안산 마하보디 사찰 등 국내 외국인 쉼터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위크라마나야카 총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총리실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답했다.

조용수 기자



"아! 석가모니불"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시상식이 8월 30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석가모니불'을 출품한 석조각장 남진세(왼쪽)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글 · 사진=강지연 기자

1994년 멸빈자 사면 바람 솔~솔

원두 스님 등 "이제 고령인데…" 총무원 주변 '화합' 의견 우세

올 3월 1998년 멸빈자 사면에 이어, 94년 멸빈자 사면문제까지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4년 조계종사태 당시 멸빈당한 종정 사서실장 원두, 시대불교신문 발행인 혜은, 불국사 주지 종원 스님 등은 8월 28일 "종정 스님, 원로위원장 스님 등도 수차례 유시를 통해 사면을 통한 종단화합을 언급한 만큼, 종단차원에서 94년 멸빈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두 스님은 "당시 징계 받은 이들이 현재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며 사면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제38차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에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본인의 진술이나 변호없이 궐석인 상태로 징계가 확정됐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실천승가회 토진 스님은 "이미 고령이 된 스님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고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규위원회의 사면심판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도 29일 "법규위원회가 멸빈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일 뿐"며 "그분들의 사면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단순히 인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94년 개혁종단의 정신과 정체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상사 도법 스님도 "사면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종헌종법에 맞게 절차를 통해 해답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여운을 남겼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멸빈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종단차원의 94년 멸빈자 문제 공론화가 조만간 가시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용수 기자

동국대 총장 '종교성 논란' 불씨 지펴

이사회서 '… 불자' 용어 '… 자'로 바꿔 논란 예상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8월 3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22회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총장 후보자를 2명 추천하도록 했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변경했다. 총추위 구성인원 중 동문을 4명에서 3명으로, 사회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했다.

특히 총장 후보자 자격 중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의 경우 해석 범위가 넓어져 향후 총장 후보자 자격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이사회는 또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동국대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공학관과 기숙사 신축과 관련, 소위위원회를 구성 해당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장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건과 경기도 양평 소재 하천 부지 매각건도 승인했다.

한편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교수회는 '총장후보선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광 스님(선학), 염준근(통계학), 이황우(경찰행정) 정용길(정치외교학) 교수를 총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쳐 재단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총무원 부장 인사

교무 백운 · 기획부장 법안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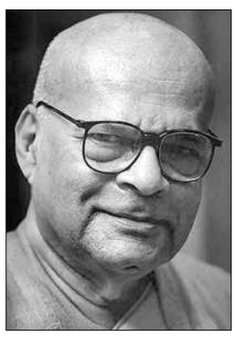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은 8월 30일 교무부장과 기획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임 교무부장에 前 기획부장 백운 스님(왼쪽 · 강원종무원장)을, 기획부장에 前 교무부장 법안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스리 담마난다 스님 입적

회교국 말레이시아서 포교 진력 … 국내에도 저서 '인기'



말레이시아의 세계적인 불교지도자 스리 담마난다(Ven. Dr K Sri Dhammananda · 사진) 스님이 8월 31일(현지 시각) 페탈링 자야에서 입적했다. 세랍 87세.

1919년 스리랑카 남부에서 태어난 스님은 12세에 출가, 이후 1952년 회교국 말레이시아로 건너와 말라야 지방에 정착해 일평생 포교에 매진해왔다.

스님은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과 여성포교에 주력한 결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백만의 불교도가 생겨을 정도다.

스님은 50여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한국에서도 대표적 저서인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How to Live Without Fear and Worry)>와 말레이시아 포교의 성과물<불교이야기>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등이 소개됐다.

조용수 기자

예비스님 185명 탄생 조계종 행자교육원 회향

조계종은 9월 1일 사미 115명 사미니 70명 등 예비 스님 185명을 배출했다.

올해 제31기 행자교육원 8월 10일~9월 1일까지 23일간 조계종 직지사에서 개원해 남행자 118명, 여행자 71명이 입교했었다.

5급 승가고시에는 남행사 3명을 제외한 186명이 합격했으며, 이날 만덕전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185명이 참석했다.

50세 이하 출가가 허용되고 처음 열린 이번 행자교육은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을 유나로 〈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조계종사〉〈부처님 생애〉〈예식의궤〉〈작법〉 삼보일배, 3000배 철야수행 등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됐다. 조계종은 1991년 합천 해인사에서 처음 열린 후 총 6495명이 행자교육을 이수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문의 : 02-3673-3426

제13회 韓國美術史硏究所 學術大會

봉은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조명

일시 | 2006년 9월 9일(토) 오후 1시 50분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봉은사의 가람배치 및 정원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봉은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봉은사 가람의 배치구조와 함께 현존하는 불상, 불화, 건축의 조사 및 연구, 실측을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불교 신행활동을 위한 도량정비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학술대회 일정

13:50 대회사 … 문명대(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1부〉
주제발표 사회 : 김 창 균(동국대학교 교수)

14:00~14:30 **봉은사의 가람배치** … 김홍식(명지대학교 교수)
14:30~15:00 **봉은사의 불상(대웅전의 삼세불상)** … 문명대(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15:00~15:30 **봉은사의 불화** … 김정희(원광대학교 교수)
15:30~16:00 **휴식**

〈2부〉
주제발표 사회 : 최 성 은(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6:00~16:30 **봉은사의 건축** … 김동현(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16:30~17:00 **봉은사의 조경** … 정재훈(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17:00 **인사말** …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17:10 **폐회사**

주 최 :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주 관 :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10년후 한국 종교는? … '위기'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NGO 모여 미래 진단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다원적 사회 만들자"

'10년후 한국사회의 종교분포도가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 "NO!"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NGO 관계자들이 모여 종교지형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사)불교아카데미와 개신교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사)가톨릭의 우리신학연구소 공동주최로 9월 1일 만해NGO교육센터 열린 '2005 인구센서스 결과로 살펴 본 한국의 종교변동 전망 집담회'에서다.

불교계 참석자들은 가톨릭의 성장과 가능성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개신교 참석자들은 인구센서스 결과와 원인에 대해 개신교계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가톨릭은 애써 표정관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전망에 있어서는 3개 종교 참석자 모두가 '위기'라는 반응이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교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본질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앙의 개인주의화와 권력화, 계급화 문제는 종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기 또는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의 위기에 대해 차차석 동국대 강사는 신도들에게 불교적인 가치를 확고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대신자층이 타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한 불교는 신도들이 언제든지 개종할 수도 있고 교단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

가톨릭측 참석자인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은 "가톨릭의 성장은 결속력과 공신력, 봉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미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가톨릭은 신앙의 개인주의화, 권력화, 중상층의 종교 인식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적요소로 인해 10년후엔 지금의 개신교처럼 왜 우리는 정체 또는 퇴보하는가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신교측 장윤재 목사는 "인구센서스 결과가 교회가 민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가톨릭과 불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다원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각 종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인구센서스 통계 결과에는 드러나지 않은 종교환경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박봉영 기자

여성 지혜로 세상 보살피자

불교여성개발원, 9월 20일부터 리더십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불자여성 지도자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여성리더십교육'이 9월 20일부터 3개월간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리더십 교육은 불자여성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도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여성의 지혜로 세상을 보살피자'를 주제로 매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여성리더십 기초익히기' '나와 남 이해하기' '여성리더십 실전 익히기' '진정한 여성리더되기'로 구성되는 11차례의 기본교육과, 10월 28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으로 이뤄진다. 김인숙 원장을 비롯해 이화영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강사, 김일명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나의 비전 만들기' 워크숍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의 지도로 자신의 비전을 세워보고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02)722-2101

여수령 기자

국제구호활동가 상생방안 모색

실무경험 나누고 공동 실천강령 제정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단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활동방안을 모색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15~16일 서울 도봉산 숲속마을에서 '국제구호사업 사례와 실무'를 주제로 국제협력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경불련 이웃을돕는사람들, 능인선원 YBA 등에서 활동하는 40여 활동가가 참가하는 워크숍은 불교계 국제사업 주체간의 네트워크 조성과 관련 활동가들의 실무 역량 증대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 특히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 뒤 공동의 실천강령을 제정한다.

워크숍 첫날은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운영관리부장, 박지나 한국JTS 해외사업본부장, 김동훈 지구촌공생회 기획과장, 이중남 YBA 정책실장 등이 불교계의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다.

둘째날에는 외부 해외원조단체 활동가들의 발표와 불교계 활동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해외원조사업의 도움말 발표는 한재광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조정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팀장이 맡았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불교문화사업단의 정체성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조계종, 달마넷, 중앙신도회, 조계사, 능인선원, 월정사, 다음까페 인연, 네이트 연꽃나라, 네이버 붓다와 함께하는 책여행 온라인 회원 등을 대상으로 '불교 네티즌 성향파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설문 조사 표본 선정에 있었다. 조계종, 달마넷, 중앙신도회 등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불교 네티즌 성향파악'을 했다고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달마넷 개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달마넷의 콘텐츠 등에 관해 보충하거나 개선돼야 할 질문은 빠져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곧바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스님이 직접 오류를 시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사업단은 다시 한 번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달마넷 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얼마든지 많다고 본다. 한국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는 일도 시급하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亞 우물파주기 '아! 시원해'

지구촌 공생회, 3년간 94개

국제구호NGO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가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캄보디아에 50개의 우물을 파주는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지구촌공생회는 환경재단과 가수 비의 후원을 받아 올해 캄보디아 전역에 우물을 건립하는 '아시아에 단비를' 사업을 추진해 8월 31일 캄보디아 캄폿주 50번째 우물 현장에서 완공식을 열었다.

2004년부터 캄보디아에 우물파주기사업을 실시해 온 지구촌공생회는 3년동안 총 94개의 우물을 개발해 2000가구, 2만1000여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구촌공생회는 스리랑카에 쓰나미 난민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8월 15일 착공식을 열었다. 난민지원센터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54평, 건평 77평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케어복지사 수강생 모집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제2기 케어복지사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3시간씩 총 200시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서는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미술치료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강사진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혜도 스님과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영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과정이 끝나면 자격검정시험 및 수료식을 통해 2급 케어복지사 자격증 수여, 케어복지사교육과정 이수 수료증 수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02)725-6390

남동우 기자

BBS 사장후보 홍승기 · 이수덕씨

진흥원 추천 … 8일 최종 1명 선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8월 28일 신라호텔에서 제120차 이사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홍승기(52) 동국대 교수와 이수덕(58) 前 불교텔레비전 사장을 최종 선정했다.

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5명의 불교방송 사장 추천후보에 대한 면접심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2명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홍승기 이수덕씨 2명을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도후)에 사장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9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중 최종 1명을 불교방송 사장으로 확정한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빈그릇 운동'에 서명하고 있다.

"빈그릇운동 동참하세요"

지구촌 한 편에서는 음식이 넘쳐버리는가 하면, 또 어느 편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만3천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지하철 노선 7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다.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농부의 노고가 담겨있으니….' <소심경>

자연을 소중히 여겼던 불교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는 불교환경연대의 빈그릇운동이 8월 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캠페인에서는 조계사 주지 원담스님을 비롯해 200여 불자와 참배객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동참자들이 낸 1000원의 동참금은 불우이웃과 서약캠페인에 각각 50%씩 사용된다.

박봉영 기자

동국 '시네마타운' 운영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9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동국 시네마타운(영화상영)'을 운영한다.

경주시민 및 중고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화 관련 전공교수의 동영상 강의 후 영화가 상영된다.

남동우 기자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보물 제1475호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1일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 10점을 보물 제1475호로 지정했다.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사진)'은 판판한 금속판을 뒤쪽에서 두드려 불상면이 튀어나오도록 제작한 판불이다.

주조기법 및 기량이 뛰어난 10점의 안압지 출토 판불상들은 7세기 말 통일신라 초기에 새로이 유입되는 국제적인 조각양식을 반영했으며, 당시 한 · 중 · 일 불교조각의 양식비교 및 전파과정과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10점의 상들은 하나의 삼존불상과 네 보살상이 한 세트로 두 종류의 소형 목제 불감과 같은 구조물에 부착되어 예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병철 기자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신입생 모집

서화예술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한글서예실기	노승환
한문서예실기	권인호
전각예술실기	노승환
문인화 실기	하영준
채묵화 실기	하영준
민 화 진 채	서공임

불교예술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불교회화	원미희
불교조각	이상배
불교무용	능화스님
불교의식	경허스님
기초교리	심상현

미래예측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주역연구	신성수
명리예측	한승철
사주내정	윤예지
실전사주	김동현
실전육효	김용연
육임실과	류창남
풍수지리	정경연
현장풍수	박상만
구 성 학	한인수
천 문 학	김희수
인상경영	나광영
관 상 학	최인영

명상요가분야

과정구분	담당교수
명상치료	인경스님
상담심리	박희석
실천요가	임동호
실전기공	최원섭
실전검도	이양환
스포츠 마사지	최인호
교정요법	조혁태
식이요법	최재삼

최고위 지도자 과정

과정구분	담당교수
풍수지리 최고위 지도자과정	최병용
현공풍수 최고위 지도자과정	이공원
명리학 최고위 지도자과정	유방현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06년 9월 중
◆ 개 강 : 2006년 9월 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사진 (3×4cm) 2매
◆ 홈페이지 : www.dongbang.ac.kr
◆ 접수방법 : 방문 / 전화상담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상담 : (02)745-8053



조계종, 진각종 등은 매년 산하시설 종사자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불교사회복지대회'를 연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복지현장의 복지사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복지 사각지대'에서 '좋은 시절' 학수고대

'사회복지의 날'에 본 불교사회복지사의 현실

9월 7일은 일곱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현실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불교사회복지가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수당과 높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안겨줘야 한다.

사회복지사 몇명이나 되나

지난 10여 년 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불교계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될까. 현재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과 같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는 약 5만여 명으로 짐작할 뿐 정확한 데이터가 국내 어디에도 축적돼있지 못하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총 조사응답자 7865명 중 불자는 13.2%인 10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전체 복지사중 불자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밝혀, 불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불교계복지시설이 '포교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응답자 중 76.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기독교가 44.3%, 무교 23.4%, 천주교 16.9%, 기타가 2.2% 등으로 파악됐다. 연령에 따른 종교 분포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불교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당시 전체 복지사의 98%가 연봉 1500만 원 미만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5년차 이하에서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대학 졸업자의 평균적인 초봉에 비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

4년제 대졸 7년차 연봉이 2100만원

과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불교계 대표적 장애인복지시설인 A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인 평균수준을 추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4년제 대졸자 초봉은 기본급에 보너스 상여금 600%, 기타 수당을 더해서 약 14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충청도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지자체마다 호봉과 직급별로 주는 급여체계가 다르고, 지방과 서울은 약 300만~400만 원 가량 연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7년차 근무한 3급 7호봉 팀장이지만 연봉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평생 둘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자조성 한탄과 함께 "사회복지학의 특성상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이지만 대졸자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불자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급여수준에 대해서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이 타종교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보다 열악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들은 특정 종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한 불교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회복지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자사회복지사들의 문제는 낮은 급여체계와 열악한 복지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불교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불교신자 비율이 타종교 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일치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1999년 말 조사된 다른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45.8%가 불자이며, 기독교 7.6%, 무교는 3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2003년 전국단위 불교복지법인 4개 산하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당시 총 조사자 1천 820명 가운데 불자는 48%인 870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교계에서 불자사회복지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금강대 등 총 4곳에 불과하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 불교복지시설로 유입되는 불자는 평균 50% 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불자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위한 종교, 복지관련 교육이 전무해 사실상 종사자에 대한 포교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의 대상이다.

낮은 급여·스트레스·업무과중 '3중苦'
불자비율 낮고 불교소양교육에도 소홀
대학-법인-종단 참여 인재풀 가동해야

'원력'과 '봉사'에만 기댈건가

일부 불교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복지시설마다 서로 다른 연봉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현실상 개선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불교적 복지마인드'를 공유하는 불교계 복지법인 내 산하시설 만이라도 연봉체계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는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 100여개의 시설을 두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나 산하에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10여개 이상 두고 있는 승가원, 인덕원, 연꽃마을과 같은 불교계 대형 사회복지법인 등은 이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윤남석 과장은 "법인의 필요해 의해 전입하는 복지사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급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기본급과 정부지원금 외에 부족한 부분을 법인적립금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복지법인이 내부적으로 산하 시설별 연봉 가이드라인표를 작성해 같은 복지법인 산하 종사자들은 최대한 통일된 급여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이같은 급여체계를 통한 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 제각기 다르지만 재단의 필요에 의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직원복지 차원에서 호봉과 급여를 맞춰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수탁받은 울릉도어린이집에 파견된 보육교사의 경우, 울릉군민이 아닌 점을 고려해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급여기준을 책정해 복지시설간 격차를 줄여 진각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사들을 배려하고 있다.

불교복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펼칠 인재를 수급하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대학, 법인, 종단 등이 참여하는 인재풀을 가동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 종사중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불교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사시부터 불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0%이상의 종사자가 같은 종교를 믿는 천주교의 경우 교구별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4회 전체 차원의 연수를 통해 천주교의 교리와 복지학을 교육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매년 2박 3일간의 연수를 통해 진각종의 교리,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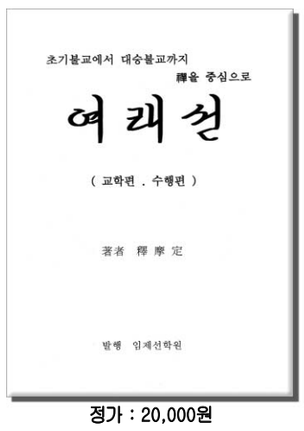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등록돼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입사와 함께 3개월 과정의 '신도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계사는 조계사교육관에서 실시하는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복지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송화진 팀장은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복지사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운영지원 사찰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펼치거나 기초신도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비록 처음에는 불자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시설에 근무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의 포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하지만, 환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불교복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의 '원력과 봉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자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여래선(如來禪)지도자 과정 입학안내



정가 : 20,000원

공부는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부처님 교설의 본지(本旨)를 잘 알지 못하면 불지(佛智)에 들기는 요원하고 수행은 더욱 어려우며 진리의 왜곡과 헛된 망상에 끄달려 지옥문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원의 불교 특강은 2기 개강을 앞두고 불교의 핵심 교학인 여래선의 지도자 과정과 공사상의 특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의 교학편과 수행편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 양성을 위한 유연 도반을 모시고자 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18일 오후 2시
- 접수 : 9월 12일한
- 대상 : 스님, 일반인
- 학기 : 2학기
- 특전 : 1. 한.중.대만 3개국 인정 여래선 지도자(禪師) 자격증 수여
  2. 수료후 선원개원 하실 분 행정 및 실기지원.

※ 통신과정도 가능합니다.

◀여래선 지도자(禪師)과정▶

개강일시	교과목	내 용	교 수	수강료
2006년 9월 18일	1교시 여래선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석마정 스님	1,2학기 전6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법회일엔 화요일	2교시 공사상(특강)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의식 박사	
	유식학	우편 통신생	동국대 오형근 박사	교재포함 40만원

수강료 입금통장 : 국민은행 547201-01-139081 임제선학원

공익법인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문의 02)496-3952-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특수교육기관』제 1호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제1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맑고 고운 천진불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본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전
- 불교어린이지도사응시자격부여(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졸업장(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알선
- 스님, 포교사 30%할인 / 불레협 전문 지도자 20%할인
- 수강료 일시불 납부 시 10% 할인

- 모집인원 : 정규반 1기 00명 (선착순 마감)
- 입학대상 : 현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포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불자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2006년 9월 13일 ~ 2007년 2월 28일)
- 교육장소 : 조계사 교육관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burec.org), 전화접수, 방문접수
- 수 강 료 : 35만원(입학금 5만원 포함) (2회 분납가능)
- 교육내용 :
  - 불교교리이론 : 불교개론, 경전개론, 불교문화 발달사
  - 교 육 이 론 : 아동 발달과 아동상담심리, 불교아동관, 미술치료, 놀이치료
  - 교 육 실 기 : 불교실기, 음악지도, 댄스, 찬불가 율동, 인형극, 풍선, 종이접기, 마술, 레크리에이션 놀이지도, 어린이법회운영의 실제, 교재 및 교구제작, 예절 및 언어지도(화술기법) 등
  - 특 강 : 어린이 명상(마가스님), 어린이와의 의사 소통법(정명자교수)
- 원서접수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실 ☎ 02)739-4967 / FAX 02)738-7863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신도회관 B1 (조계사 뒤편)

청소년들과 한 호흡 · 한 걸음

불교계 청소년지원센터 3곳 활기 … 포교 새모델 개척

부산진구, 금정구, 영도구에 청소년지원센터 3곳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문을 연 곳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관장 지일), 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 이곳에 문을 연 영도구청소년지원센터(소장 노희정),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소장 김금순), 금정구청소년지원센터(소장 이영순)는 모두 그동안 청소년 복지와 포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청소년상담을 진행해오던 수련관이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지원센터 개소로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은 부산이 유일해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새로운 모델 개척이라는 측면에서도 세 곳의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 곳 모두 5월에 문을 열긴 했지만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맡은 7~8월경.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업무는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상담과 그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출이나 학교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역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의 경찰서, 동사무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부산지역 청소년지원센터가 불교계 수련원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의 해변방문 상담모습.

각 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전화상담(1388 청소년전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기관 개척 및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 대상이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부모, 사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청소년 부모 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부산광역시종합상담센터에서 15년간 재직한 상담전문가인 김금순 소장을 중심으로 '청소년행복지킴이'를 선언하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김 소장이 찾아가는 상담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호소하는 아이들보다는 도움 자체를 거부하거나 관심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김금순 소장은 "세 청소년지원센터가 다함께 개소식을 갖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말이나 10월초 개소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마산 마하재활병원 상량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내달 준공

사회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은 경남 거제시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반야원에 이어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 중인 마하재활병원의 상량식을 8월 26일 봉행했다.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하재활병원은 반야원 옆 2000여 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진료실, 입원실, 치료실, 목욕실 등 의료시설 외에 각종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상량식에서 사회복지법인 내원 대표이사 정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마하재활병원의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상량문을 들어올리자"며 "이 자리가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웃음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참사람 만나기' 주제 수련회

부산불교신도회, 미황사서 개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8월 26~27일 양일간 하계수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달마산 해남 미황사에서 진행된 수련회는 '참사람 만나기'라는 주제로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강의, 좌선 실수, 걷기 명상, 미황사 부도전 달마산 순례, 금강경 간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공병수 신도회장은 "벼릿줄을 잡아들듯 옷깃을 여미듯 불성을 깨달으라는 고봉화상 <선요>의 말씀을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청정불심을 깨우치고 불법을 선양에 이바지하는 신도회의 위상을 재고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광성사, 티베트어 강좌 개설

한국티벳센터 광성사(주지 초퀠)는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1개월 과정의 티베트어 강좌를 시작한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티베트어 과정은 티베트스님을 강사로 진행된다. 신청자들의 수준을 감안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게 되며 향후 티베트 원전 번역 및 공부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051)243-2468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전천후 복지 '국내 최고' 인정

남해 화방복지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획득

최상의 시설 · 지역노인 위한 다양한 활동 '조화'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대표이사 효천)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전문요양원 등 생활시설) 530여 곳 중 최초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했다.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 9001/2000 인증서를 받게 됨으로써 남해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서비스를 펼친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자원봉사자가 무의탁 노인을 찾아 '화방 자비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7월 7일 화방복지원에 날아든 반가운 소식에 화방복지원 전 임직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월 10일경, ISO 9001/2000 인증서 획득을 기념하는 자축 행사를 연다. 그동안 화방복지원의 복지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온 고산 스님을 비롯한 제방의 스님들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지역민들을 모신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효천 스님은 "화방복지원하면 불교의 다른 이름이나 마찬가지다"며 "국제 규격의 객관적인 잣대로 훌륭한 평가를 받았으니 불교의 위상을 한껏 높인 것이고 그동안 함께 해온 식구들의 노고에 최고의 포상"이라고 인증서 획득의 의미를 밝혔다.

2002년 문을 연 노인무료요양시설인 화방동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비스는 점차 재가 노인 서비스로 확대됐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하고 청소, 병원 동행, 잔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펼치기 시작했다. 곧 이어 도시락 배달, 이동목욕차량 운행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돼 집수리 사업단, 간병사업단 등을 진행하며 저소득 실직 가정의 생활 안정과 고용창출까지 일손을 놓고 있는 농촌 인구의 자활을 돕는데 나섰다. 2005년에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단 사업을 시작해 480세대의 홀로 어르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꾸준한 관심과 서비스를 펼치고 있기도 하다.

화방복지원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또 하나 있다. 적자에 허덕이던 하동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 불교계 유일의 자연생태체험 수련원으로 변화시켰고, 현재에는 최상의 시설과 친절함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각광받는 수련시설로 자리 잡았다.

화방복지원이 시작해 자리를 잡은 이 모든 서비스는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농촌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였지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ISO9001 인증서 획득이 더욱 빛을 발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효천 스님은 "향후 과제는 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앞서서 제시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화방복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남북이 하나되어 불국토 이루길"

산청 해동선원 통일대불점안

경남 산청군 원각사 해동선원(주지 태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 불국토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대불 점안 봉불식을 8월 28일 해동선원 운동장에서 봉행했다(사진).

청동미륵반가사유상, 11면관음보살상, 18나한상 등 100여 위의 불상과 함께 봉안된 통일대불은 높이 7m 무게는 100여 톤에 달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등 500여명이 동참했으며 통일대불 조성 공로자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회향됐다.



이날 봉불식에서 해동선원 조실 성수스님은 법어를 통해 "통일대불처럼 대범하고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헛생각 하지 말고, 헛말 하지 않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관음사, 팔관재계 수계산림

무차평등 수륙재도 봉행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는 8월 30일 팔관재계 수계 산림 및 무차평등 수륙재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9월 21일까지 팔관재계 수계 산림이 봉행되며 9월 19일 팔관재계 수계법회, 9월 20일 수륙재, 9월 21일에는 회향법회 등 다양한 법회가 열릴 계획이다.

특히 기도 기간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송광사 율원 도일 스님, 원통 스님을 법사로 초청 법회도 연다.

관음사 수륙재는 그동안 태고종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던 범패 의식을 조계종 비구스님을 중심으로 봉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051)294-9300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봉 행

정구 보현사 명부전 · 정토원(납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쁜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



◆ 일 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
◆ 내 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
보현사 대웅전 앞
◆ 문의 : 보현사 043)259-4926

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 까지
◆ 일 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
◆ 출 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강사)
· 가수 고무밴드 (유명 기~타 리스트)
· 가수 이성원 (소쭉새 우는밤)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
※ 청주불교방송 제작 혜철스님 법문집 테이프.CD 전국 불교서점 판매
◆ 문 의 : 대성사 043)732-5560 혜철스님

봉 행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는 청원군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을 이루기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석문사 주지 혜전 합장



◆ 행사명 :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 예상 인원 : 관내 어르신 1천여명
◆ 일 시 : 2006년 9월16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 광장
◆ 내 용 : 봉행식 / 위안잔치 - 사물놀이, 국악마당,
노래공연, 북공연, 경로노래자랑 등
◆ 문의 : 석문사 043)264-3008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포교국장과 포교사단이 손 잡았다

대구경북 5개 본사 포교국장 · 경북포교사단 '의기투합'
정기모임으로 협력체제 구축 "현안 논의하며 모델 개척"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모여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또 대구경북 포교사단도 포교국장 스님들의 '의기투합'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지역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포교국장 스님들은 지역 포교의 원동력은 포교사단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 사부대중의 화합을 통한 포교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8월 29일 동화사 포교국장 선용 스님과 은해사 포교국장 명강 스님이 대구경북 교사단 최문성 단장과 박정수 박성정 부단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포교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불국사 직지사 고운사 포교국장 스님들도 향후 포교국장단과 포교사단이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공조한다는데 사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모임은 포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은해사 포교국장 명강 스님의 제안에 동화사 포교국장 선용 스님이 동의하면서 마련됐다.



대구 경북지역 5개 교구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과 대구경북 포교사단이 8월 29일 모임을 갖고 '포교'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모임에서 선용 스님은 "신입포교사의 품수를 앞두고 소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배출된 포교사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보고 이는 대구경북 5개교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포교가 지상과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대구경북 5개교구가 포교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나서 노력하고 포교사단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포교사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교인력의 부재라는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스님들은 각 교구본사가 지역 포교를 위해 펼치고 있는 노력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상호 협력할 부분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대구경북 포교사단 최문성 단장은 "그간 포교사들에 대한 사찰과 스님들의 인식이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지역포교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며 교구본사가 직접 나서 기회를 주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포교사고시에 합격하고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만큼 포교국장 스님들의 지역포교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과 포교사단 지도부는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역 포교 현황을 파악 새로운 포교모델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튼튼한 법당으로 중수 … 운문사 대웅보전 상량식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 대웅보전(보물 제835호)의 해체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운문사 회주 명성, 학감 일진 스님을 비롯한 승가대학 학인과 문화재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상량식에서는 보수 공사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옛 상량문 5매와 문화재청과 운문사에서 만든 중수상량문을 함께 봉안했다.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운문사가 신라 진흥왕 21년(560)에 처음 지어졌고 조선효종 5년(1654) 2월 8일 화재로 전소 그 이듬해 중건(重建)됐으며, 불기2962년(1935) 주지 장호운이 다시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정면 3간, 측면 3간 다포계 팔작지붕 양식, 57평 규모의 운문사 대웅보전은 내년 5월 복원이 완료된다. 배지선 기자

총재 허운 스님 회장 김용태 교장 취임

대구 파라미타, "초등학교에도 파라미타 결성"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왼쪽 사진)이 제3대 대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로, 능인중학교 김용태 교장(오른쪽)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8월 26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중앙회장 원택 스님, 포교원 포교국장 재현 스님,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총재 허운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등학교에도 파라미타를 확대해 갈 것이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등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 대구 파라미타를 반석 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도 "파라미타 운영학교와 회원수를 증가시키고 즐겁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신심을 바탕으로 올바른 심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배지선 기자



"금강같은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해인사 3차 1029일 천도법회 입제, 지관스님 법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8월 28일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제2회 1029일 천도법회를 회향하고 제3회 1029일 천도법회 입제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초청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029일 천도재 법회는 유주무주 시방법계 고혼을 제도하고, 선망부모의 이고득락을 발원하는 법회"라며 "효도의 뜻과 함께 탐 · 진 · 치에 빠져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계정혜의 금강같은 마음으로 바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자"는 법을 설했다.

해인사는 그동안 1029일 천도법회가 원만히 회향하는데 공이 있는 불자들에 대한 표창패와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든 참여대중에게 새롭게 발간한 500페이지 분량의 신행법요집을 기념으로 보시했다.

배지선 기자

안동 홍효사 홍은불교대학원 문 열어

개원 1주년 맞아 … 원로교수대거 강의

안동 송현동 홍효사(주지 자암)는 창건 1주년을 기념해 홍은불교대학원(원장 활안) 8월 28일 개원했다(사진).

홍효사는 효행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이 지난해 창건했다. 손현수 회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대한불교 홍은선원(총재 손현수)을 설립하고 홍효사를 도심포교당으로 등록한 후 불법홍포를 위해 2년 과정의 불교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하게 됐다.

홍은불교대학원은 효행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교훈으로 설립한 2년 과정의 교양 대학으로 유식학, 천태학 대승기신론 부모은중경 등 24과목을 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오형근, 이영자, 권기종 교수, 전북대 철학과 강건기 교수, 동국대 대학원장 서윤길 박사, 동국대불교대학원장 조용길 박사 등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불모들 신심 · 기량 한자리
다불회 대구서 회원전

평생 불화를 그리며 수행 정진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불모들의 모임 다불회(多佛會)가 대구 천진갤러리에서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다불회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지장-효와 현실의 알레고리'라는 주제의 전시불사를 앞두고 도송 스님을 비롯한 유경자, 정현주 유희자 등 15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원력을 담아 용맹정진하며 제작한 작품 35점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 것.

다불회는 금어 만봉 스님의 제자며 한국만다라연구원장인 도성 스님을 주축으로 한 한국만다라연구원 소속회원 15명의 소모임이다. (053) 254 - 6620

배지선 기자

연꽃음악제 '화려한 무대'
영남불교대 칠곡도량서 성황

대구 칠곡 3지구 아파트가 밀집한 가운데 위치한 함지공원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렸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칠곡도량(주지 대륜)이 8월 26일 개최한 제3회 한 여름밤의 연꽃음악제가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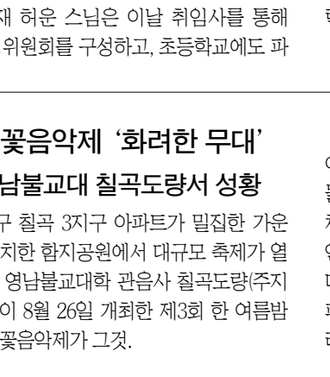
1만여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영남불교대학 선재어린이풍물단의 풍물놀이와 전통문화연구원의 부채춤, 김혜연, 박정식, 안치환, 해바라기 등 인기가수들의 열광적인 공연으로 진행됐다. 또, 무대 주위에는 수지침, 다도, 페이스페인팅 등의 각종 문화체험 부대행사가 열려 열기를 더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4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9월 14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연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제6회 광주비엔날레 불교에 꽂히다

9월 8일 개막 … 불교 소재 작품 다수 전시

9월 8일 개막하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전시된다.

가장 주목 받을 작품 중 하나는 한국계 미국작가 마이클 주(Michael Joo)의 '반가사유상'을 이용한 비디오 설치작업. 이 작품은 불상 주변에 여러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불상의 각 부위를 조각난 파편처럼 보여주며 작가 자신의 전통적 뿌리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미국작가 데이빗 하몬스(David Hammons)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두 브론즈 불상을 서로 마주하도록 배치한 설치작품이다. 두 불상의 합장한 손끝에는 하나의 긴 줄이 연결되어 있고 한 가운데 안전핀이 매달려 있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학적 결단을 보여준다.

타이완 출생의 슈민 린(Shu-min Lin)은 '내공 1'이란 작품에서 동양의 선(禪)과 불교사상을 뉴미디어를 통해 표현한다. 갤러리 바닥에 영상으로 투사된 연못을 만들고, 관객은 헤드폰을 끼고 앉아 뇌파활동에 의해 변하는 이미지를 보도록 한다.

중국 출신 장 후안은 작품 '평화'를 통해 퍼포먼스, 조각, 설치를 아우르는 복합예술을 선보인다. 범종 몸체에 조상의 이름을 새긴 뒤, 자신의 몸을 뜬 브론즈 조각으로 종을 치도록 한다. 타종을 통해 평화를 외치는 퍼포먼스에 관객도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 출신 딘 큐 레(Dinh Q .Le)는 '머리없는 불상'으로 베트남 전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관객을 위한 공연 행사에 불교사물과 선무공연단이 출연해 불교문화와 대중의 한마당 무대를 펼친다.

광주비엔날레 최수연 전시 코디네이터는 "금번 비엔날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미술, 문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한국과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라며 "동양 문화의 핵심인 불교관련 작품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제6회 광주 비엔날레는 11월 11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계속된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gb.or.kr)를 참고하면 된다. (062)608-4114 이준엽 기자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는 다수의 불교소재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진은 이번에 소개되는 불교작품 중 하나인 타이완 작가 슈민 린의 '내공 1'.

보현사 · 대성사 산사음악회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으로 청주 보현사와 옥천 대성사가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가을의 향연을 전한다.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불자와 청주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한마당'을 주제로 9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산사음악회를 연다.

청주불교방송과 본사 대전충북지사 주관으로 열리며, 기타리스트 고무밴드와 오영민, 최은혜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가수들이 출연한다. 또 신명예술단은 어린이풍물과 대북공연으로 흥을 돋을 예정이다. (043)259-4926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도 9월 23일 오후 6시30분 산사음악회를 열어 옥천군민과 불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와 함께 진행돼 가을산사의 흥취를 돋운다. 티베트 스님들의 뿌자의식으로 시작되는 음악회는 박정식, 이성원, 불교합창단의 공연과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장기자랑으로 진행된다. (043)732-5560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자비로운 삶 … 숭고한 '육신공양'

시신기증 故 위연환 포교사



8월 30일, 전남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옆 추모관에서 조촐한 영결식(사진)이 열렸다. 주인공은 故 위연환 조계종 포교사. 위연환 포교사는 29일 세상을 떠나기 앞서 법구를 전남대 의대에 기증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마저 생략됐다. 위포교사의 뜻이 알려지자 광주전남 포교사단이 이날 영결식을 마련한 것.

광주전남 포교사 백남용 단장은 "고인은 병상에서도 고통을 뒤로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탬되는 일만 생각했다"며 "육신기증으로 의학발전과 장례문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추모했다. 또한 친구 정환채 씨도 "고인은 항상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며 "지인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애도했다.

故 위연환 포교사는 향년 51세로 지역병원에서 근무하며, 광주불교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자격증을 취득, 장엄봉사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수련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26~27일 양일간 진주지원에서 첫 신도회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너는 나의 빛'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10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 열린음악회, 화엄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수련회를 지도한 혜찬 스님은 "처음 열린 신도수련회지만 수행 열기는 뜨거웠다"며 "신도들의 단합과 수행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했다.

이준엽 기자

사하촌 한국전쟁 희생영가 선운사서 55년만에 천도재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스님과 사하촌 주민을 위한 천도재가 55년만에 열린다. 고창 선운사(주지 범여)는 9월 30일 내원암 터에서 '삼인리 6 · 25 희생 영령 천도재'를 봉행한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선운사를 지키던 호명 스님과 삼인리 주민 53명은 북한군에 의해 선운사 내원골에서 희생됐다.

이번 천도재는 주지 범여 스님이, 내원골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55년만에 봉행하는 의미있는 행사다.

한편 선운사는 천도재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범종각 준공식과 타종식을 봉행한다. 새로 조성된 선운사 범종은 1500관 규모의 대종으로 주철장 원광식 씨가 제작했다. 선운사는 범종불사를 기념해 저녁 7시 대웅전 앞마당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제3회 산사음악회도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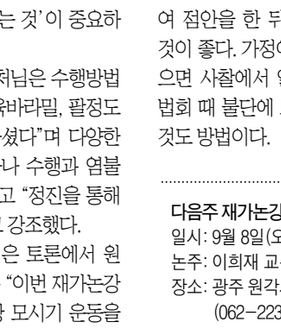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❸정진 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는 재가논강이 회가 거듭될수록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세 번째 논강이 8월 25일 '정진 바라밀'을 주제로 200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이호근 법사(사진 · 前 광주전남 교사불자회장)는 "다양한 수행방법이 있지만, 스님 · 재가자를 가릴 것 없이 보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정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주 이호근 법사는 주제발표에 앞서 논강 참여 대중에게 합장을 하도록 했다. 이 법사는 서로 맞닿은 손바닥의 느낌에 대해 "내 마음이 손바닥에 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며 "이처럼 마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지키는 것이 정진"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순간 순간 지켜야 해"

이 법사는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라. 지혜있는 자의 정진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요,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며 가난한 자의 길이다"는 부처님 열반송을 상기시키고 "출가한 수행자들만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도 세속에 살면서 마음속의 속박과 장애를 이기고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 방법으로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환경과 조건, 근기가 다르지만, 연기 원리에 맞는 실천 수행법을 선택하도록 힘써야한다"며 "수행을 통해,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 묵조선, 염불선, 능가선(달마선), 위빠사나, 간경, 주력, 기도, 예불, 사경, 불사, 찬탄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사는 "부처님은 수행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육바라밀, 팔정도를 실천하도록 강조하셨다"며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 위빠사나 수행과 염불 수행법에 대해 설명하고 "정진을 통해 항상 마음을 챙기자"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이번 재가논강을 통해 집집마다 불상 모시기 운동을 펼치자"며 "형편상 점안식을 하기 어려우면 재가논강 지계바라밀 수계식(9월 15일) 때 원각사 대웅전 불단에 불상을 모셔 수계와 함께 점안한 뒤 집안에 봉안하자"고 제안했다.

◆질의 응답

▲재가자가 공부하는데 있어 사찰이나 선지식마다 가르치는 수행 방법이 달라 혼란스럽다. 어떤 수행법으로 정진해야 하나.

– 부처님은 수행에 있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의 극단적인 것을 경계했다. 정진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이다. 자기마음을 순간순간 바라보며 지키는 것이다. 참선, 염불, 사경 등의 수행을 통해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랬을 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된다.

▲집에서 불상을 모시고 정진하고자 한다. 불상을 모시면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조선시대 억불정책에서 나온 오해다. 신라, 고려시대에는 집집마다 불단을 마련했다. 집에 불상을 모시는 것은 '불교 생활화'의 첫걸음이다. 몇 년 전 열반에 드신 청화 스님은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자기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을 초청하여 점안을 한 뒤 정갈한 곳에 모시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점안이 여의치 않으면 사찰에서 열리는 수계식이나 큰 법회 때 불단에 모셔 점안을 대신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지혜'
일시: 9월 8일(오후 7시)
논주: 이희재 교수(광주대)
장소: 광주 원각사 법당
(062-223-3168)

금강선원 병술년 윤칠월 7일 예수재

예수재는 생전에 사후를 위하여 법의 공덕을 미리 쌓는 불교의식입니다. 즉, 사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 역수재(逆修齋)라고도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의식인 것입니다. 금강선원 윤칠월 예수재에 무루 동참하시어 선업을 닦고 업장 소멸하시길 기원합니다.

금강선원 원장 혜거 합장

	날 짜	강 의	주 제
입 재	9월 15일(금)	송석구 박사 (前 동국대 총장)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제2일	9월 16일(토)	종호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화두로 돌아보는 진정한 열반의 의미
제3일	9월 17일(일)	이덕진 교수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의식과 문화로 돌아보는 죽음 이야기
제4일	9월 18일(월)	혜거 큰스님 (금강선원 원장)	죽음에서 열반으로
제5일	9월 19일(화)	김형호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서양사상에서의 마음공부
제6일	9월 20일(수)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생명조작의 현황과 연기적 입장
회 향	9월 21일(목)	동희스님	예수재 의식집전

대한불교 조계종 金 剛 禪 院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문의 : 02)445-8484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종단 중앙신도 조직 대부분 유명무실

재정 · 인적자원 확보 어려워

상당수 종단의 중앙 신도조직이 유명무실하거나 지역 사찰 중심으로 돼 있어 교세 확장과 포교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중 절반이 넘는 15개 종단은 전국 신도조직이 있으나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신도조직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조직화된 신도조직은 각 종단의 교세확장은 물론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계종을 제외한 다수 종단들이 전국 규모 신도조직보다는 지역 사암 중심의 소규모 조직에만 의존하고 있어 종단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신도조직이 소외되거나 성과가 미온적이기 일쑤다.

전국신도회가 구성돼 있는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2004년 이후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활동도 거의 없는 편이다.

종단 행사를 하면 중앙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기 보다는 해당 지역 지방 종무원에서 신도동원이나 진행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큰 행사나 불사를 기획해도 신도동원과 모연금 마련은 언제나 하는 곳에서만 책임지게 되는 천편일률적 모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교세확장과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신도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태고종은 새 조직 정비에 나섰다. 태고종은 이달말까지 개별 사암 신도회 대표를 중심으로 교구별 지방신도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신도회 조직을 완료할 방침으로 신도회 전산화 작업도 하고 있다.

군소종단일수록 신도 조직의 유명무실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A종단은 창종 이래 한번도 전국 규모 신도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이 종단은 종단차원의 행사를 하면 총무원장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사찰에서 주로 인원이 동원된다. 그러다보니 종단 행사가 총무원장 사찰의 개별 행사로 전락하고 말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때문에 총무원장스님과 친분 관계가 없는 사찰의 주지들은 아예 종단의 공식행사에는 참석조차 않는 일도 벌어진다.

그나마 중앙 신도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B종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도회가 있지만 자체적인 예산마련이 힘겨워 전폭적으로 종단 지원을 받다보니 신도회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종무원 역할만 하기에 급급하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신도조직 정비는 교세확장을 위해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세가 약한 종단일수록 재정마련이나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거의 조직화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신도들에게 종단 사업이나 행사에 자주 참여시키고 조직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소 종단들은 보통 여력이 안되다보니 각 지역의 당해 사찰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찰중심으로 신도조직이 이뤄지고 있어 중앙차원에서의 신도회 결성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부 결속력과 재원 마련이 시급한 군소 종단일수록 전국 규모의 신도조직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김주일 기자

총지종 9월 8일 멸도절 추선불사

총지종은 창종주 원정 대성사 열반 2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추모법회)를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한다.

효강 종령은 "종단도 창종 당시의 강한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때"라며 "이번 추선불사는 종도들에게 종조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이 혼란스런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융종, 국운융창 수륙대법회

원융종은 9월 12일 오전 11시30분 충주 중앙탑 공원에서 '국운융창 및 호국영령과 선망부모 왕생극락 수륙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산재 시연에 이어 총무원장대행 선진 스님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서울의 첫 천태종 유치원

구강사, 내년 3월 개원

서울 천호동 천태종 구강사(주지 갈지스님)는 서울 강동 교육청로부터 8월 31일 '구강사 유치원' 설립을 정식 인가받았다.

구강사는 2007년 3월 구강사 1~2층(총 면적 300평 규모)에 5~7세의 유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체육관, 4개의 교실을 갖춘 유치원을 개원한다. 구강사 유치원은 유아들에게 △효와 예절 △명상(정신 집중) △건강한 신체 △한글 원리를 통한 언어 교육 △봉사 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강사 주지 갈지 스님은 "구강사 유치원은 유아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며 "예절과 도덕, 티베트 요가와 기공 체조시간을 갖고 직접 제작한 교재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강사는 전국 천태종 사찰로는 열여덟 번째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됐다.

한편 구강사는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유치원 교사 5명을 모집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불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02) 479-4450~2

김주일 기자



내년 3월 강동구 구강사 1~2층에 개원예정인 구강사 유치원 전경.

진각종 韓-스리랑카 학술대회

11월 27일~12월 2일 콜롬보서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혜정 정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 켈레니아대학원에서 제 4회 한국 · 스리랑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남인도의 대승불교와 밀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회당학회와 켈레니아 팔리불교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며, 회당학회 회원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다. 회당학회는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남방불교 유적지 및 세계 8대 불가사의인 시기리아락 등을 탐방하고, 네곰보 JGO센터 개원 기념 공식행사도 참관할 예정이다.

회당학회는 2002년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한 · 중 국제학술대회를 중국 법문사에서, 2004년에는 한 · 일 학술대회를 일본 고야산대학에서 개최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대전 구암사 신도들이 8월 30일, 32사단 호국대원사 수요법회에서 훈련병들에게 국수를 나누어 주고 있다.

국수 한 그릇에 군생활 고충 '훌훌'

구암사, 15년째 장병대상 국수 공양
버섯 · 양파 등 온갖 야채로 국물 내고
수타면 이용…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대전 구암사. 법회가 있는 날도 아닌데 10여명의 보살들이 사찰을 찾았다. 매주 수요일마다 32사단 호국 대원사 법회에 참석하는 장병들에게 먹일 국수를 삶기 위해서다.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보살들은 후원으로 향했다.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버섯 양파 등 갖가지 야채를 집어넣었다.

내 아들같은 군인들이 먹는 음식이기에 조미료를 넣지 않고 야채로만 맛을 낸다. 천연 재료로 맛을 내기란 쉽지 않은 법. 장작불로 하루 종일 삶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있다.

국수도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대신 대전에서 유명한 수타 국수인 오동국수를 사용한다. 면발이 유난히 쫄깃쫄깃해 맛이 일품이다.

구암사가 32사단 호국대원사에 국수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 북천 스님의 원력 때문. 스님은 일반 사병으로 군대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경험과 먹을거리 하나로 종교를 바꾸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군포교가 필요하며 절실하다는 생각에 15년전부터 지역 군법당인 대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떡, 과일 등을 지원했으나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겠다는 생각에 국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회 시간이 다가오자 하루 종일 끓인 육수와 삶은 국수를 아이스 박스에 담느라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힌다. 호국 대원사 권기원 군법사도 부대에서 1톤 트럭을 지원받아 구암사를 찾았다. 오후 7시 법당을 찾을 장병들이 맛있게 국수를 먹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대원사 수요법회에는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을 위주로 법회를 보고 있다. 이날도 100여 훈련병들이 법회에 동참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원에서는 구암사 보살들이 장병들에게 국수를 주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삶은 국수를 그릇에 담고 육수만 부으면 바로 먹을수 있게 후원 한켠에 국수 그릇이 차곡차곡 쌓였다.

"아들아, 잘 먹어라."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법회가 끝이 나자 군종병의 안내에 따라 훈련병들이 차례로 국수를 받아 먹기 시작했다. 군에 입대한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황순형 훈련병은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국수를 해 주시는 것같이 맛이 있다"며 "법당에 오면 법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국수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연신 웃는다.

권기운 군법사는 "지역 사찰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많은 사찰들이 지역에 있는 군법당과 결연을 맺고 후원을 해 준다면 군포교는 물론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周 주 易 역 講 강 義 의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부처님 법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마는 부처님 법을 중생제도 하기에 알맞은 방편인 신비한 오행비법이 바로 강의속에 있으니 선지식의 스님들 앞에 감(敢)히 머리조아려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뜻있는 불자님들도 이곳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 明 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9월 23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 필 석 居士

※ 특전 : 수강료 일시불, 매번 강의 무료. 스님은 필기도구 및 교재무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법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 스님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단법인 선 학 원 **寶 明 寺 보 명 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 26일 / 여의도 KBS홀
사랑과 효, 그리고 적대감독!!
입장권 예매 02-739-7837 www.interpark.com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수원 봉녕사는 윤 칠월 칠석을 맞아 8월 30일 500여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인총림 복장전문위원 경암 스님을 복장단주로 대적광전 부처님 세분의 전통복장의식을 재현했다.

복장 터질 일 없는 세상 위해 부처님 복장 가득 채웠네

3m 높이 세 부처님 동쪽 향해 눕혀 오장 상징 오곡 등 65가지 성물 담아 5시간 반 동안 전과정 완벽 재현

'전통 불복장 의식' 공개하던 날

이래저래 복장 터질 일이 많은 세상. 갖가지 성물(聖物)로 부처님 복장(腹藏)을 채우며 '복장 편한 세상'을 염원해 보는 마음은 경건하기만 하다.

음력 윤 칠월 칠석(8월 30일),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에서는 해인총림 복장전문위원 경암 스님의 집전으로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의식을 재현하는 의미있는 잔치가 열렸다. 이날 경암 스님은 복장의식의 핵심인 후령통(부처님의 다섯 장기를 상징하는 성물을 담은 병)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부대중 앞에서 재현했다. 특히 재가신도들은 밀법(密法)으로만 은밀히 전해져 오는 복장의식 재현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희심에 휩싸였다.

법당안 3m 높이의 대형 부처님은 벌써부터 복장을 기다린다는 듯 불두를 동쪽으로 놓고, 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누워 있다. 가로 40㎝, 세로 30㎝ 크기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 공간을 활짝 열어놓은 채.

봉녕사 대적광전 삼존불은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 오른쪽에 노사나 부처님, 왼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복장의식 재현은 오전 10시, 500여 사부대중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복장단주(腹藏壇主)를 맡은 경암 스님 뒤로, 증명법사 정호 스님(화성 용주사 주지), 영산 스님(용주사 선덕), 묘엄 스님 등이 어간문을 통해 법당안으로 들어섰다. 5방법사와 송주법사를 맡은 범산 도관 보천 영명 혜만 정각 스님 등 젊은 율사들도 뒤따라 입장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500여 신도들이 질서정연하게 법당에 입장하자, 경암 스님은 들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쇄수물을 뿌려주며 법당을 청정히 하는 결계의식을 시작했다.

황색탁자(중앙), 청색탁자(동방), 백색탁자(서방), 홍색탁자(남방), 흑색탁자(북방)에 5방법사가 각자 위치에 서자, 곧 증명 3화상(지공 · 나옹 · 무학 스님)을 청하는 예불이 이어지고. 북방법사 옆으로 송주법사가 자리 잡았다. 가운데 가장 넓은 황색탁자에 앉은 아사리(경암 스님)의 '훔' 하는 부름에 따라 동서남북의 법사들 역시 '훔'으로 답하며 후령통에 담을 성물을 차곡차곡 쌓았다.

각 방향의 법사들은 아사리의 주문에 따라 오곡(대맥 직 도 녹두 마자), 오보(금 진주 은 유리 호박), 오약(인삼 감초 주심 아리 부자), 오향(청목향 정향 곽향 침향 유향) 등 무려 65가지 성물을 차례로 놓기 시작했다. 이어 법사들이 '백산개진언(옴 살바다타아다 제다라 보아명가 삼모나라 빠라나 삼마예 훔)' 까지 각 순서에 맞는 진언 108편을 송하는 사이, 신도들은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주력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하며 장엄스런 분위기로 이끌었다.

본격적인 복장 의식이 시작되자 대중스님들이 일제히 일어나 두르고 있던 가사를 벗어 복장단을 가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갈 일종의 '장기(臟器)'를 신도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라니를 외던 신도들이 급작스런 스님들의 행동에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경암 스님은 오색실로 한데 묶은 성물을 다시 오색비단에 감싸 묶기 시작했다. 이어 후령통 안이 꽉 차도록 비단을 감아 성물을 넣고 다시 부처님 진신 사리와 수정구 등을 채운다음 비로소 뚜껑을 닫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경암 스님은 정성을 다해 금색 보자기에 후령통을 2번을 더 싸고, 풀칠로 마지막 봉인을 하는 것으로 이날 의식을 끝냈다. 드디어 목불에 생명을 불어 넣을 심장이 생긴 것이다.

경암 스님이 대중에게 후령통이 다 채워졌음을 알리자, 황색탁자위에는 부처님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후령통 3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도들은 환희심이 솟구쳐 박수를 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쉬지 않고 의식을 이끈 법사스님들과 대중스님들, 그리고 미동도 않고 꼬박 5시간 30분 동안 다라니를 왼 500여 신도들의 공덕도 그대로 부처님의 복장에 오롯이 담겨지는 순간이었다.

봉녕사 주지겸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은 지난 2001년 6월 대적광전 불사를 마치고 봉불식까지 마쳤지만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고 한다. 유서깊은 봉녕사의 역사적 전통을 생각한다면 큰법당 부처님을 성대히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복장에 대해 아는 이가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날 여법하게 치러진 복장의식을 끝까지 지켜본 묘엄 스님은 "이제 내 복장이 다 후련하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대중 스님들 또한 오늘의 환희심을 떠올리며 수행 정진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최근 <조상경(造像經 · 불상을 모시는 방법을 기록한 책)>에 대한 연구논문을 책으로 발표한 태경 스님(동국대 박사과정)도 이날 의식을 지켜보며 "오늘같이 화려하면서 격식을 모두 갖춘 복장의식은 조선시대 왕실의 지원을 받은 사찰에서나 가능했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스님은 "경암 스님이 통 복장의식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낸 것은 한국불교사에도 길이 남을 의미있는 불사"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수원/글 =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노사나 부처님이 복장을 기다리며 천정을 향해 잠시 누웠다.



성물을 후령통에 집어 넣는 순서가 되자 스님들이 일제히 가사를 벗어 복장단을 가린다.

interview 전통 복장의식 재현 경암 스님

"복장의식 관심갖는 계기 됐으면"



올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자격을 인가 받은 경암 스님(사진)은 해인총림 율원장 무관 스님으로부터 묵담 스님(1896~1981)의 복장의식을 전수 받았다. 밀법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의미나 유래를 찾기 힘든 것들은 직접 <제불보살복장단의궤><조상경><관상의궤> 등 고서의 원본과 일일이 대조해가며 원형을 복원해 냈다. 스님은 특히 올 2월 7일 해인사 목조비로자나 부처님의 복장의식 전과정을 9시간에 걸쳐 진행하면서, 조선초기 불교의궤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경암 스님은 "전통복장의식을 잘 모르는 신도들을 위해 처음으로 의식을 공개했다"며 "이날 법회가 복장의식의 중요성과 전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장의식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는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스님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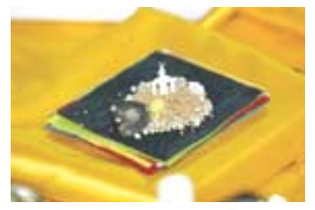
불복장 봉안 순서



세분 부처님의 복장안에 들어갈 65가지 성물이 가지런히 놓였다.



복장물을 청결히 하는 결계의 의미로 쇄수를 뿌린다.



성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다.



오색천에 싸인 성물을 한데 묶고 있다.



오색실은 부처님의 법력이 중생에게 전해져 오게 하는 의미로 성물을 완전히 감싼다.



방위가 틀어지지 않도록 비단천을 꽉 채워 성물을 넣는다.



완성된 후령통이 봉인을 마치고 복장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습.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최근 '사찰경영'이라는 말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불교경영을 구현하고 있는 김순경 (주)새한텅스텐 회장을 8월 28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자CEO의 역할,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익금 10% 사회로 회향

김순경 (주)새한텅스텐 · 새한마이크로텍 회장


김순경 새한텅스텐 회장의 집무실에는 성철 스님, 월운 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휘호가 걸려있다.

이윤보다 일하는 사람 행복토록
성과급제도 통해 경영 투명화
직원들 회장 법명 딴 사보 발간
'된 사람' 위해 매주 교양강좌 실시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매주 화요일 전직원은 교양강좌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일 잘 하는 사람보다 '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된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된 사람'이 되라는 취지이지요."

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육안 밝혀 심안 뜨게 하리"

국내 처음으로 텅스텐을 소재로 한 필라멘트를 개발한 (주)새한텅스텐. 텅스텐을 이용한 광원은 기존의 필라멘트보다 적은 전기로 더 밝고 강력한 빛을 선사했다. "육안(肉眼)을 밝혀 심안(心眼)을 뜨게 하겠다"는 김순경(78 · 법명 돈오) 새한텅스텐 회장의 원력이 결실을 맺은 것. 이는 곧 창업정신이기도 하다.

김순경 회장은 젊은 날 개신교의 절대자에게 빠져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에게 절대자의 섭리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 해답을 준 것은 철학적 근거가 명료한 불교였다. 김회장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인가를 받아 수락산 내원암에서 법사로 활동했다.

"불교가 너무 좋아서 법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말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지는 못했어요. 어느 순간 이것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재가불자인 나는 육안이라도 더욱 밝혀 심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새한텅스텐입니다."

김회장의 경영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형이상학적 요소를 가미한 불교경영이라 일컬을만하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한다'는 그의 경영철학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경영과도 차이가 난다.

"저라고 왜 돈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돈 욕심을 버리고 나니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경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금 직원과 사회에 회향

김회장은 불교에서 얻은 경영철학을 이익금 환원으로 실천했다. 국내에서 성과급제도가 소개되기 전이었던 1977년, 이미 새한텅스텐(당시 새한공업사)에서는 영업이익을 종업원에게 돌리는 성과급 이익배당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오늘의 새한텅스텐을 일굴 수 있었던 힘도 이 제도에서 나왔다.

"성과급제도는 단지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급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하지요. 경영이 투명해지고 종업원은 일한 만큼 벌어가니 회사가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순경 회장이 성과급제도를 시행한 데에는 선진경영의 측면도 있었지만, 그의 불교관이 더 큰 작용을 했다. 사장부터 가장 낮은 직급의 종업원까지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부처님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느 회사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직원복지 여건을 갖춘 것도 불교경영의 방편이다.

김회장의 직원을 위한 경영은 이익을 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익금의 10%는 반드시 사회에 회향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한번도 빠짐없이 실천했다. 200여 직원들은 김회장의 이 같은 경영원칙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새한텅스텐과 새한마이크로텍 직원들의 책상에 불교서적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김회장의 '직원을 위한 경영'에 감명을 받은 탓이다. 직원들은 김회장의 법명을 딴 사보 <돈오>를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김순경 회장은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김순경 회장은 1977년 첨단광원소재 산업제인 (주)새한텅스텐을 창업했고, 1999년 나노테크 기술업체 (주)새한마이크로텍을 설립했다. 불교와 인연이 깊어 수락산 내원암에서 법사로 활동했으며, 오랜 기간 내원암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새한텅스텐 · 새한마이크로텍 회장으로 봉선사 신도회 총회장, 구리문화원 원장직도 맡고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향꽃이

'글라스 향꽃이'는 불에 타지 않는 유리재질의 글라스로 만들었고, '조가비 향꽃이'와 '나뭇잎 개구리 향꽃이'는 사기제품입니다. 기존의 향꽃이에 비해 디자인이 뛰어나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립니다.



가격 : 글라스 향꽃이 12,000원, 조가비 향꽃이 12,000원, 나뭇잎개구리 향꽃이 12,000원

붇다의 경제학 (16)

지속가능한 템플스테이

올 여름 몇몇 사찰들은 많은 손님들로 인해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경내가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는 좀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절집이야말로 부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 것이다.

템플스테이가 점점 많은 도시민들의 휴가 방법이 되어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절집을 찾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짐을 감출 수 없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스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얻는 기회가 아무래도 절집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라는 형태를 통해 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 습성 외면한 마케팅은 실패율 높아
다가가지 않고는 관심 · 사랑 받을 수 없어
팔만사천 법문은 중생 눈높이 맞추라는 뜻

불교를 알기 위해서,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워서, 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찾는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매년 템플스테이를 통해 절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 되는 것일까.

사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고 있는 템플스테이 붐은 서양에서 시작된 템플스테이 열풍이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발생한 잠시 동안의 유행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비록 절집에서의 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당분간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템플스테이 바람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경영학의 마케팅 이론에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은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습성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그것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하면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의 현재 습성에 맞추어서 마케팅을 할 때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절집에 가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오래된 절에 가면 아파트 생활을 하는 현대의 도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잠자리, 욕실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편함을 강요받는다. 한번, 두번은 신선하게 느끼지만 그 이상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버리기 쉽다. 또한 만나게 되는 불교의 내용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잠시 절집에 머무는 그들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며, 한 달에 한 시간도 삶의 심오함을 생각해볼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라는 방식으로 얼마나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진실로 절을 찾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는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중생의 키에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으며, 한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문 경전을 읽을 수도 없으며, 이 나라의 교육정책 덕에 철학도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불교에 팔만사천의 수많은 법문이 있는 것은 눈높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 때문이다.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찾아가셨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가 한때의 유행이 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기원한다.

눈높이 서비스가 절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4도 판화와 베틀린 옥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플레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앞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뜻밖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세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패 · 불공 천도재 · 49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법흥사 정각 합장
"나무묘법연화경"
031)879-4883

신기한 - 약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육임입문 출간기념
육임학 특강
■역학의 공식화, 쉬운 학습
■최고의 길흉적중율, 검증된 정확성
■강태공 · 제갈공명 애용 역학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나비재	사	각종의식
안						
식	49재			출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기공지도자
전 문 과 정
수련생모집
행자모집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성인병 연근의학
절에 여유있는 쌀로 연근누릉지를 만들어드립니다 쌀이 없으시면 쌀갑만 추가
• 가공비 : 연가 포함 20kg 25,000원
불교신앙촌
043)743-0102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0만원
이인스님 4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010-7747-5222

귄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천수 바리춤,오공양작법(나비춤)
(살풀이, 극락춤, 승무, 지전춤, 연화무)
여법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사찰의 모든 대소 행사를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정원빌딩
051)515-7865
019-502-8868
바라춤, 나비춤 수강생 모집 中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모 집
1. 불자 사법, 행정, 고시원생 1명
사찰 독방 10평 무료제공
(수세식 화장실, 샤워, 싱크대 있음)
식사, 전기료 등 본인부담
경기도 양지 덕평 (동서울 50분)
2. 처사 1명
3.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불자 남녀
(고졸이상 45세이하 10명)
011-9176-4403
054)383-8032

행자모집 (예비스님)
참신하고 불심이 돈독한 (女)행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45세 미만 여성
사단법인 대한불교 흥은선원 흥은사
054)822-3133
011-9576-4450

총무보살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778-0408

평생 같이하실 처사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65세
018-427-225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10-4559-8682
052)243-388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출퇴근
강남구청역사거리(7호선)
02)458-1108
010-5541-6568(오후5시이후)

미국 가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김포
011-688-6625

부전스님 자리를 찾습니다
010-4586-8763

함께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011-9571-64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5~55세 이하
경주 남산
054)748-353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당뇨로 고생하시는 대덕스님들께 소승이 순수식물로 3개월 복용 후 거의 정상수치로 돌아온 바 (30분 정도 효과) 스님들분께만 1개월 무료 보시합니다 일반인 절대 전화 사절(비매품) 도허 합장
010-8669-3020

조계종 승납 15년 이상 비구기도 법사스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지역
011-562-86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60세
경기도 동두천 부근
보시금 80만원
016-9367-9367

부전스님 모십니다
02)456-0797

김해,경남,마산지역 사찰 원함
주택 1억 5천짜리 소유, 윗돈 없어서 3억 미만 사찰 맞교환 원합니다
051)556-4426
011-9233-4426

노래하는 성일스님



전국 사찰행사에 부처님 음성공양 (찬불가)를 불러 드립니다
개원 및 점안식법회, 초하루 보름 법회, 각 재일법회, 산사음악회, 불교대학, 찬불가 지도.
※ 경북 김천 직지사 방면 . 보리사 성일 합장
절 054)433-8034 / 010-4812-8034

윤달든 해 조상님 산소 처방 안내
산소이장, 잔듸소멸, 쥐, 뱀, 여우, 두더지, 벌레 구멍방지 물이 고였거나, 흙이 나쁜 산소를 명당터로 바꿔지는 책자가 필요하신분은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7324-5115

E-2 비자나, 자녀교육으로,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
저는 미국 LA 카우니 쎄래토스시에서 2000sq 면적의 아주 예쁘고 위치 좋은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고있는 보현행보살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려합니다 소중히 가꾸어 자리잡은 저의 샵에 주인을 찾습니다. 이곳은 학군이 아주좋은 지역이므로 자녀를 유학이나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홈페이지(www.vivantjoiecerritos.com)나 email: jheo69@hotmail.com 방문하시고 저의쎌폰 미국 213-327-4374 / 샵 562-403-2228으로 연락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정보입니다.

실전 구성학 속성반 모집
운명 · 운세 · 방위학 · 개운비법
① 특별한 암기법에 알기 쉽게 풀이한 명강의
② 운명의 대책을 강구하는 개운비법과 통쾌한 실전풀이
③ 프로를 프로답게!!
스님, 법사, 철학, 상담인 환영
강사 백도현 011-9735-1742(서울 BBS 맞은편)

육임 동영상 강의
http://www.saju79.com
육임강의를 이제는 안방에서 공부 하실수 있습니다
최고 고화질 강의를 일년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때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육임은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손님에 목적사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학문입니다
일년동안 일백만원에 육임에 비법인 백법 강의까지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와 720국수에 해설과 앞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강의를 모두 일백만원에 공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793-7333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010-7302-007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정 정 합 니 다
현대불교신문 593호(2006년8월 30일자) 31면에 게재된 도천(이병근)스님의 탈종공고는 보성정사 사찰탈종이 아니며, 도천스님 개인탈종공고로 정정합니다.
● 법명 : 도천(이병근) ● 승적번호 : 6793
● 주소 : 경주시 강동면 오금1리 491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워야만 바로 지체없이 氣치료 능력자, 氣주입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독자들께서 오래 수련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된다는데 의문을 표하며 믿으려 하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답은 실제로 교육을 받아 보시라는 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는 더욱 많은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레이키를 배워 보실 수 있도록 교육비를 9월 1일 부터 5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150만원) → 1999년(120만원) → 2000년(100만원) → 2002년(70만원) → 2006년 9월부터(55만원)이라는 교육비 인하의 경과를 거쳐 온 것입니다.
레이키요법은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 여러가지 급만성 질환은 의료와의 협진요법으로서 효과를 두루 발휘하는 氣주입법이며 약손요법이고 면역력 향상법입니다.
◆ 교 육 비 : 55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10분 피어선 빌딩 809호실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www.10cho-unse.com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포천 ● 법당: 22평 ● 요사: 13평 ● 부지: 134평 ● 가액: 2억 2천
● 위치: 충북충주 ● 법당: 23평 ● 요사: 61평 ● 부지: 2000평 ● 가액: 6억
● 위치: 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관악구포교당-월 85
2. 서울명산목조사찰-6억
3. 서울산속사찰만평-20억
4. 서울국유지사찰-10억
5. 강남포교당100평-월 300
6. 은평구포교당-40평-월 50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듸밭
016-367-211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5천5백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
● 위치: 대구근교 ● 부지: 550평 ● 법당: 15평 고찰 ● 요사: 20평 산속 ● 가액: 2억 1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성주군 백아면
● 대지: 105평
● 가액: 1천 9백만원
010-7207-332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226-28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법당 40평
● 시설 : 주지실, 종무소 1층 -공양간, 창고. 2층- 요사채
● 특징 : 도심속의 기도와 포교도량
● 가액 : 급 양도 3억 3천만원
011-9853-3843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 평수: 대지 150평
● 건평 54평(3존불, 16나한)
● 가액: 보증금 650만원 (선세140포함)
시설비1,000만원(총1,650만원)
054)861-3014.861-3015
010-6374-0034

위치	부 지	가 액
• 부산	약 200평	5억
• 마산	약 100평	2억5천
• 서울	약 1000평	6억
• 충북	약 500평	2억
• 경기	약 1500평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아미산 최고의 명당)
● 평수: 10,000평 중 종교부지 600평 허가득
● 가액: 16억원
● 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국유지 600평 주차장 사용중
● 당진읍에서 10분거리 진입로 4미터 포장됨
연락 : 011-329-84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전세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산자락)
● 전체평수 1,400평
● 건물 85평/임법당 심야전기, 일체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41-0113
054)975-6642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55평, 창고 10평
● 특징: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집뒤에 솔 숲.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5억 3천
017-432-3663

강원도 산수 좋은 곳
사찰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017-420-2200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에서 20분 거리
● 전통사찰 3500평
● 가액: 7억(절충가능)
055)852-2518
011-571-455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총부지 560평
● 아담한 사찰
● 가액: 1억 6천 8백만원
055)674-8089
011-9232-6462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입출입,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1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샤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9천 7백만원
010-7474-0108
010-4510-01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의정부 역 앞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 평수 60평, 법당30평 방3개, 거실, 화장실 샤워장, 옥상 사용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
● 총평수: 416평 田 88坪
● 건물: 3동 60평
●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010-3542-3203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 수성구 최요지
● 법당 65평 기존 포교당 운영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6-528-3736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토굴안내 (예경선원)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건물 3동, 방 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천만원
010-6401-4939
010-5631-8439

암 자 안 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뒷길 경북 경산시 와촌면
● 대지: 약 224평, 건평 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산신각 조경시설
● 가액: 2억 4천만원(조정가능)
011-529-7799
018-534-1777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017-336-752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황토방
● 대지 100평, 전 305평
● 가액: 1억 5천만원
041)753-8137
010-4202-3699

주말농장및토굴 (보림터)
● 가야산 1400M
● 형제봉 1200M(전망좋음)
● 도로, 전기, 거실 완비
● 전답 250평(평단가10만원)
010-9366-892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기장 -임법당
● 평수: 130평
● 법당 20평,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 가액: 전세 3천5백만원(달세가능)
● 비품대 2천만원 답사후 절충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경관 좋음
018-575-840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임야 5,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 주차완비, 도로변
● 가액: 5억 5천만원
011-816-9104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경관수려, 시내에서 걸어서 5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1-333-3859
033)244-2534진황합장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 삼존불, 후불관세음보살 50분 , 신중산신각 나한존자 16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로 5분거리
● 대지: 241평 공양간 1층 30평, 법당, 2층 30평 ,요사1층 20평, 2층 20평, 3층 창고 15평, 방1개 조립식창고 10평, 임야 1400평
● 가액: 4억 8천(임야포함) 절만 인수시 3억 5천
055)852-2518
011-571-455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 500만원 월37만원
● 시설비 1천 8백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평수: 평지,전 합해서 500평
● 건물: 40평
● 가액: 1억 1천 5백만원
016-536-1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420평 등기필,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5개
● 주차 10대 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1-737-0736

암 자 안 내
● 위치: 아산시 대방면 호서대 근처 천안에서 20분거리 온양에서 20분거리
● 산신각 4평, 법당 15평 요사채 50평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백평
● 옷샘, 약물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00-580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 (상가 2층)
● 총평: 4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방 2개, 입식 화장실, 보일러 10년된 포교원
011-9769-8868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슬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융자 4천 포함)
033)562-7053/011-9793-7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포교당겸토굴터안내
● 위치: 전남 해남군 현산면
● 대지 : 352평
● 건평 : 32평
● 가액: 5300만원
011-631-2954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서천
● 평수: 대지 198평
● 건물: 임법당 부처님 및 집기일체
● 가액: 5500만원
011-653-78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범일2동 자성대 파출소 옆
● 평수: 20평 자리중에 왕자리
● 가액: 시설비포함 1천만원 즉시법회가능
016-664-6171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
● 대지: 420평
● 법당 13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5~6평
● 가액: 1억 3천만원
011-511-0926

가 야 산 별 장 안 내
● 면적: 15000평
● 건물 30평, 집 65평, 집 20평, 창고 겸 50평
● 못 4개, 정자 2개, 인공폭포 1개 (도로인접) 자연폭포 (산 중턱) ,잔디밭 1천평
● 조경이 100% 완벽-석등4, 12층탑1, 5층탑 2개 그 외 탑 10여개. 기도처나 절로 적절
● 가액: 20 억
011-829-2957

포 교 당 안 내
70평에 잘 만들어진 포교당입니다. 책임지고 운영할 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인천 계양구 효송동 상가3층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 법당, 삼성각 친견실2개, 방3개 등
● 조건: 책임하에 운영하거나 전, 월세, 안내 기타 조건 협의
018-212-38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전남 화순읍 10분거리
● 대지: 90평
● 가옥: 20평(적별돌구조 신축)
● 법당: 8평 (신축)
불상 및 탱화, 인등 및 불구 구봉산 정기가 모인 혈처, 교통 편리 기도, 참선수행, 역학, 기치료의 최고명당
● 가액: 7천 5백만원
061) 373-4987
010-4670-69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별 장 안 내
● 위치 :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평수: 2층 60평
● 주지실, 상담실, 공양실, 욕실, 삼존불과 후불 산신.신중.관음.지장탱화 소불 520불 집기일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83-50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천 오정동
● 상가건물 3층 50평
● 법당 시설비 집기류 일체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답사 후 결정
010-6244-9111

사 찰 안 내
● 교통 관광 경남일대 최고의 위치.
●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사천공항에서 20분거리)
● 부지 : 1200평 주차장250여평 田畓750여평. 매실70여그루
● 특징 : 도로 1.5km 사찰소유 100% 포장. 버스운행 가능
● 건물 : 65평 중 임법당, 방 7개, 부엌2개, 원 황토방 뒤 8부 능선 200평 토굴집. 창고2. 비닐하우스1
● 가액 : 1억8천만원 헐값 매매 (주지 교통사고로 운영 불가능)
※이외 사찰 터: 진주시 정촌 화개 1500평. 평당 15만원
055) 884-0208/011-866-7372

근대화 물결 속 한국불교 모습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북아 삼국…' 발표회



"일제가 한국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 · 관리하기 위해 1911년에 제정 · 시행한 사찰령 속에서 당시의 불교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불교 발전과 종단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2005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정에 따른 중간발표회를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계의 대응(Ⅰ)'이란 주제로 8월 29일 동국대 계산관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회에서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자신의 논문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을 통해 1910년대의 불교계의 사찰령 수용에 대한 인식화 과정과 변용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했다.

김 교수는 당시의 한국불교계가 사찰령에 대해 큰 저항과 무리 없이 그것을 정착 · 수용한 구조적 이유에 대해 '종단의 부재'를 들었다. 즉 당시의 상황에는 현재의 총무원과 종회처럼 종단기관과 조직체계 없이 주지들의 연락사무소와 본산의 공동사무소뿐이어서 사찰령에 의거한 30본산제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사법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총독부의 지배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김 교수는 또 "1920년대 중반 이후 승려의 결혼 보편화에서 보이는 일본계율의 수용과 사찰령에서 정한 본말사 구도를 인정하는 노선이 대세를 이뤘다"며 "이는 곧 사찰령이 정한 체제 및 구도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발전 및 종단 건설을 추구한 당시 승려들의 활동과 의식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회에서는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연구교수의 '승려의 입성 금지 해제와 근대불교의 전개' 불교문화연구원 김제란 연구교수의 '중국 근대 신불교운동과 <대승기신론> 논쟁' 불교문화연구원 한상길 연구교수의 '개화사상의 형성과 근대불교' 불교문화연구원 조승미 연구교수의 '근대일본불교의 여성교육비판'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사지내 불법건물 '버젓이'

논산시, 개태사지 복원 위해 매입후 관리 안해

1983년 충청남도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개태사지. 고려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개태사지는, 당국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서 사적지 내 불법 용지 개발과 현상변경 절차를 무시한 건물 증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태사지 안에는 현재 당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된 '왕건영전 개태사지'라는 사찰이 있다.

이 사찰은 2001년도부터 개태사지 내에 있는 강동훈 스님의 가옥(나대지 포함해 약 1100평)을 사용하고 있다. 논산시는 '개태사지 발굴 · 복원사업' 일환으로 2003년 11월과 2004년 7월 2차에 걸쳐 원 소유자인 강동훈 스님으로부터 이 땅을 모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왕건영전 개태사지 주지 해산 스님은 2002년 현상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사찰을 증축했으며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나대지 1000평을 허가 없이 개발해 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정에서 나온 주춧돌 등은 사찰 주변에 돌탑과 축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개태사지 인근에 위치한 천불사 주지 성원 스님은 사찰 수행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무시한 채 개발을 하고 있는 '왕건영전 개태사지' 행위에 대한 민원을 문화재청과 논산시에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당국은 한차례만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상태다.

문제는 2004년 '개태사지 발굴 · 복원사업' 명목으로 '왕건영전 개태사지' 대지를 매입한 논산시가 매입과 동시에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도 어긴 채 여전히 그곳에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보호와 매입에 관한 결재는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하는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 선에서 전결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찰에서 당초부터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나 건축변경신청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 · 승인 후 현상변경과 개발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스님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사법처리가 원칙이지만 현실상 행정경고처분명령이 오랜 관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적지 매입 후 주거인의 즉시(강제) 이주와 가옥의 즉시(강제) 철거가 원칙이지만 당시 도의적인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었다"며 "조속히 이주통고 공문을 발송해 이주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개태사지 내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주변의 주춧돌로 탑과 축대를 쌓아 사적지를 훼손한 '왕건영전 개태사지' 모습.

문화재청 김동현 문화재위원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현상을 무단변경(증 · 개축)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8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재 훼손은 큰 죄가 아니겠지'라는 의식과 행정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태사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도 "2011년에 개태사지 발굴 ·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왕건영전 개태사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사적지에 대해 뒤늦게 복원 계획을 세운 당국의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당국의 안일한 사적지 관리를 비판했다.

양산 스님은 또 "하루 빨리 개태사지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개태사지가 불교문화 사적지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개태사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평정한 후 국가의 안녕과 중흥을 빌기 위해 건립한 국찰로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00년대에 새로 새운 개태사 경내에는 개태사지 석불입상(보물 제219호)과 개태사지 5층석탑(충남문화재 자료 제247호), 개태사 철확(충남민속자료 제1호), 석조(충남문화제 자료 제275호) 등이 남아있다.

또한 상방산의 한 암자에도 개태사지 터에 있었던 석조불좌상 1구가 안치돼 있었고 이곳에서 출토된 청동제 반자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글 · 사진/논산=노병철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6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에서 제71차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보조사상이 현대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진각종학연구소 김경집 연구원의 '근 · 현대보조사상의 역사적 영향' 창원대 이덕진 교수의 '근 · 현대 불교에 끼친 보조사상의 영향-근 · 현대 고승들을 중심으로-'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은 최근 학술지 <보조사상> 제26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문 5편과 일반논문 2편 등 총 12편의 논문을 실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2>

종교와 과학적 상식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 속에 살고 있다. 컴퓨터그래픽은 SF 영화는 물론 수백 수천 년 전의 역사 사극을 리얼하게 만들어 낸다.

인터넷에서 공양도 하고 예불도 할 수 있는 종교 사이트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이러한 일련의 문명과 문화는 인간의 진화에 많은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다윈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체 또한 그에 맞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의 과학문명은 이러한 자연의 선택을 부정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사회적 혹은 종교적 상식은 에너지의 남용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석유를 포함한 화석 연료의 남용으로 지구의 이상기후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징후도 곳곳에서 보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달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무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자력 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 수소저장 기술을 연구한다. 또한 생물의 유전자를 바꾸어 인간이 원하는 특징을 가지게 하고, 생노병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에 매달린다. 이미 현재의 인간은 100년 전 인간과 달라져 있는 모습이듯 수백 년 후 인간의 모습은 지금 인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진화돼 있을 것이다.

생명 원리 파악 등 과학자들 집념 종교와 배치
불교는 진화를 인연의 그물속 '무상존재'로 봐

역사적으로 종교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대응했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현재에도 진화론에 대한 창조론의 도전은 끈질기다. 마치 진화론에 의해서 특정 종교가 부정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포유류에서 진화되어 왔다면 창조주가 흙에서 영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창조했다는 근본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종교에 비해서 불교의 관점은 매우 관대하다.

불교에서는 진화라는 현상을 특별한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어차피 육체(혹은 물질)는 실체가 없고 이를 관장하는 것은 오직 업이라는 인과의 법칙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인연의 그물로 파악함으로써 진화라는 현상조차도 무상의 그물내의 인연법칙 안에 있다는 말이다.

종교적 천재조차도 상식적인 경험에 근거한 오류를 범한다. 선객들이 나침반으로 여기는 고봉 스님의 <선요>에서는 "이는 마치 가벼운 깃털보다도 무거운 쇠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의 만유인력에 의한 가속도는 무게와는 무관하다. 또한 성경에서 "하늘에 나는 새도 조물주가 먹여 살린다"고 했다. 그러나 한가히 나는 듯한 새도 사실은 먹이를 찾고, 짝을 쟁탈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대부분은 먹이와 짝을 찾지 못하고 당대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말이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끝없이 발전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조차도 진화시키려할 것이다. 이러한 때 참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인간, 자연, 우주의 아름다운 진화를 선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 평수: 25평, 3층건물 1층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들어 오시면 됩니다
02)304-3447
018-382-344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사상구 주례동
● 평수: 40평
● 시설: 삼존불, 방2개 시설 완벽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즉시 법회가능
051) 313-5589
010-6416-5589

사찰안내
● 위치: 삼천포에서 5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약수물과 계곡물 철철 흐름 소원성취 기도도량
● 가액: 2억 1천만원
010-2666-1335

임야안내
(기도원, 연수원, 수목장)
● 위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대전에서30분
● 면적: 7만 3천평
● 가액: 평당 1만원/ 주인직거래
● 이용가치: 종교시설 기도원 및 연수원과 수목장 최적지
(수목 울창한 청정계곡 . 포장도, 차량진입)
017-405-1554
야간10시 이후 042)522-2588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학동
● 건물: 25평
● 삼존불 탱화시설완비
● 가액: 전세 28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8-315-0108

사찰안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웅전, 문화재, 요사채, 대중공양간
● 방 5개, 산신각, 염불전, 큰 거실 2개
● 가액: 답사 후 절충
054)762-8677

휴양처(급)안내
● 대지 총 68평~44평
● 1층: 방2, 홀, 주방, 거실, 화장실 , 심야보일러
● 2층: 방3, 화장실2, 거실, 베란다
● 주소: 강원도 정성군 남면 유평2리 76번지 삼내약수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가액: 1억 2천만원
011-735-431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소재 (서울 30분 거리)
● 대지: 175평, 법당 30평
● 요사채 현대식 (2층건물)
● 가액: 3억 2천 만원
● 특징: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곳입니다
016-510-3455

사찰(급)안내
서울 도심 속 아담한 절
● 상가 3층 건물 (옥탑사용)
● 법당 시설 A 급 확신함
● 보증금 800만원(월60만원)
● 시설권리금 : 2500만원
011-458-295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장림
● 2층 30평
● 삼존불, 지장불, 소불 200불
● 탱화 기타 제반시설 완비
● 가액: 전세 500 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694-0621

사찰터안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 대지 : 70평,
● 건물 : 85평 (1, 2층)
작은 정원 및 외곽지역
소나무 대문앞
북악산 자락 도심속의 전원주택 명상, 요가센터, 갤러리 등으로 적합
011-335-9663
011-669-0964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일 주 문



해병대 2사단 장병 수계식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8월 27일 김포 해병대 2사단 청룡사 법당에서 군장병 23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할린서 징용한인 위한 위령재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9월 5~12일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을 방문해 '건국 58주년 사할린 피징용한인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한다.



가사불사 및 보살계 수계산림

장성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9월 17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가사불사 및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한다. (061)392-7502



국보 301호 괘불탱 공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9월 10일 '생전예수재 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을 공개한다.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국민고충처리위원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8월 21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현등사 삼존불 점안식 봉행

가평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8월 30일 아미타부처님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점안식을 봉행했다.



덕원중서 정년 퇴임식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은 8월 30일 대구 덕원중학교에서 정년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몽골에서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이원철 회장은 회원 10여명과 함께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바슨베르 군 소재 국립 요양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수재의연금 2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최성휴 회장과 신도들은 수재의연금 200만원을 모아 8월 29일 조계종 사회부에 전달했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에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정우식 실무위원(前 서울 조계사 청년회장)은 9월 1일자로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자활교육 중심의 종합복지 구현"

자비복지타운 이전, 준공식 여는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욕구와 꿈이 있고, 관심이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재활치료와 자활교육을 통해 이들이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비복지'의 이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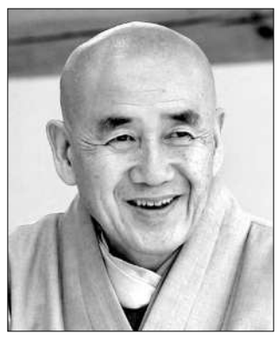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사진)이 9월 7일 경기도 이천시 자비복지타운에서 열리는 준공법회(본지 593호 3면기사 참조)를 앞두고 8월 29일 승가원 법인사무실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종범 스님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대해 "그간 소쩍새마을이 장애인들의 보호에 중점을 둔 생활시설이었다면, 앞으로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교육까지 펼칠 것"이라며 종합복지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복지타운의 면모는 '자비복지 구현'이라는 이념에서도 드러난다. 승가원은 현재 완공된 생활시설은 물론이고 2007년 재활치료센터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체육센터, 생태체험관, 특수학교, 의료센터 등을 갖춘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거듭난다.

스님은 "이는 치료와 재활에서 그치지 않고 '자활교육'까지 제공하는 총체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야만 '자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소쩍새마을은 그간 불교계의 대표적 '비인가시설'이었으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준공과 함께 '불교계 최대의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거듭나고, 건립불사가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자체건립시설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복



지타운 건립 의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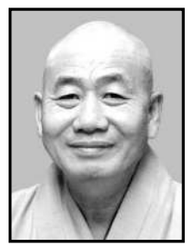
스님은 특히 "승가원은 전적으로 3만여 후원자 덕택에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종범 스님은 "후원은 '생명'을 교환하는 소중한 행위이며 자신의 복을 적극적으로 짓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불교계에 후원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미국포교의 '역사' LA 관음사 도안 스님 입적

30여 년간 미국포교에 전력해온 미국 LA 관음사 주지 홍엽당 도안 스님(사진)이 8월 28일 오후 6시(현지시간) 입적했다. 세수 70세, 법랍 54세.

도안 스님은 195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57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4년 운문 스님과 함께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를 결성한 도안 스님은 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도 지원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



포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해외포교에 큰 원력을 세운 도안 스님은 1975년 미국 LA 관음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10여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1,000여평 규모의 교회를 매입해 한인문화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미주 평불협회장을 맡아 북한을 14번이나 왕래하면서 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스님은 1986년 한글학교인 관음사 일요학교를 개설해 한인 2세 포교에도 주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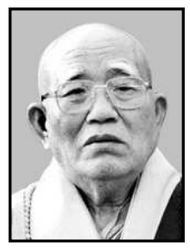
도안 스님은 86~95년 미국 불교협회 공동의장 및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조용수 기자**

'평생 선방에서 수좌들과 정진' 지옹 스님 입적

하동 칠불사 운상선원 선덕 지옹 스님(사진)이 8월 28일 오전 3시30분 밀양 반야정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2세, 법랍 62세.

1941년 울진 불영사에서 출가한 지옹 스님은 44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철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61년 해인사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지옹 스님은 44년 망월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봉암사, 칠불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평생을 수행 정진했다. 해남 대흥사 북암 옆에 손수 토굴을 짓고 13년간 용맹정진을 한 일화는 유명하다. 스님은 81세라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칠불사 운상선원에서 수좌들과 함께 동안거를 지내기도 했다.

지옹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8월 30일 밀양 반야정사에서 봉행됐으며, 49재는 문경 봉암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광주 향림사, 네팔 사원과 자매결연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와 네팔 빨뗀따시카쵸 사원이 8월 31일 자매결연을 맺고 불교교류 및 포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네팔 칠링 린포체는 빨뗀따시카쵸 사원에서 1500년간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향림사에 기증하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국간의 불교발전에 힘쓰자"고 말했다.

허운 스님,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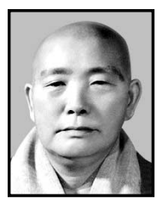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동화사 총무국장 홍관, 기획국장 각만, 사회국장 능광, 보현사 주지 지열 스님, 허석구 동화사신도회장 등과 함께 8월 30일 천주교 대구대교구청을 방문해 최영수(요한) 대주교를 비롯한 지역가톨릭지도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화합을 다졌다.

미륵종 비구니회 감포서 방생법회



미륵종 비구니회(회장 동성)는 8월 25일 경주 감포에서 전국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종 원로원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중앙종회 의장 지은 스님과 전국의 비구니스님 및 신도 등 1500여명은 이날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했다. 이와 더불어 비구니회는 수재민돕기 모금운동도 벌였다.

前 운문사 주지 태구 스님 입적



부산 반야사에서 주석해온 前 운문사 주지 선화당 태구 스님(사진)이 8월 29일 입적했다. 세수 87세, 법랍 7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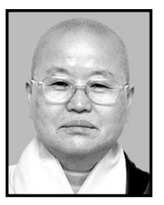
1920년 울산에서 출생한 태구 스님은 11세 때인 1930년 청도 운문사 지인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했다.

33년 통도사 혜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46년 해인사에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50년부터 70년까지 부산 반야사 주지를 지냈고, 70년부터 75년까지는 청도 운문사 주지를 맡았다.

84년부터 90년까지 단일구족계단 비구니증사, 86년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90년 부산비구니금련회 회장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음성 미타사 주지 명안 스님 입적



음성 미타사 주지 명안 스님(사진)이 8월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입적했다. 세수 69세 법랍 45세.

1961년 출가한 명안 스님은 현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4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71년 미타사를 중창한 이래, 81년에 미타사 선원을 개원했으며 90년까지 미타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8월 31일 미타사 극락전에서 문중장으로 봉행됐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 세상보기

안 명 옥
시인

어른 없는 인터넷 세상

'도박공화국'이란 소음을 빨래해서 널고 돌아서는데 세상이란 마당에 뿌연 먼지들이 자욱하다. 애써 빨아놓은 마음을 더럽힐까 싶어 우선이 뿌연 '먼지들'부터 가라앉히려고 마당에 찬물 뿌려놓고 기다려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온 마당 안이 대학교수가 제 아내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고, 진짜 아내임을 증명키 위해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올려놓았다는 '먼지'와 30대 주부가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올려 우유 값도 벌고 유치원도 보내고 했다는 '먼지들'로 뿌옇다.

기막혀 질식할 것만 같다. 아무리 돈이 우선인 물질만능, 황금주의 세상이라지만 이것은 정상인으로 볼 수 없는 정신 이상자의 행동이 아닐까. 물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살기위해 필요한 재물과 종족번식을 위한 성적욕구 등을 해결하려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사람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하나 돈이 없다면 불편할 뿐이다. 택시 탈 것을 버스타면 되는 것이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정신의 공황 상태요, 도덕의 불감증이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경계를 가릴 줄은 알아야 하는 법이다. 음란한 사진에 열광하고 클릭하고 덧글을 달아주던 국민들 역시 관음증에 걸린 병자들이다. 정신건강의 수위가 위험하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먼지처럼 떠도는 음란물에 대책 없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중독돼 가고 있다.

인터넷은 인간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편한 세상을 제공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부도덕과 음란성과 각종 범죄와 자살 등 역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공기업체에서 여배우들의 알몸 화보들을 모바일에 띄워 정보이용료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단속의 잣대는 허술하기만 하다.

형식적인 성인 인증시스템과 부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음란 성인사이트를 두고 표현의 자유나 개인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 어른 없는 나라에서 막 자란 '어둠의 자식들' 같다. 자동차 한 대를 내건 댄스 경연대회에서 여성들이 속옷까지 마구 벗어 던지며 춤을 추더라는 소식을 들었다. 더 섹시하고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야 많은 박수를 받으며 우승할 수 있다고 자신의 존엄성이나 정체성마저 과감하게 내버리는 세태다.

지금 우리 세상은 어른도 내몰고 아버지도 없다. 밥상머리 교육도 사라지고 오로지 입시지옥 속에 인성교육은 먼 얘기다. 학원만 다닌 아이들에게 욕망을 다스리는 수행 또한 없다.

빈부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상대적 빈곤 속에서 위화감마저 느끼거나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서민들에겐 절망뿐이다.

우리가 혹시 '무정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어른이 어른으로 바로 서고 교육이 제 길을 가고 종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에 충실하고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살지 않겠다는 대답이 70퍼센트가 나왔다는 어느 설문조사를 허투루 넘기지 말고 다시 돌아봐야 한다. 너무 때가 늦으면 기회도 없다. 도덕불감증에 면역주사라도 놓아야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법신불' 만나는 기쁨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가능할까?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능가경(楞伽經)>에서 "일체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마음이다"라고 한 뜻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허선사는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교(敎)요,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선(禪)이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수행의 방법은 역대 조사스님들이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교가 전승되는 시대와 지역의 인연을 달리 하면서 수행방법은 선, 염불, 간경, 주력 등 여러 가지로 실천되고 있지만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근본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이번 9월 16일부터 10주에 걸쳐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에서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란 대주제로 종단에서 저명한 10대 강백을 설주로 모시고 줄가 · 재가 불자들을 경전의 세계로 안내한다. 경전의 핵심을 통찰하여 신심을 일으키고 발심 수행하는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대발심 법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찬탄할 대작불사이다.

요즘처럼 사회와 경제가 불안하고 갖가지 수행법이 난무하여 마음의 안정처를 갈구하는 이때 대강백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위시하여 열 분의 강백을 모시고 경전 하나하나가 제시하는 수행의 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수승한 기회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하는 경전이지만 어떻게 지니고, 읽고 이해하며 수행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불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불교의 최종 목적인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수행은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으로 되는 길이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뇌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행이든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사이비다. 경전은 삼보 중의 하나이다. '법신불'을 가장 가까이서 명확하게 모시게 될 이번 '강설대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콜라텍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탐내는 것이 셋이 있다. 비록 한때는 젊다 하더라도 반드시 늙음이 오리니 젊음은 애착할 것이 못된다. 비록건강하다 해도 언젠가 병들날이 있으니 건강 역시 뽐낼 것 없다. 비록 현재는 목숨이 붙어있어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니 매달리고 집착할 것이 못되느니라. <증일아함경>

술을 팔지 않는 무도회장 일명 '콜라텍'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흔하게 사용되더니 얼마 전 휴일 오후 서울의 한 콜라텍에서 노인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손님들이 불이 난 것으로 오해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는 바람에 70대 할머니가 압사하고 다른 노인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콜라텍에는 500명가량이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콜라텍이 '할 일 없고 돈 없는' 노인들이 차지한 지 이미 오래됐다. 일반인들은 다소 생소하겠지만 언제부턴가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을 대신해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양이다. 입장료 몇 천 원만 내면 몇 시간을 때울 수 있어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복지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당장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는 오인들이 아직도 콜라텍 입구를 서성이는 한 선진국형 복지는 요원한 얘기다. 젊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까운 미래 예비노인의 위치로 들어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불교계가 노인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의 종교인 불교가제 일 먼저 이들을 포용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한글의식 생활화

조계종 포교원이 2005년 4월 <한글통일법요집 Ⅰ 천도 · 다비의식집>에 올 8월 <한글통일법요집 Ⅱ 상용의식집>발간을 마무리했다. 상용의식집에는 도량석, 종송, 상단예불, 각단예불이, 상용의식으로 삼보통청, 미타청, 지장청 등 각종 행사 발원문도 소개돼 사찰과 가정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때 우리말로 법회의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말 의식집 완간에 따른 불교계의 기대를 들어본다.

각종 공식행사부터 실천을

우리나라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으로 의식을 집전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2003년 제2기 신도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일법요집 한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계사 등 주요 사찰이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첫 번째 번역의 문제다. 2005년 발간된 <한글통일법요집 Ⅰ 천도 · 다비의식집>의 경우 짜깁기 번역의 문제가 발생했다.

의식은 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 전문가나 포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일관된 흐름으로 집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보급의 문제다. <한글통일법요집>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선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천수경 하나만이라도 직접 해 본 다음 차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 또 종단 각종 공식 행사부터 <한글통일법요집>을 기본 교재로 해야 한다.

<한글통일법요집>으로 집전한 의식을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전국 사찰 및 불교단체에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홍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종단차원 지원과 점검이 필수

<한글통일법요집>이 완간됨에 따라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 불교의식의 의미를 알고 함께 참여하게 돼 중요한 상장례의식, 재의식은 물론 상용의식에서 불교와 알기 쉽게 만나게 돼 포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불교의식은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과 선의 알맹이를 담고 있다. 알기 쉽게 한글화했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와 선의 핵심을 잘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식의 한글화 · 통일화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글통일법요집>이 널리 보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포교 일선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이나 지도법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글통일법요집>은 종단 차원에서 발간한 일종의 '지침서'다. 따라서 본말사주지연수를 비롯해 각종 종단 행사에서 <한글통일법요집> 활용을 강조할 것이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요구도 많았기 때문에 정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종단 차원에서의 지원 및 점검 시스템 수립도 시급한 과제다.

재현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청소년포교현장에 큰 도움

청소년 포교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글통일법요집>이 완간돼 매우 뜻 깊다. 학교에서 법회를 진행할 때 한글로 된 통일법요집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제껏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서 나온 한글법요집은 있었지만 종단 차원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라 더욱 반갑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집전할 때 한문으로 된 의식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뜻도 모르고 집전하는 사람의 목탁소리와 염불소리만 듣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의식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으로 더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을 법회로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완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홍보 및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지도자들이 <한글통일법요집>을 기본으로 한 의식 집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커다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시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박영동(동국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교법사)

'현대'만평 심 민 섭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축열식 심야온돌 · 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성황리 분양 중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美 정혜사 석타 스님께 현묵이 올립니다

"'국내 포교부터 해야지 해외는 무슨…' 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했던 제가 참 스승을 만났습니다"

'해외포교'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 길을 자청해 떠나기란 쉽지 않다.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재정 마련 등은 해외포교를 '고행 길' 처럼 인식시키고 만다. 그러나 여기, 독립군 대장과 같은 스님이 있다. 美 캘리포니아 주 LA 오렌지 타운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 10년 전부터 부산 금화사에 초등불교학교를 만들어 어린이포교에 매진해온 현묵 김광호 법사가 정혜사를 7월 18일부터 한 달간 방문하고 돌아와, 본사에 편지 한 통을 대신 부쳐달라고 부탁해왔다. 미국 LA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다.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곳뿐인 한국사찰 정혜사에서 주지 석타 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김광호 법사(왼쪽에서 첫번째)가 함께 기념촬영한 모습.



척박한 미주불교 포교현실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정혜사의 학생수련회 자료사진들이 알림판에 빼곡하다.

석타 스님!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지도 어느 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간 스님과 정혜사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편안하신지요?

사실, 전 오래 전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성지 순례 중 만났던 한국의 사찰들과 스님들, 유럽 등지에서 접했던 우리불교의 흔적들에서 자부심을 느낄 때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에게 그다지 큰 공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저 뭐 '먼 곳까지 와서 불사하며 한국불교를 전파하느라 고생하는 구나' 정도로만 느끼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사를 다녀온 뒤로는 '도대체 내가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며 포교한답시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제쳐 두고서라도 정혜사 법우들이 어찌나 열심인지 지금도 부끄러움에 계면쩍고 얼굴이 화끈거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쟁보다 더 큰 격전(?)을 치르고 있다'는 스님의 표현대로 사방이 이교도에 포위되어 철벽같은 수성만도 버거운데 한걸음 더 나아가 포교의 기치를 높이 내 걸고 어린 꼬맹이로부터 연로하신 노보살들까지 거두고 챙기고 보살피는 스님의 원력과 정성에 감탄을 거듭하게 됩니다. 또 "수행자는 배고픔을 면할 정도면 된다"며 가녀린 체구로 정혜사를 진두지휘하는 스님은 진정 만주벌판에서 기상을 떨치는 독립군 대장과도 같았습니다.

거기다 두 딸과 함께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도맡아 하시느라 정작 절에 와서도 주지스님 얼굴조차 제대로 볼 겨를이 없다는 법성화 보살님, 우리가 죽더라도 "아-들이 커가꼬 우리 절을 지키야 된데이"라는 노보살님들의 원력에 눈시울이 새삼 붉어졌더랬습니다. 가게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법우들께 협박 반, 회유 반 심지어는 원생까지 빼내가며 개종을 강요하는 억압(?)속에서도 꿋꿋이 정혜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국내 포교도 중요한데 해외는 무슨…' 이라는 편협된 저의 근시안적 사고는 비로소 참된 스승을 만나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니다. 왜 해외포교가 '선택' 이 아닌 '필수' 인 까닭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외포교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깨닫게 되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손에 꼽히게 됐습니다. 먼저 20~40대 '허리' 가 끊긴 교포불자 층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대 새싹불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글교육' 이 시급한 이유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스님은 '한글학교' 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한글경전' 도 널리 보급하고, 피아노에 편중된 찬불가 악보도 관현악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한국불교계의 성원도 중요합니다. '해외포교에 고군분투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격려의 글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교포포교' 에서 벗어나 '현지포교' 로 포교의 방향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 주류사회 속으로 한국불교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사 어린이 법회의 의미는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묵 김광호 합장

뉴욕 플러싱에 한국 전통사찰 선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108평 규모 대웅전 착공

뉴욕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플러싱(Flushing)에 대규모 한국 전통사찰이 세워진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주지 원공)은 현재 사용 중인 플러싱 사찰 뒤편에 건평 108평 규모의 대웅전 건립을 위한 기초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최근 끝내고, 본격적인 목조공사에 들어갔다. 4천여㎡ 대지에 들어서는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목조건물로, 35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붕 처마의 무게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는 단아하고 웅장한 멋을 낼 수 있도록 다포식으로 조성되며, 내부는 17m 천장까지 공포를 다 드러내놓아 품위 있는 한국건축의 미를 살리도록 했다.

뉴욕지원은 이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신응수씨를 도편수로 선정하고, 건축 자재 대부분도 한국에서 수송해오는 등 한국 전통사찰의 건축미를 최대한 보여줄 계획이다.

오는 2008년 완공예정인 대웅전의 지하에는 전시관, 다실, 도서관, 콘서트홀 등 300평 규모의 문화공간이 들어서며 한인사회의 각종 행사와 공연 장소로 개방될 생각이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이 플러싱에 조성중인 대웅전 조감도.

한마음선원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자비원' 도 이곳으로 옮겨 활발한 대사회봉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달라이 라마 방문과 몽골불교의 고민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를 조직해 여러 해 동안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려 노력했지만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이제까지 그분의 방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웬만큼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비자 발급 거부의 배경에 중국 정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는 몽골에는 여러 차례 방문하여 법회를 열었고 최근에도 방문이 이루어져 몽골 불교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몽골은 서기 17세기 이래 티베트의 '금강승(金剛乘 Vajrayana) 불교' 를 '준(準) 국교' 로 삼아 왔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공산 혁명이 성공하고, 1937년 혁명의 미명 아래 10,000명이 넘는 스님들을 사형시키고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간단사(Gandantegcheling) 하나만을 남겨놓고 전국 사찰을 모두 폐쇄시키는 법난(法難)을 일으켰던 슬픈 과거사가 있다.

법회 나온 불자 대부분 노년층
세계서 몰려온 기독교 선교사들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교세 확장

1990년대, 소련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동구 위성국가들과 함께 몽골도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고 난 뒤, 이른바 '과거사 청산 및 진상 규명' 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과거의 모든 잘못을 불교와 스님(라마승)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1937년 법난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제 몽골 전역에서 옛 사원과 승단을 복원하고 있다. 몽골인들에게도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여러 차례 초청해 법회를 열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 불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불교 국가인 몽골에서 불교의 미래가 그리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선교의 열정을 품고 세계 각국에서 이곳으로 몰려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넘쳐난다. 심지어 지난 해 5월 25일 AP 통신의 엘리자벳 알지엘(Elizabeth Alziel)기자는 <몽골, 한국과 같은 길을 가나?>라는 기사에서 '몽골의 기독교 선교 열풍' 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8월 27일 AP 통신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여 중진급 스님들에게 직접 법문을 하고 계를 설하는 기간에 겹쳐 카나다 출신의 선교사 피터 용렌(Peter Yongren)이 대규모 부흥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이 부흥회장에서 "할레루야!"를 연발하고 "예수님이 오늘 밤 그대에게 강림할 것입니다"며 외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철도 노선을 차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도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던 몽골 불교계는 실망스럽겠지만 법문이 열리는 곳에는 주로 노년층만 참석하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기사에서는 무엇보다도 '결혼한 승려의 존재 등 근본 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과 '티베트어로 된 경전이 몽골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몽골인들의 기본 심성에 미친 불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극성스런 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260만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아직 10,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경도되어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은 것 또한 확실하다. 달라이 라마를 모셔서 법회를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하는 몽골 불교계의 절박한 상황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시아로의 진출과 대외 무역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지난 2002년 방문 때 중국에서 철도 연결을 끊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입장에서 중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달라이 라마에게 비자를 발급한 몽골 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몽골 대통령이 '만해대상 포교대상' 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유기고가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꽉 찬 느낌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597-9119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02)325-9080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66-1226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042)242-5240~1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2)286-1548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033)764-7001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821-9117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41)577-1226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813-3953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5)237-9397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76-2600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61)279-1226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47-3273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594 호

부처님처럼 가르친다면…

부산발 교육혁명의 주역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불교에 귀의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에 늘 감사하는 설동근 교육감은 어렵던 시절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아프리카 산양의 일종인 스프링북. 앞쪽의 풀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다 그 달리는 속력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무리가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야 행렬이 끝이 난다는 산양이다.

8월 26일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에서 만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58 · 법명 혜송)은 자신의 삶도 한때는 스프링북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을 꺼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2, 13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며 '부산발 교육혁명'을 일으켜온 장본인. 설 교육감은 교육감이 된 이후 BBS(Busan Book Start)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릴레이식 수업공개 등 교실 수업의 혁신으로 2005년 특별시, 광역시 교육청 평가 전 부문 1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전 영역 1위라는 교육 성과를 이뤄냈다. 이쯤 되자 전국 시도에서 부산 교육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으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부산으로부터'라는 공감대를 이뤄냈다.

설 교육감이 이룬 성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13대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4명이 출마한 가운데 78.6%라는 선거사상 깨어지지 힘든 득표율로 재선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며 부산 교육 현장과 전국 교육 정책 수립 사이를 오가는 강행군으로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6년 4개월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이 교육현장 경험 전부인 설 교육감이 이같은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한 근원은 스프링북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설교육감을 멈춰 세운 부처님 법이다.

불심의 씨앗을 심어준 이는 어머니. 6남매를 뒷바라지하는 생활고 속에서도 범어사 청련암에서 기도 정진을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그렇게 심어진 불심의 씨앗이 17년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사무실을 법회 장소로 제공한 인연으로 이어졌고 그때 만난 불법이 설교육감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다. 매월 두 차례 도림 스님의 법문이 있는 날이면 사무실에 남아 맨 뒷 자리에서 법문을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회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연스럽게 도림스님의 유발 상좌가 됐고 법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 법사로 진행까지 맡게 됐다.

한자 한자 삼배를 드리며 지극하게 법화경 사경을 마쳤을 때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왔던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덕분에'라는 긍정적 사고로 전환되는 경험도 했다.

인생관과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자 말과 행동은 저절로 달라졌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질주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경계에 빠지지 않고, 정견(正見)을 지니고 경계를 지켜보는 힘이 생겼고 그 힘이 지금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스님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부산시 교육감과 교육혁신위원장이라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육감은 "신심이 떨어지면 나를 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이 이뤄낸 모든 성과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는다.

처음엔 교육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교육청의 수위, 청소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설교육감의 하심(下心)과 조직원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기 위한 인사시스템 확립이 교육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졌다.

"인사권을 시스템에 넘겼죠. 인사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조직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생각에서 밀어붙인 결과 든든한 참모를 얻게 됐죠. 지금은 부산의 교육공동체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내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줍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좀 더 잘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6남매의 장남으로 생활고 때문에 교직을 접고 통신장이 되어야 했던 설교육감. 교육자가 어떻게 뱃놈이 되려고 하느냐고 걱정을 들으면서 교육 현장을 떠나야 했던 아픔도 겪었다. 그러나 설교육감은 "몸은 비록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한번도 교육을 떠나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부인 덕분에 살아오면서 언제나 교육이 대화의 주제였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설동근교육감은 현재 부산 선암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부처님께 받은 가피를 회향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공인이 특정사찰의 신도회장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우려를 뒤로 하고 수락한 일이다. "다음 생에는 동진출가 해서 45대 조부이신 원효 스님처럼 걸림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설교육감의 발원에서 불제자로서의 지극함이 엿보인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삼배로 하루를 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삼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설교육감은 "부처님 지혜를 성취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존경받고 이 나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이 되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교육자로서의 발원도 잊지 않고 있다.

"교육은 생물"이라는 교육철학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설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교사의 사랑과 열정이 만나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물만생의 불성을 믿어주고 일깨워주셨던 부처님처럼 교육에 임한다면 교육이 분명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등 수업 혁신, 대통령 교육자문 위원장직도 겸해
앞만 보고 달리던 삶, 부처님 법 만나 정견 지니고 경계 지켜보는 힘 생겨
"다음 생에는 출가해 45대 조부인 원효 스님과 같은 걸림없는 삶 살고파"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7> 무진거사 장상영 드디어 깨치다

간화선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선사의 〈서장〉은 62편의 편지글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주인공은 승려 2인(성천 각 화상, 고산 체 장로)과 여성 1인(진국태부인)을 제외하곤 모두가 재가거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간화선은 승속에 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수행법이기도 하다. 간화선의 저변화, 대중화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진(無盡)거사 장상영(張商英 1043~1121)의 깨침의 기연은 비교적 기록이 충실하다. 특히 선가에서 가장 어렵다는 공안으로 알려진 '덕산탁발(德山托鉢)'을 통해 인가를 받고 정법안장을 갖추게 된다.

'덕산탁발'에 대하여 잠깐 사족을 붙인다면 그 전말은 이러하다.

덕산선감(782~865) 선사가 어느 날 밥이 늦으니 손수 발우를 들고서 큰방으로 올라갔는데, 이를 보고



서 설봉의존이 말하기를 "저 노장이 종도 치지 않았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 덕산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되돌아갔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무진거사의 화두공부는 후일 강서의 조운사(遭運使)가 되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인근의 법석을 두루 참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운사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공물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은 책임자를 말한다. 동림상총 선사에게 법을 받은 이후에도 그의 행각은 끝이 없었다.

도솔종열(1044~1091) 선사와의 인연도 재미있다. 무진거사가 오기 전에 종열선사의 꿈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해를 움켜잡는 꿈을 꾸었는데 이 이야기를 수좌에게 했다.

"태양이란 움직이며 돈다는 것이다. 무진거사 소임이 조운사이니 이 역시 늘 움직이며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다. 그가 머지않아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니 내가 그를 만나 큰 송곳으로 찔러줄 것이다. 그가 만약 수긍하여 고개를 끄덕인다면 우리 불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무진거사와 도솔종열 선사가 밤늦게 자리를 마주앉았다.

"조운사를 동림선사께서 인가하셨다는데 무엇이 그리 의심나는 곳입니까?"

"예! 천칠백 공안 중에 오직 '덕산탁발' 화두에만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도 알음알이로 따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어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겠습니까?"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였다. 새벽녘에 자기도 모르게 요강을 걷어차 엎어버렸는데 그 순간 크게 느낀 바 있었다. 몹시 기뻐서 바로 종열선사 방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도적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

도솔 선사와의 선문답서 무참히 깨지고 잠 못이루다 요강 엎어버리고 크게 깨쳐

물은 어디에 있느냐?"

무진이 어물어물하며 말을 못하자 선사가 말했다.

"돌아가시오. 해 뜨거든 아침에 다시 봅시다."

그리하여 그는 게송을 지었다.

북도 종도 치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오니(鼓寂鐘沈托鉢回)
암두의 한마디 꾸중은 벽력과 같네(巖頭一拶語如雷)
과연 삼년 밖에 못살았으니(果然只得三年活)
이는 그에게서 수기 받은 것 아니겠는가(莫是遭他受記來)

이튿날 아침 무진거사가 가지고 온 이 게송을 보고 선사는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뒷날 도솔종열 선사는 그의 깨침을 인가하였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교관 확립 안 되면 육체운동 불과

조계종 최초 '절 수행 입문' 출간… 바르게 절하기는?



"요즘 승속(僧俗)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들어 보면 비록 몸으로는 따라 예배하나 마음은 바깥 경계를 쫓아 헤맨다. …(중략)…또 어떤 승속은 예배할 때 몸은 절을 따라 하지 않고 마음은 공경스러움을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방아가 오르내리는 것 같아 한갓 수고로움만 더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절 수행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중국 당대의 불서 〈법원주림〉은 당시 불자들의 절 수행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요즘도 절하는 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법에 의해 절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

조계종이 8월 28일 내놓은 〈절 수행 입문〉은 절 수행의 바른 지침을 조계종 차원에서 제시한 책으로, 이 지침은 현재 조계종 승가교육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절 수행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간화선 입문〉에 이은 조계종의 '불교수행입문' 시리즈 두 번째. 〈절 수행 입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횟수에 집착 말고 방법~목적 지도 받아야 참회·염불·화두 참구 병행하면 효과 높아 호흡 불규칙하면 피로하고 관절에 무리

▶ 절 수행의 필수요건

절이 바른 불교 수행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교의 중도연기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절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육체적인 운동으로 전락될 수 있다.

모든 수행에는 의식과 절차가 있다. 하지만 절 수행 의식과 절차에 대한 원칙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절을 한 횟수를 절 수행의 척도로 여긴다. 그러나 그저 절만 많이 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05년에 조계종 교육원이 발간한 〈수행법 연구〉에서 절과 관련한 내용을 집필했던 심준보 법사(백화도량)는 "절 수행의 대표적인 사찰 10여 곳을 조사해 본 결과 절 수행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에 맞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막연히 절만 하면서 절한 횟수만 따지고, 그것을 절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풍토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절 수행 역시 간화선이나 다른 수행과 마찬가지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절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절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절하는 방법부터 목적까지 명확하게 지도를 받고 행해야 한다.

▶ 간화선 수행과의 관계

간화선 수행과 절 수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절 수행 자체를 독립된 수행법으로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절을 간화선 수행의 보조방편으로 보는 입장이다.

간화선 보조방편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절 수행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인욕력과 삼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절 수행 자체만으로는 불성을 깨닫고 반야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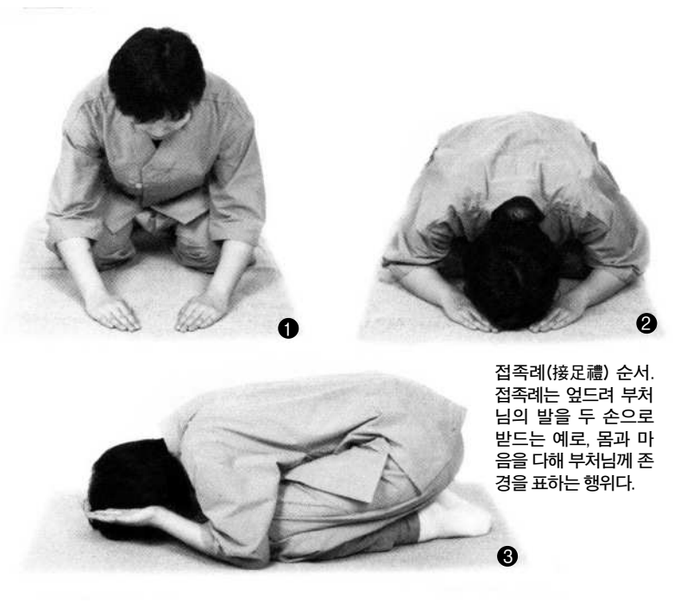
따라서 처음에는 절 수행을 하되, 어느 정도 절 수행이 익어지면 간화선과 병행해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 절 수행 절차

절 수행도 다른 수행과 마찬가지로 의식과 절차를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절을 한 후에 15분 이상 좌선에 들어 호흡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법당에서 대중들과 함께 할 때는 삼귀의례→경전봉독→참회발원→절 수행→좌선→회향 발원→사홍서원 순서로, 집에서 절하는 경우는 주변 정돈→향 피우고 마음 다지기→삼귀의례→참회 발원→절 수행→좌선→회향발원→사홍서원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절 수행 절차에서 좌선이 포함된 것은 절 수행 시 좌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종단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접족례(接足禮) 순서. 접족례는 엎드려 부처님의 발을 두 손으로 받드는 예로,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는 행위다.

▶ 절하는 법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접족례의 경우 두 팔의 팔꿈치를 양 무릎 앞쪽에 놓고 두 손바닥을 동시에 바닥에 대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다. 이 때 동시에 왼발 엄지발가락을 오른발 엄지발가락 위에 포갠다.

손과 손 사이는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손끝을 약간 모아 짚고 이 때 손가락은 벌리지 않도록 한다.

호흡도 중요한데,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피로가 오고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절을 할 때 숫자와 시간에 얽매여 헐떡거리며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가지 절 수행법

절 수행은 화두를 참구하면서도 할 수 있으며, 염불 주력 사경 위빠사나 등과 병행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절 수행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수행법과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높다.

대표적인 방법은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 죄업을 참회하거나 △절을 하면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하면서 사경을 하거나 △108배나 300배 1080배나 3000배 등의 절을 하면서 수를 헤아리는 방법 △절을 하면서 화두를 참구하거나 △절을 하면서 심신을 관하는 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절을 하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의 경우는 반드시 선지식에게 화두 간택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초심자에게는 쉽지 않은 수행법이다.

절하면서 심신을 관하는 법은 합장하면서 '합장' '합장' 하며 합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관하고, 꿇어앉으면서 '앉는다' '앉는다' 하면서 그 모습을 관하는 방식으로, 절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해 나간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9. 6 (수·목요일 주간반)
토·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대학생 불교동아리 내년 신입생 모집

“지금 준비해요”



지난 3월 ‘06학번 새내기 모집’ 대자보를 들고 학내 게시판 앞에 섰던 서울 세종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참담한 기분을 맛봤다. 벌써 기독교 동아리들이 포스터와 다양한 홍보거리들로 게시판 전체를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겨우 대자보 한 장을 붙일 수 있었던 회원들은 “아뿔싸. 이번에도 늦었구나!”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도 새 회원이 적게 들어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주고받았다. 뒤돌아서면서 문득 드는 의문 하나. “그런데, 타종교 학생회는 대체 언제 저런 준비를 다 했지? 우리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꽤 빨리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틈 날 때마다 싸이월드에 접속하는 일명 ‘싸이홀릭’ 박은혜(20)양은 지난해 겨울, 인천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한가롭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문득 ‘인천대06학번 모여라!’라는 이름의 싸이카페를 발견했다. 카페에 가입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니홈피 방명록과 카페를 넘나들며 회원들과 친해진 은혜양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불교학생회에 호감을 갖게 됐고, 올해 개강하자마자 불교학생회에 등록했다. 이 카페를 개설한 인천대 박성익 불교학생회장은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을 포교와 접목, 발 빠르게 새내기 포교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약 400여명의 새내기를 카페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새학기 시작되면 ‘포교전쟁’…전략 미리짜야

수시모집 증가로 새내기 포교도 ‘수시체제’

내년도 대학교 새내기를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교전략은 언제부터 수립해야 할까? 정답은 ‘지금부터’다.

대학생 불자포교 전략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당해 3월 개강과 함께 대학생불자들도 ‘새내기 포교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포교 전략도 학내에 홍보 대자보 및 플래카드 부착하기 등의 단선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2학기 개강과 함께 다음해 새내기 포교전략을 짜는 것이 ‘대세’다. 수시모집으로 9~12월 등 하반기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전체 대학모집정원의 44.4%(2007년 대입전형 기준)에 이르는 등 입시제도가 변화하면서 생긴 새 풍속도다. 이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준비해 3월에 신입생 홍보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며 “새내기 불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포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내기포교기획팀’ 가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 · 이하 대불련)는 9월부터 ‘새내기포교기획팀’을 새롭게 가동한다. 중앙 임원진과 각 대학 불교학생회 집행부 10~15명으로 팀을 꾸려 2주에 한 번씩 ‘07학년도 새내기 모집 방안’을 주제로 기획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동안 수시합격자 대상으로 대불련 홍보에 나서며, 전국의 대학에 배포할 07학년도용 포스터와 리플렛을 미리 제작한다. 향후 △07학년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홍보전략 수립 △각 지회가 공유할 수 있는 성공담을 모은 ‘새내기 포교가이드’ 발간 △11월경 ‘새내기 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열 계획이다.

신보라 회장은 “올해 초 06학번 회원 모집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CCC)나 한국기독학생회(IVF), 국제대학선교협의회(CMI) 등에 비해 대응이 늦은 바람에 회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하반기에 새내기포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매년 대입 신입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행하는 등 정확한 포교방안을 수립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성신여대 불교학생회(회장 박설아)는 2학기 수시원서를 접수하러 오는 지원자들에게 홍보를 겸한 차보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과 전화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 하반기 동안 ‘0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홍보 전략을 수립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교학생회를 알릴 계획이다.

◇내년엔 개강 전에 승부 끝낸다

충남대 불교학생회(회장 김경택)는 대전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불자 청소년들을 대학 불교학생회로 자연스럽게 흡수, 안정적인 불자를 키워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부터 파라미타 대전지부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택 회장은 “비불자를 대상으로 캠퍼스 가두모집을 펼치는 것보다, 학창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던 불자 청소년들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일이 더 포교효과도 크고 시급히 해야할 문제”라며 “충청도 지역 종립고교와 파라미타 대전지부를 통해 청소년불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밀착해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불교학생회(회장 김보라)는 학생회관과 캠퍼스 곳곳에 (사)풍경소리에서 만든 좋은 경구를 소개하는 게시판을 부착하고 불교를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내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법회’를 준비 중이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예전 대학생들은 운동권, 동아리 모임 등 ‘우리’와 ‘단체’가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특징”이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에게 ‘1:1관계’를 강조한 ‘맞춤형 포교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제1기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학장 송묵)가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서울캠퍼스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지정한 ‘제1호 특수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포교사, 일반 불자 등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9월 13일~2007년 2월 28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9시 교육이 진행된다.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burec.org)로 접수하거나 전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수강료는 35만원.(02)738-7863 이은비 기자

탐방

정혜선원 어린이법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470여개의 교회가 골목골목 들어서 있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법회를 여는 사찰이 있다.

지난 1999년 개원한 뒤 2002년부터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정혜선원(주지 호연)이 그곳이다. 지리적 · 환경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30여명의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한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수영 스님은 법회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을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 · 학부모들의 지원, 법사스님과 지도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고 꼽았다.

정혜선원은 아파트 촌 한가운데 위치한 상가 건물 8층에 들어서있다. 50여평의 법당 외에는 법회를 볼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일요일에는 신도들을 위한 법회를 열기도 빠듯하다.

그러나 공간이 없어도 어린이포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주지 호연 스님은 어린이법회 시간을 일반법회가 없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했다.

주지스님의 원력을 뒷받침 해주는 ‘신도회’와 ‘자모회’의 든든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법회가 열리는 토요일 오후에는 법당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아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기도하러 오는 불자들도 이 때 만큼은 법당에서 자리를 피해 법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법회 2부 수업인 특활시간에는 신도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가진 신도가 한 달에 한 번 종이접기 교실을 진행하고, 화교출신 신도는 매주 ‘한 마디 배워보아요’ 중국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도들 중에서 지원자를 뽑아 외국어 교육, 스포츠댄스, 선무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모회’는 어린이법회에 참석자 학부모 중심으로 결성된 자원봉사모임이다. 매주 10여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차에 태워 사찰로 데려오고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간식봉사 등을 펼치며 법회를 지원한다.



서울 정혜선원은 어린이법회를 열 공간이 따로 없지만, 대신 토요일 오후만큼은 사찰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도심에서 어린이법회를 열기 위한 포교전략이다.

‘교회 숲’서 연꽃 키우기 신바람

종이접기, 중국어교실, 선무도 등 ‘특활’ 진행

무엇보다도 정혜선원은 법회 프로그램 운영방향은 물론 어린이법회에 관련된 인사문제까지 법사스님에게 일임해 최대한 자유롭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힘을 얻은 수영 스님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임 선아회(善兒會)를 이끌며 정혜선원 어린이법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수영 스님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법회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30분 단위로 편성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4개월 단위로 계획을 짜 매번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들의 원력과 불자들의 호응으로 ‘무장’한 정혜선원은 연꽃처럼 환한 어린이들의 ‘천진미소’로 장엄된 도량이다. (02)971-4426

이은비 기자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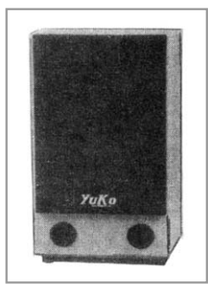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7> 이치로는 단숨에 깨닫지만

신해수증(信解修證)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먼저 신(信)은 부처님의 법을 즐거이 믿는 것이고, 해(解)는 부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수(修)는 그 법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 수행하는 것이고, 증(證)은 이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선가귀감> 36장에서 "24장부터 이 장까지는 신해(信解)를 말했다"고 하였다. 신해수증(信解修證)에서 신해(信解) 부분을 말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모든 것을 깨우쳤다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신해 그 자리에서 모든 수행이 끝나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박에 듣고 깨우치는 것을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한다.

그러나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깨쳐나가야만 한다. 이를 부처님의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점차 닦아간다고 하여 돈오점수(頓悟漸修)라고 한다.

같은 돈오이지만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말하는 돈오는 그 뜻이 확연히 다르다. 돈오돈수에서 돈오는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아(信解-頓悟)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修證-頓修) 더 이상 공부해야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돈오점수라 할 때의 돈오는 선지식 도움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안 듯하지만(信解-解悟) 확실한 자기 체험이 없기에 수행을 통해 깨쳐나가는 과정이(修證-漸修) 필요하다. 이를 돈오돈수의 돈오와 구분해 해오(解悟)라 부르기도 한다. <선가귀감> 37장부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하여 깨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수증(修證)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理雖頓悟 事非頓除
이치로는 단숨에 깨달을지라도
현상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치는 근본도리로서 천진한 부처님의 세상이요 현상은 연기법으로서 중생계의 모습이다. 서산 스님은 <원각경>에 나오는 문수보살과(신해) 보현보살에(수증) 비유하여 이 단락을 설명한다.

부처님 법 공부에 있어 믿고 이해하고 그 법을 수행을 통해 깨달아야

文殊達天眞 普賢明緣起 解似電光 行同窮子 此下論修證.

문수보살은 본디 모습이었던 천진한 부처님 세상을 지혜로써 통달했고 보현보살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연기법을 보살행으로써 밝혔다. 중하근기 중생들이 부처님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번갯불 같아 보여도, 그 살아가는 모습은 가난한 집 아들과 같으므로 부처님 아들이 되게 하고자 여기서부터 수증(修證)을 말한다.

문수를 뜻으로 풀이하면 '묘수(妙首)'라고 한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므로 묘(妙)라 하고, 그 지혜는 모든 지혜 가운데 으뜸이기에 수(首)라고 한 것이다. 이는 문수보살의 지혜가 온갖 행을 만들어나가는 바탕으로서 오묘한 작용을 해내기 때문이다. 만일 보살행에 지혜가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삿된 법이 되고 필경에 마구니의 종자가 된다. 그러므로 보살행 가운데에는 지혜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수행을 일으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보현보살'이다. 널리 베푸는 것을 '보(普)'라 하고 큰 덕을 '현(賢)'이라고 하니, 보현보살은 큰 자비로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이익을 주며 온갖 보살행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해 가는 보살이다. <원각경> 문수보살장에서는 모든 중생이 청정한 원각(圓覺)을 깨닫도록 '신해(信解)'를 드러내었고, 보현보살장에서 이 신해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수증(修證)'을 드러낸 것이다.

함허득통 스님은 보현보살장을 해설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름과 불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발은 서로 돕는다.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밝은 불빛이 타오를 수 없고, 발이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몇 발자국밖에 걸을 수가 없다. 불은 기름을 얻어야 더욱 밝아져서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발은 눈이 있음으로써 더 먼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기름의 역할과 같고, 수행을 하는 데 깨달음에 대한 신해(信解)는 먼 길을 가는 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눈의 역할과도 같다.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면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해는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세상을 신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증(修證)은 반드시 몇 걸음밖에 나아가지를 못한다. 이 때문에 수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아야 할 것이요, 이미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알았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 이 자리를 깨쳐나가야 할 것이다."

함허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正解已成須起行 普賢所以問其方
離幻拂到無所離 不可離者是眞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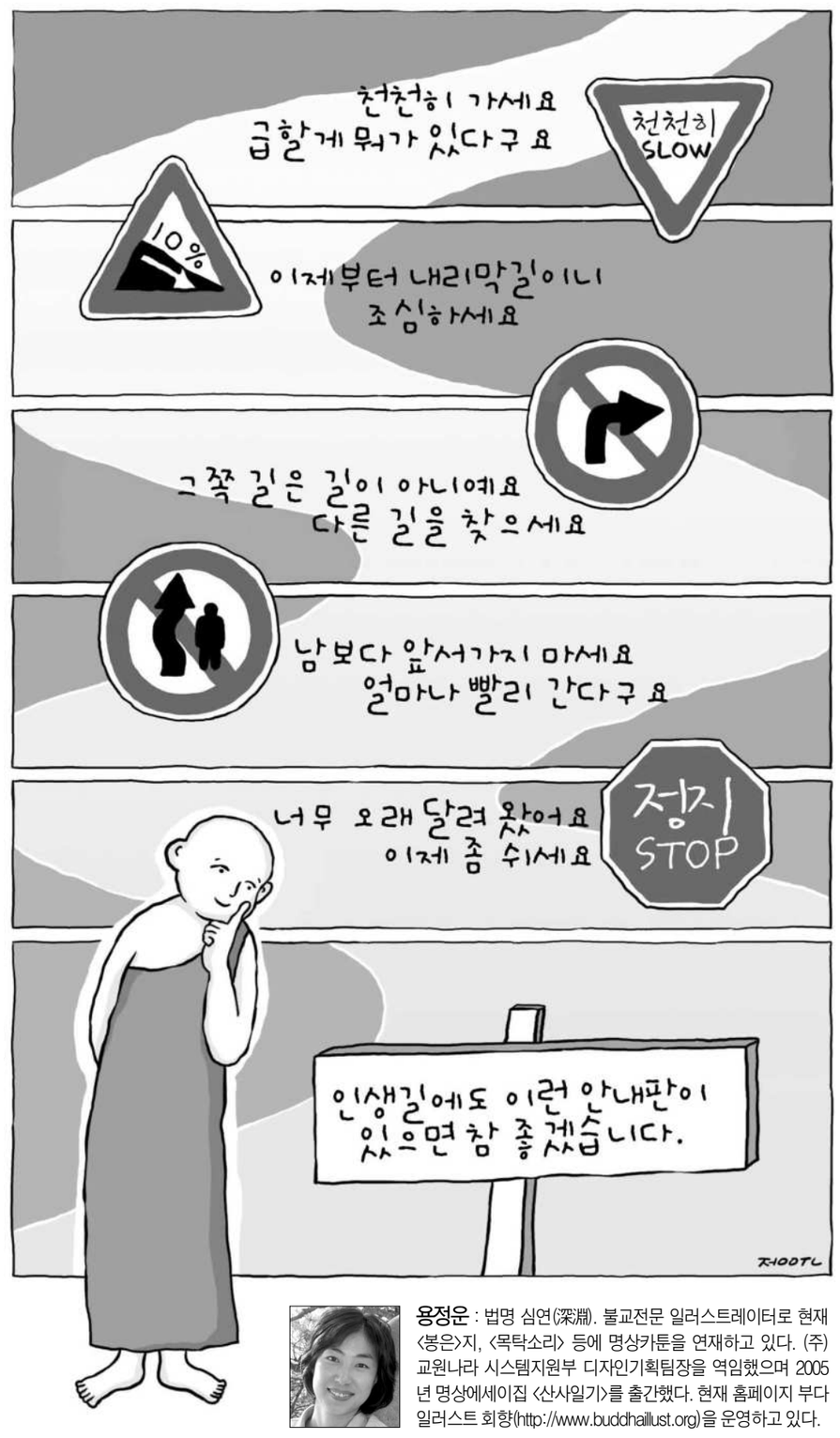
바른 信解 알고 난 뒤 修證 실천해야 하니
보현보살 묻는 이유 그 방편이 알고 싶네.
幻을 떨쳐 떨칠 幻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幻 사라진 이 자리가 부처님의 극락세계.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이정표

용정운(simyon@buddhaillust.org)



용정운 : 법명 심연(深淵). 불교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현재 <봉은>지, <목탁소리> 등에 명상카툰을 연재하고 있다. (주)교원나라 시스템지원부 디자인기획팀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명상에세이집 <산사일기>를 출간했다. 현재 홈페이지 부다일러스트 회향(http://www.buddhaillust.org)을 운영하고 있다.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유명무실(有名無實)

한시라도 못 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만드는 담배. 하지만 단 번에 끊고 나니, 담배 없이 살아도 살아지더군요. 자기 전, 담배 한 대의 유혹도 자고 나니 연기처럼 사라지더군요. 금연에 성공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금연! 별 거 아니더군. 흡연욕은 있되, 그 실체는 없더군. 피고 싶다는 마음이 본래부터 없더라고. 진작에 유명무실(有名無實)의 이치를 깨쳤어야 했는데…."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모든 물체는, 그 이름은 있되 인연이 다 되면 그 이름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수레가 있다고 합시다. 이 수레는 지금 만들어놓고 이름하여 수레라 하지만, 이것이 어느 때건 부서지고 망가지면 수레라는 이름조차 없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연가화합(因緣假和合)'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름은 있되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허상으로 나타난 이름과 현상에만 집착해 그 본질을 못 보니 말입니다. 유명무실의 이치가 담긴 금연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담배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8강 그 동안의 <금강경> 내용 정리

여래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

잠깐 숨을 돌리고 그동안의 <금강경>을 다시 정리해 보자. 1장은 법석(法席)을 폈다. 붓다의 탁발과 공양으로 법의 얼굴이 다 드러났다. 그런데 그 소식을 코앞에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5장까지의 부연설명이 이어졌다. (제 2-43강)

설법은 충격적이다. 불교에 일구월심 의지해온 사람들에게 <금강경>은 "여래는 없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없을 리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할 뿐이다." 실제 <금강경>은 "여래가 여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뿐, 존재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여래는 있다. 다만 그는 이런 저런 '몸'으로 오지 않을 뿐이다(不可以身相得見如來). 원효가 관음을 친견치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낙산사로 길을 떠난 것도 어린 마음인데, 그는 길에서 만난 여인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생리대를 뺀 더러운 성수(聖水)를 버리고 '깨끗해 보이는 새 물'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했다.

여래는 어디 있는가

그럼, 진정 여래는 어디 있는가. 육안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눈에 비치는 사물은 우리 욕망의 투영이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무학대사의 만고 법문처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여래가 되어야 한다는 청천벽력이 요구된다. 그때 보이는 여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야부는 이렇게 귀띔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그런데 부처는 어디 있는가. 이미지(相)에 붙들려 있거나, '지금 여기' 너머를 추구(求)하는 것은 허망한 시도라네. 그렇다고 여래는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 보라, 저기 뚜렷하고, 촘촘해서 한 치 틈도 없는 것을…. 차가운 빛 하나가 태허(太虛)를 싸그리 태워버렸네." 山是山, 水是水, 佛在甚麼處. 有相有求俱是妄, 無形無見墮偏枯. 堂堂密密何曾間, 一道寒光爍太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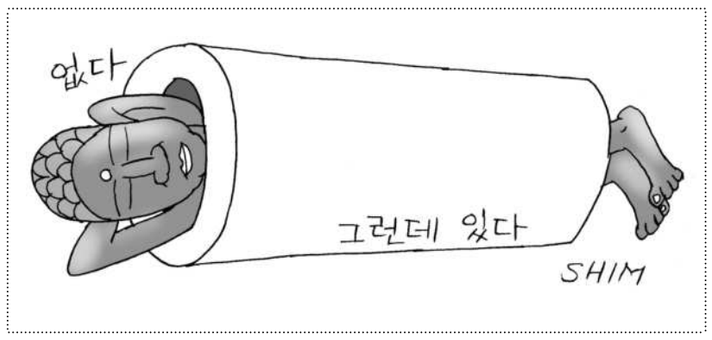
중생의 눈을 한 채로 여래를 보겠다고 발돋움 하지 말라. 그 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필칭 여래에게 32상 80종호가 있다 하나, 그 표징들은 중생들의 눈에 다만 그릇된 인상을 줄 뿐이다. 32상 80종호는 여래의 표징이 아니라 마군이의 표징이다. 우리가 여래의 '이미지(相)'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다. 여래는 바로 그 이미지와 기대를 벗어날 때, 어느새 우리 앞에 와 있다. "여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너는 여래와 대면할 것이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그럼 대체 여래는 어디 있는가. 그는 우리가 상상도 않던 곳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 있다. 하찮은 들풀, 내가 내다 버린 쓰레기, 그 속에 여래가 있다. 어느 선승은 이를 "풍류가 아닌 곳에 풍류가 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본격 전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 경전의 본래 이름이 <잡화경(雜花經)>, 즉 허접한 꽃들의 축제였다고 말해준 바 있다. 선재동자는 세상이 하찮다고 생각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난다. 그 선지식 안에 창녀와 승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길을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손가락 튕기듯 법을 깨닫는다. 이 모든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여래의 이미지, 그 함정

여래의 '이미지'는 여러 폐단을 낳았다. 그것은 우리의 누추한 삶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의 고통과 불완전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자신을 하찮은 범부로 낙인찍고, 이웃을 한심한 중생으로 생각하며, 내게 단 하나 주어진 삶에 합당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치 못하게 했다. 그렇지 않은가.

혜능의 돈교(頓敎)는 그 오랜 비관의식, 자기비하의 감옥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네가 바로 여래이다(心卽是佛)!" <육조단경>은 이 한 마디를 하고싶어 지어졌다. <금강경> 5장 구결에서도 그는 신신히 당부한다. "일체 중생이 같은 진성(眞性)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다들 때 하나 묻지 않은 본래 청정(淸淨)이라는 것 그것을 믿어라." 그 믿음은 우리가 여래와 범부, 너와 나의 구분(分別)로 생긴 이미지들에 결박되지 않을 때 얻어질 것이다. 혜능의 당부가 이어진다. "이미지에 붙잡히지 말고(不住相), 일체처(一切處)에 평등행(平等行)을 행하라!" 그 실천과 더불어 "여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는 실상(實相)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5장으로 하여 설법이 끝났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한다. 그래서 설명이 더 붙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첫 마디를 못 알아들으면 다음 말도 못 알아듣기 십상이다.

축복 아닌 축복이여

6장은 이 돈교의 설법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체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깨달음이 떠나고, 실천이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마침내 외형과 암송만 남은 이 궁핍한 시대에… <금강경>은 그런 시대에도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선언에 담긴 불법의 최상승을 이해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 사람은 무한한 축복을 얻는다. 그 축복은 자기 안의 불성과 자기밖의 우주가 일여(一如)로 합주하는 우주적 찬가에 비길 수 있다. 여기 여래들이 관객처럼 둘러써서 쥐어줄 수도 없는(不可說) 물건이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

8장은 이 역설의 소식을 품고 실천하는 것이, 또 남에게 들려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다이아몬드를 수레째 쏟아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시라고 했다. 왜냐. 모든 부처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깨달음은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9장은 "얻되 얻음이 없고, 들어서되 들어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주로 보여준다. 곡명은 소승사과(小乘四果), 즉 "깨달음에 이르는 네 단계"이다. 수다원은 삶의 물길을 거슬러 성스런 흐름에 들어선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 수다원은 자신이 성자의 트랙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식하거나 자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수다원일 수 없다. 사다함에서 아나함,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으로 열반의 계단을 오르더라도, 그는 어떤 형태의 아상(我相)도 짓지 않는다.

아라한은 마침내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불건전한 정념과 업을 다 털고 마침내 무욕(無欲)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그는 세상과도 다투지 않고, 자신과도 갈등하지 않는 아란나행의 성자가 되었다. 그 역시 자신의 성취를 의식하지 않는다. 만일, 의식한다면, 그의 의식은 '얻음'과 '얻지 않음' 사이에서 자기갈등을 만들어낸다. 미세한 것이라도 갈등이 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라한, 혹은 '다투지 않는 자'라고 불릴 수 없게 된다.

<금강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래법(如來法)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남긴 것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삶을 사는데 착수(着手)하는 일이다. 혜능이 구절 구절 당부한다. "입으로만 외지 말고, 그 '얻음 없다'는 법을 행동으로 완성하자(口誦心行了無所得)!"

■한국학중앙연구원

동강이 아름다운 건 만 생명 품고 있기 때문이지



풍선껌 타고 동강을 동동동
윤제학 지음 | 문원 | 9000원

어느 별 맑은 밤, 아기 별 하나가 동강으로 떨어집니다. 아기 별이 동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을 빼고 구경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동강에 온 아기 별은 아기 수달을 만나 금세 친구가 됩니다. 둘은 동강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풍선껌을 줍게 되고, 그 풍선껌을 불어 동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황조롱이를 만나 풍선껌이 터지는 바람에 둘은 동굴 속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미유기를 만나 간신히 살아나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을에서 까치 할아버지의 사연도 알게 됩니다.

아기 수달과 아기 별이 풍선껌을 불어 동강 여행을 떠나는 얘기. 동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모험을 통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함을 알게 해준다.

또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데 보탬을 준다.

<풍선껌 타고 동강을 동동동>에서는 사람과 동물, 식물이 다르지 않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은 모두 동강에 기대고 사는 똑같은 생명체일 뿐이다.

저자인 동화작가 윤제학씨의 이런 생각은 동강을 사람들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하는 우리의 태도를 은연중에 꼬집는다. 개발이니 보존이니 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저자는 말한다. 동강이 아름다운 건 비경을 간직해서만이 아니라고.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동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 때문만이 아니다, 그곳에 기대고 사는 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쉽지만 유려한 문체로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있다.

동화 말미에 아기수달은 어느새 어른이 되고 아기별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동강에서 태어난 아기 비오리들은 동강이 안전하지 않다는 엄마의 충고를 듣고 떠날 채비를 한다. 과연 이들은 떠날 수 있을지….

이 동화는 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삶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잃어버린 '소' 찾아 떠난 소년



소 찾는 아이
이상희 지음 | 사계절 | 9800원

소의 눈을 닮은 소년이 있습니다. 둘은 얼마나 닮았든지 소년의 이름도, 소의 이름도 심우입니다. 심우는 소를 냇가 소나무에 매어놓고 아이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첨벙! 한 마리. 첨버덩!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심우는 물고기를 세다 말고 문득 소나무 쪽을 바라봅니다. "우리 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를 묶어 뒀던 소나무 밑자리가 휑합니다. 심우 마음도 휑하니 빈 듯 합니다.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과정에 빗대어 보여주는 그림 '십우도'. 욕심 때문에 잃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아 깨달음을 얻고, 그런 뒤에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준다.

이 그림책 <소를 찾는 아이>는 그림 '십우도'에서 소재를 빌려온 것이다.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속의 소를 떠올리게 한다. 소중한 것을 잃고 애달파 하다가, 그것을 찾은 뒤에는 곧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한다.

아이들의 그림동화이자 어른들이 읽어보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종민씨가 아크릴 판을 철필로 긁어 판화로 찍어낸, 가는 선이 모인 그림은 책의 내용만큼이나 담백하다.

저자인 이상희씨는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현재 시인, 그림책 글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도 원주에서 그림책 전문 어린이 도서관 '패랭이꽃 그림책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네티즌 강추

세계를 울린 피아니스트 이수미의 희망찾기



피아노로 세상을 울려라 고정욱 지음, 현문미디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미 양이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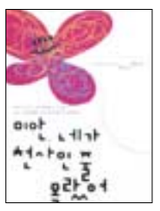
수미는 13세의 나이로 머나먼 이국 땅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수미의 부모는 사업에 실패해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에 살면서도 노점상과 파출부 일, 식당 배달일을 전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독일에서 실력을 쌓던 수미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일연방청소년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피아노 부문 1등상을 수상한다.'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엇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기뻤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이수미 양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꿈은 버리지 않는 한 이루어지나 봅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부모님이나 수미씨에게 박수를…

(싸이키, kyobobook.co.kr)

화내지 않는 선생님, 소리지르지 않는 엄마



미안, 네가 천사인 줄 몰랐어 최은숙 지음, 샨티

중학교에 근무중인 최은숙 선생님의 보석같은 글이다.

정말 좋은 선생이고픈 그녀가 조근조근 써내려간 교단 일기라고나 할까.

그녀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중학생 아들을 둔 나에게 우리아들이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을 가지게 하는...,

좋은 엄마이자 좋은 선생님인 그녀의 글을 읽어 가면서 참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절대로 소리지르거나 화내지 않기를 꼭 지키고 있다는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엄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

그래서 꼭 다짐했는데…. 나도 서두르라고 소리지르고 채근하지 않기로…. 하지만…. 하지만…. 난 그게 쉽지 않네.

(ibonita, lifelog.blog.naver.com/ibonita/r01_ibonita_2)

책속의 밑줄긋기



○…이제 아버지는 전정가위를 내게 물려주고 빈손만 남았다. 가위를 잡았던 손의 손금은 다 닳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다.

얼마 전 읍사무소에서 지장을 찍는데 지문이 안 나와서 몇 번을 다시 찍어 직원들에게 민망했다고 아버지는 수줍게 말씀하셨다.

지문은 뭉개졌어도 이제는 포도향이 짙게 배어 있을 아버지의 손.

나는 잠든 아버지에게 다가가 가만히 당신의 손을 쓸어본다.

'자기가 힘들게 싹 틔우고 키운 잎을 가을이 되어 땅에 내어줄 때 나무는 가장 행복하단다.'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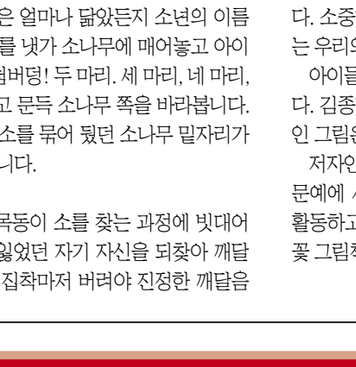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에게 새 전정가위를 하나 사드려야겠다. 새 가위를 들고 아버지가 31년간 사랑을 키운 포도나무가 열매맺기를 그만 둘때까지 가지치기를 하시도록….

–<포도밭 편지> 40쪽에서, 류기봉 지음, 예담출판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조기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천하에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바로보인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성철 스님 어릴적 '욕심' 많았네



성철 큰스님 1·2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서
원택 스님 엮음 | 이태수 그림
열린박물관 | 9800원

출생부터 열반까지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엮어
유별난 책사랑·출가 계기가 된 책 이야기 '눈길'

"어린이 여러분,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았던 성철 스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성철 스님의 생애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만화 성철 큰스님1·2>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성철 스님의 출생부터 열반까지의 이야기가 만화로 그려져 있다.

특히 만화에 나오는 성철 스님의 책 사랑은 유별나다.

스님은 어릴 적 책 살 돈이 없으면 대문 밖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대 어머니를 곤혹스럽게 했다. 스님은 유독 책에만 욕심을 부렸다.

스님이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풀고 수행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오도송'이라는 한 권의 불교 책 때문이었다. 스님은 이 책을 만난 경험을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그 감동을 전했다.

이후 출가한 스님은 파계사에서 수행할 당시, 8년 동안 누워 자지 않는 '장좌불와'를 하였다. 또한 한국 불교를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 방향을 세우고, 법도를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 '봉암사 결사'를 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스님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며 소식을 했고, 40년 동안 손수 꿰매고 덧댄 옷 두 벌로 살았을 정도로 청렴했다.

이 책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강한 스님의 집념, 끈기,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어린이들에게 깨닫게 해준다.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공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성철 스님의 생애를 정리한 연보, 굴곡 많은 시대적 배경과 성철 스님의 행보, 절친한 도반들의 일대기까지 알찬 내용들로 꽉 채웠다. 어린이들이 알지 못하는 불교 용어와, 어려운 말들은 즉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에 넣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람과 사람, 부조화와 상생



소설 관 1·2권
인드라의 그물
한치선 지음
연화 | 1만1000원

<소설 관: 인드라의 그물>은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사람과 사람간의 사랑과 증오, 원한과 해원, 부조화와 상생의 이야기들이 생과 생을 넘나들면서 진행된다.

스물 세 가지 이야기 속의 20여 명의 주인공들은 각기 나름대로 마음의 길을 찾아 헤매던 수행자들이며, 보이지 않는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존인물이며,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실감나게 읽혀질 것으로 보인다.

<소설 관>은 1권 '인드라의 그물'과 2권 '허공을 받치는 기둥이 되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 없는 수행의 미로 속에서 주인공들에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사연들이 눈물과 미소로 어우러져 있다. 또 슬픔과 찬탄으로 기기묘묘하게 버무려지는 삶의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 한치선은 소설가로 20여 년을 수행의 길을 걸어왔다.

새로나온 책



■ **고추잠자리**(불교신문사 엮음, 조계종출판사)=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 근심없는 미소는 부처님의 얼굴이요, 마음이다. 교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함께 나누는 생활, 노력하며 용서하는 법, 슬기로운 지혜를 들려주는 동화가 부처님의 경전이다. <고추잠자리>는 그동안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동화작가들의 주옥 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박한영의 '선재의 거짓말(1998년 가작)', 김정미의 '금두꺼비(2002년 당선작)', 배유안의 '고추잠자리(2006년 당선작)'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들어있다.



■ **인연 산책**(서문성 지음, 미래북)= 미리 정해진 업을 면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대로 앉아서 받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혹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인과이야기들이다. 지금 나의 마음가짐,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인이 되어 어떤 연을 만나게 되면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업(業)과 인연(因緣)을 주제로 불교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설화들을 선별하여 엮었다. 과거 고승들 이야기와 예화들을 들려주고 그로부터 업과 인연, 그리고 인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바다를 삼킨 물방울	불지사, 주훤법장, 9000원
· 시왕경	성문, 김두재, 1만원
· 산빛 물든 사람들	여시아문, 정과스님, 1만원
·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민족사, 김광식, 1만2000원
· 인연산책	미래북, 서문성,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아난존자 '일기' 속 부처님과 제자들



아난존자의일기 1·2권
원나시리 지음
범라스님 역
운주사 | 2만8000원

석가모니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하여 불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아난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며 속가 사촌동생이기도 했던 아난존자는 유독 연민과 자비심이 많아 인간적 체취가 물씬 풍기는 수행자였다.

이 책은 아난존자의 출가 전후의 수행 및 부처님 시봉생활, 그리고 경전 결집과 깨달음의 과정을 그렸다. 즉 아난존자가 열반에 들 때까지 일생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바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삶의 기록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의 수행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독특한 책이다. 이 책 읽으면 부처님 일생은 물론이요, 부처님 주변 인물들의 가슴 뭉클한 삶을 구석구석 여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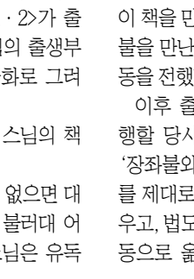
원래 2000년에 발간된 이 책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총 4권에서 2권으로 묶였다.

저자 원나시리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종교성 원로회의에서 한동안 활동하였으며, 여러 불교 잡지에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였다.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서유기'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





만화로 보는
진본서유기1~3권
오승은 지음 | 조태호 그림
맑은소리 | 9800원

"서유기를 세 번 이상 정독한 자가 아니라면 그와는 극기(克己)와 수기(修己)를 논하지 말라." 서유기를 만화로 그린 조태호씨의 말이다.

<서유기>는 오승은(1500~1582)의 작품으로 삼장법사라는 고승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대승경전을 가져오기 위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와 멀리 천축국을 찾아가는 모험이야기다. 삼장법사 일행은 여행 중에 수많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만, 용감하고 지혜롭게 차례차례 요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 줄거리이다.

<서유기>의 내용은 자신을 잃고 헤매기 쉬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현명함, 믿음, 의지, 용기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옛날부터 <삼국지>는 청소년기에 읽고, <서유기>는 장년에 읽는 책이라고 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에 급급하기보다,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나'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서유기>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나 어렵고 읽기 불편한 고전을 완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만화로 보는 진본 서유기>는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 딱딱한 문장의 나열보다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감각적인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따라서 읽기에 부담도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만화가 조태호씨는 압축적이면서도 직설적인 그림과 함께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구성을 선보인다. 또한 진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기에, 흥미 위주의 모험담에 초점을 맞추거나 새롭게 스토리를 재구성했던 여타의 만화들과는 달리 소설을 대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때문에 많은 독서량을 필요로 함에도 시간에 쫓겨 허덕였던 청소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작품이며, 경제·경영·처세 서적에 지친 성인들에게도 역시 권장할만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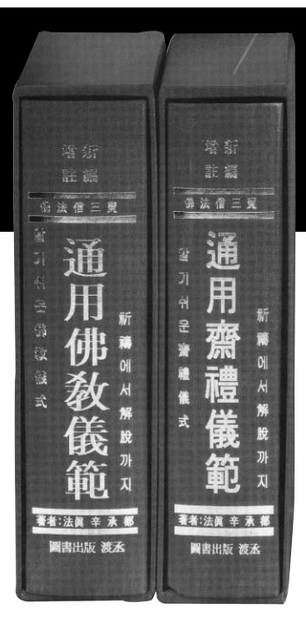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진본 서유기>는 <서유기>의 진정한 '저자'로 공인받은 진본에 충실하면서도 작가 특유의 재치와 재기발랄함을 놓치지 않아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화 <진본서유기>는 10권까지 나올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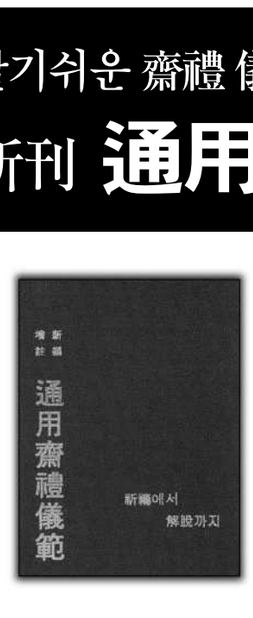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매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수덕사 근역성보관 '지심귀명례-직염수, 그리고 불교' 展



선암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용문탁의' 가사.

날실-씨실이 짜낸 신심

화려함 꼼꼼함에 '탄성'

9월 9일~10월 31일
한국 · 중국 · 홍콩
텍스타일 문화재 한자리에

직물 불교문화재를 통해 불교 예술과 접목된 수려한 텍스타일 예술을 접한다. 9월 9일 수덕사 근역성보관(관장 정암) 상설전시실과 황하정루에서 '지심귀명례-직염수, 그리고 불교' 전시회가 시작된다.

10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요녕성 박물관 소장 21점과 홍콩 크리스 홀 컬렉션 소장 26점, 국내 소장 유물등 텍스타일 불교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덕사 근역성보관 측은 "국내외 우수한 직물 예술품이 총망라된 전시회를 통하여 단절된 우리의 우수한 직물문화를 재조명하고, 올바르게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직금 직수의 불화나 불경, 불교 문양 장엄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해 색다른 불교 예술을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교'라는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단절된 전통 직물 문화 전반을 반추해보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중국요녕성에서 건너온 직물 작품들을 살펴보자.

청대에 제작된 '석가모니불도' '출산석가도' '나한도' '세조도' '미불행서' 등의 직물 불화를 비롯해, '여고 아플리케'와 명대에 제작된 '자수미륵불도', 청대에 제작된 '관세음보살도' '포대화상도' '여영산수도', 원대에 제작된 '자수금강경' 등 자수 작품 11점이 한국 나들이에 나섰다.



중국 청 진륭제 때 제작된 '삼세불도'(왼쪽 사진)와 중국 요녕성 소장품인 타피스트리 '석가모니불도'.



홍콩 크리스홀 컬렉션에서는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직물작품으로는 5~8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금직물편'을 비롯해, 원대의 '미륵불도'와 '불족적도', 청대의 '삼세불도'와 '타피스트리 가사', 15세기에 만든 '연화수보살도'와 '나한도' '오불보관', 13~14세기의 '목장식' 등이 있다. 직금삼세불도는 그 화려함과 꼼꼼함이 눈에 띈다.

직염물로는 16세기에 만들어진 '팔보문협힐'을 선보이며, 자수작품은 15세기 '석가모니불도' '가사편' 원말명초의 '자수봉헌화', 17세기 '아미타불도' '백색다라관음도' '오불보관',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교한 청대의 '문수보살도', 1460년으로 추정되는 '공양선녀도' 천불이 새겨진 15~16세기 '천불가사', 14세기의 '금강교저원식(金剛交杵圓飾)', 16세기 '사자해치가사' 등 중국의 다양한 자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국내소장품으로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쌍용문가사'와 1880년에 만들어진 <묘법연화경> 등의 직물성보들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보살 · 경전이 수놓아진 '25조 자수가사'와 '전(傳) 대각국사 가사' '불화복장낭(佛畵腹藏囊)' <금광명최승왕경> 등 자수작품 등 8점의 성보가 전시된다.

전시유물에 대한 설명회는 9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매주 토 · 일요일에는 전통염색을 배우는 염직체험도 운영한다. www.jisim.net, (041)337-290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동국불교미술인展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재순)가 9월 6~12일 서울 인사아트프라자5층에서 제7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교 교리와 사상을 담은 불화 조각 공예 등의 분야에서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곽동해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불화 '백의 관음', 김광현 회장(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의 조각 '오세동자와 관음', 김의식 소장(김의식 불교미술연구소)의 불화 '수월관음도', 제21회 불미전 장려상을 수상한 노정용 소장(대안조형연구소)의 '연지에 핀 불심'(사진) 박찬수 관장(목아박물관)의 '마음이 부자인 집' 등의 작품이 풍성하게 전시된다. (02)736-6346



강지연 기자

"'무아'의 사랑이 행복의 열쇠"

오세영 시인, 만해마을 '…작가와의 만남'서 강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주는 사랑이든 받는 사랑이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무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과 사랑.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불가능하기 때문일까? 오세영 시인(서울대교수 한국시인협회장 · 사진)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아의 사상'이 행복과 사랑의 삶을 영위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백담사 만해마을이 강원민방(GTB)과 매월 개최하는 '문학은 살아 있다. 우리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에서였다.

8월 26일 만해마을에서 열린 만남을 통해 오 시인은 "문학은 모순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과학적 진실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행복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행복과 사랑은 과학적 진실 보다는 모순적 진실에 의해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도 조건과 논리를 초월하는 모순적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오 시인은 "인간 자체가 비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 역시 모순의 진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 시인은 '좋아한다'는 개념 속의 조건성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전제하며 "조건이 없는 진실한 사랑만이 행복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은 '잡아 먹는다'는 조건 때문이지 자신을 희생도 불사하는 '좋아함(사랑)'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의 사랑을 베푸는 삶 즉,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 하려는 노력이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라는 데 오 시인은 방점을 찍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과 복종의 관계'나 '존경의 관계' 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만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종교의 기본 가르침이고 문학의 지향점이고 인간의 영원한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인제/글 · 사진=임연태 기자

눈길 끄는 시집 2권

'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효림 스님 '꽃향기에 취하여'
전기철 시인 '아인슈타인의 달팽이'



효림 스님



전기철 시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티끌 속에도 있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는 기업 총수의 일과에도 있다. 그러나 매끈한 도심이나 너저분한 삶의 뒷골목을 가리지 않고 불성(佛性)을 보거나 '무진법문'을 듣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바꿀 수 있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엮은 시집이 있다면?

시인 효림 스님은 두 번째 시집 <꽃향기에 취하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꽃으로 변화시키는 통로를 열어 보이고 있다. 기러기 아빠의 슬픔과 이라크 전장의 분노를 바라보기도 하고 길가에 핀 한송이 꽃에 머물기도 하는 스님의 눈길로 엮어진 시들이다. "대를 이어 한쪽으로 탁하게 흐르는 피"를 "자손만대 이어갈 그 순정한 피"(팔월 한가위)로 만들려는 서원을 담은 시편들은 수행자로서 시인으로서 세상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게 한다.

전기철 시인의 시집 <아인슈타인의 달팽이>도 현대인의 일상에 내재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따사로운 시인의 눈매로 엮어져 있다. 시인이 보는 세상은 각박하고 모순투성이다. 그 모순에서 시인은 대도시의 일상과 인간의 욕망을 조망한다. 노숙자의 몸을 덮고 있는 신문들(노숙자들)과 동대문역에서 탁상시계를 파는 꼽추 아줌마(탁상시계를 울리는 꼽추 아줌마)와 가구점을 차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친구(가구는 철학이다) 등등. 시인의 눈은 욕망으로 피어나는 고통의 현장으로 시인도 모르게 외출을 한다. 그리고 욕망을 욕망으로 도시를 도시로 여자를 여자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어루만진다.

임연태 기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 해 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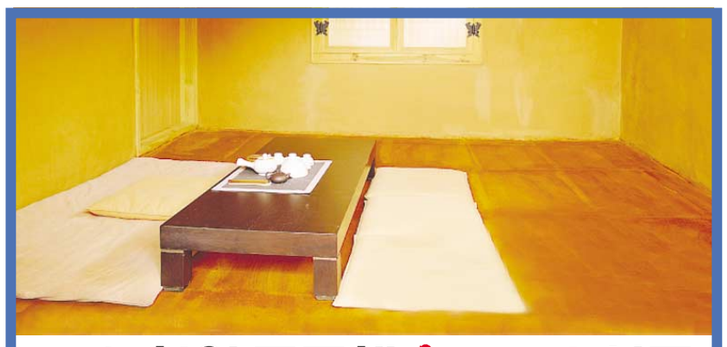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 낙산사 10분소요 ·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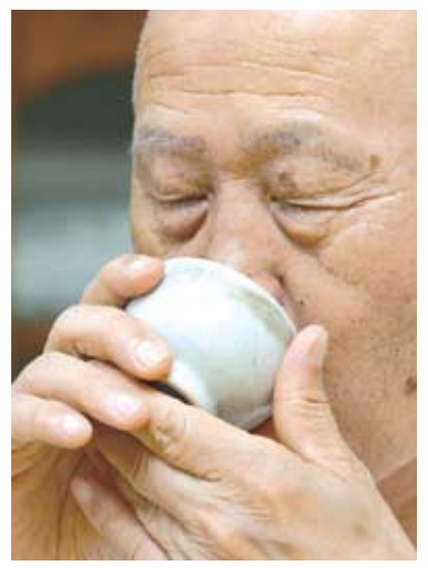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글씨는 인격’ 이라는 소신으로 서도사매를 즐기는 원법 스님의 필체는 거침없고 시원스럽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원법 스님 (대전 보은정사 회주)

묵향처럼 은은한 ‘정진’





불자들이 써 온 글씨를 점검하는 원법 스님(사진 위)과 다도시간에 진행되는 교리공부.

石師念願 深助自得(석사염원 심조자득)
行者靜坐 畵仙心醉(행자정좌 화선심취)
寫生囊括 江船風流(사생낭괄 강선풍류)
浩然之氣 報恩三寶(호연지기 보은삼보)

성취를 염원하여 정진 또 정진 스스로 터득하려다.
정좌한 노행자 망상에 들고 심취된 화백 고상한 자태여.
난중에 실경과 의백일뿐 강선풍류는 아예 말하지 말라.
마음을 넓고 크게 깨달아 보은삼보 하련다.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법(元法) 스님(대전 보은정사 회주)의 방에 걸려 있는 한시의 일 부분이다. 스님이 임꺽정의 활동 무대였던 포천 고석정을 방문해 지은 시라고 한다.

스님은 시(詩), 서(書), 화(畵)에다가 차(茶)와 음악(音樂, 거문고)까지 조예가 아주 깊다.

스님이 8월 21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린 한국전통문화전승관 상량식에 상량문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간곡히 친견을 부탁드렸다.

스님은 아주 난감해 하면서 어렵게 허락했다.

시봉을 들던 송강 스님(장수 도성암 주지)은 “원래 스님이 매사에 겸손하고 하심을 생활화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라며 “스님은 아주 소탈하시다”고 말했다.

상좌들이나 불자들에게도 ‘가난함속에서도 바른 삶을 중히 여긴다’는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을 가슴에 새기라고 가르친다.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잘사는것에 욕심이 나서 도를 벗어나지 않고, 곤궁함으로 인해 가볍게 스스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늘 ‘거친음식과 반찬없는 음식으로 평생을 보내는 삶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검소함은 화장실겸 세면실 옆에 붙어있는 1.5평 남짓한 스님의 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스님의 방은 작은 옷장과 이불과 책 몇권이 전부였다.

송강 스님은 “스님은 좋아하는 차도 중작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으신다”고 귀띔한다.

다음날 새벽 툭! 탁! 소리에 잠을 깼다. 스님이 요가를 하는 소리다. 스님은 40여년전부터 새벽에 일어나기전 30분동안 요가를 한다고 한다. 예불을 모신 뒤 동이 트자 산행에 나섰다.

산행은 스님의 하루일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산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부 허락에 들어있던 약조이기도 했다. 스님은 한시간이 지나서 절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절 주위를 청소했다.

아침공양을 한 다음 스님은 붓을 들었다. 개업한 불자를 위해 회사명을 써주기로 했다고 한다. 서예실의 책상위에는 헐거워지고 닳을대로 닳은 한한사전 몇권이 놓여 있었다.

글을 한자 한자 사전에서 찾은 뒤 습자지에 한 획 한획 이서했다. 그런다음 한글을 붙인 뒤, 옆의 송강 스님에게 다시 확인하게 한 뒤에야 화선지를 펴게 했다.

서예와 다도교육 30년째
차·국악에도 조예 깊어
이재복 스님 詩, 108수 엄선
직접 써 서화展 열 계획

한한사전을 살짝 펴보니 거의 모든 글자에 연필자국이 덧칠되어 있다. 다른 장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글자를 한번씩은 사용했다는 얘기다. 스님의 꼼꼼함과 완벽함이 엿보였다.

붓으로 쓴 글자는 모두 수천번 써본 당연히 아는 글자지만 한일(一)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글자를 쓸때는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획을 그었다. 마지막 낙관도 자로 제고 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찍었다. 스님의 모습은 도장을 찍을 때도 정성을 들인다는 ‘심신관인(審愼官印)’의 모습이었다.

이는 스님이 서예를 처음 배울때 기초만 11년을 했다는 신도들 사이에 희자되는 얘기와 상통한다.

글을 쓰는 도중에 서예와 다도를 배우기 위해 11명의 신도들이 찾아왔다. 서예실에 들어오는 즉시 스님께 집에서 써온 글을 내보인다.

신도들은 오랫동안 배워서인지 모두들 훌륭한 필체였다. 하지만 스님은 빨간 싸인펜으로 잘못된 부분을 여지없이 찾아내 지적해준다.

보은정사는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30년 전부터 서예와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씨 잘쓰는 것을 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하생들에게 서예전에 출품도 못하게 한다. 인격이 글씨를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서예지도에 이어 신도들이 교리공부 시간이라고 칭하는 ‘탁마’를 했다. 신도들은 일주일에 한번있는 탁마시간에 선시도 읽고, 불교경전의 한부분을 강독했다. 이날 탁마시간에는 <부모은중경>에 대한 법문(25면 법문 참조)을 했다.

이렇게 점심공양 시간까지 3시간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서예와 다도시간을 진행했다.

오후 일과는 종단에서 찾아온 스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틈이 나면 붓을 손에 들었다.

스님은 현재 용봉당 이재복 스님이 평생 지은 시 300여편 중에서 108수를 엄선하여 서체로 내년 봄쯤 용봉당 이재복 스님 열반 16주기 유고시 서화전을 열기 위해 준비중이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서울 상봉터미널 금란교회 재림은행 망우고개 중구방 덕소 팔당 양평 원커힐호텔 도농삼거리 마지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6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호적	10명	6개월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 木)
▶ 접수일자 : 2006年 9月 1日 ~ 9月 19日
▶ 입 학 일 : 2006年 9月 20日

▼ 찾아오시는 길

미주아파트 ↓ ■ 청량 전화국 ← 청량리 ■ 청량리 전철역 ■ 롯 데 백화점 ◆교육대학 ↑ 제기동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허공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원법 스님의 가르침

마음이 불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듯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망상을 부리거나 휩싸여 괴로움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보다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그 자체가 진리를 깨치는 도이고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바른 실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실천방법에는 육바라밀 팔정도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국토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회(이웃)의 은혜등 사은혜(四恩慧)를 알고 보답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가지 은혜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효를 강조한 부처님은 아버지인 정반왕이 세상을 하직하자 손수 그 상여를 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 '자식은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그 큰 수미산(須彌山)을 백번, 천 번 돌더라도 다 갚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애는 한이 없습니다. 이 자애에 대하여 마땅히 따르는 것이 보은(報恩)입니다.

고사(古史)에 보면 어머니의 자식 생각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진나라 환온의 한 머슴이 상협을 지나다 강가에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강을 따라 백리나 되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마침내 아기 원숭이가 실려있는 배 위로 뛰어오르다가 그만 기절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모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부모의 열가지 큰 은혜는 첫째, 뱃속에서 열달 동안 길러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해산할 때에 괴로움을 받는 은혜입니다. 셋째, 출산시 3말 8되의 피를 쏟아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고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은혜입니다. 넷째, 좋은 것을 골라 먹여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섯째, 기르실때 밤낮으로 젖은 자리를 가려 눕히는 은혜입니다.

> 생활 자체가
> 진리 깨치는 길
> 공부하지 않으면
> '바른 것' 알 수 없어
> 부모 은혜 갚는 일
> 가장 먼저 해야

여섯째, 8섬 4말의 젖을 먹이어 양육하신 은혜입니다. 일곱째, 옷을 세탁하여 길러준 은혜입니다. 여덟째,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항상 근심하는 은혜입니다. 아홉째, 자식을 위하여는 악한 죄도 지을 정도로 깊고 자상한 은혜입니다. 열 번째, 죽을 때까지 베풀고 연민의 정을 가지는 은혜입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부모님에 대한 참다운 보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로 인하여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고, 키워졌음을 안다면 부모를 받들고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은혜를 알고 다음으로 할 일은 청정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千尺絲綸直下垂(천척사륜직하수)
一波纔動萬波隨(일파재동만파수)
夜靜水寒魚不食(야정수한어불식)
滿船空載月明歸(만선공재월명귀)

천척의 낚싯줄을 아래로 드리우니
한 물결이 일어나자 만 물결이 뒤따른다.
고요한 밤 물 차가와 고기 물지 않으니
배에 가득 허공 싣고 달빛에 돌아오다.

<금강경 야부송(金剛經 冶父頌)>에 나오는 중국 송나라 때의 고승이었던 야부 도천(冶父 道川) 스님의 시입니다. 30년전 글을 써서 보은정사 법당 주련으로 달았던 참 좋은 내용이지요.

천적의 낚싯줄은 바로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낚싯바늘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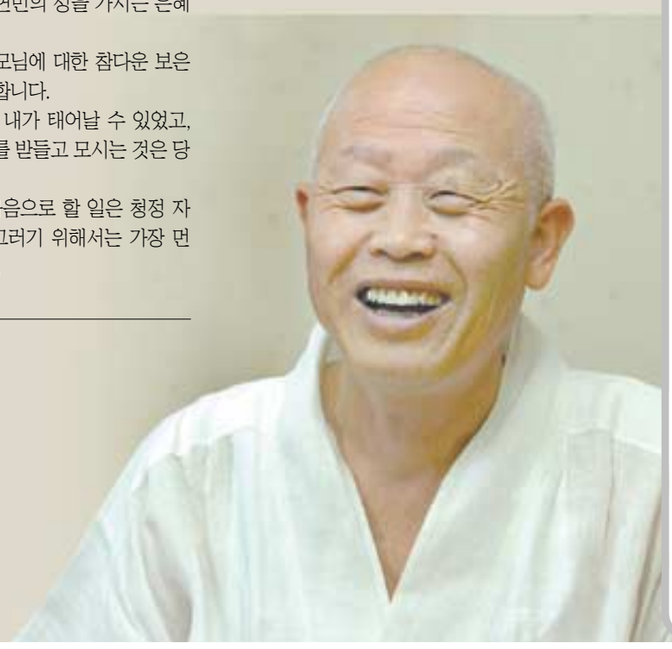
경계에 마음 한번 빼앗기면 천만 번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속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 내 마음 속에 없는 것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여 번뇌가 잠자버리면 천만 경계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대단합니다. 물고기 대신 밝은 달을 싣고 왔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 이런 허공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으면 합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1960년대 어린이 법회 개설 … 새싹포교 개척자

원법 스님은 해인사에서 혜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처님 정법을 얻겠다는 각오로 아침저녁으로는 참선을, 낮에는 염불 정진을 했다. 스님은 1960년대 여수 향일암에서 이미 어린이법회를 개최했다. 이런 인연으로 1970년대 석주 스님, 안병호, 운문스님 등 몇몇 지도자들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운영에도 참여했다.

스님은 또 대전지역에서 교도소법회나 소년원법회를 계속해왔으며, 1993년 국제적 행사였던 대전 EXPO(엑스포) 당시 불교관을 운영하고, 다도시연회를 열며 불교를 알렸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1>



착한 일 하고도 화를 낸 남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팔다리가 다 베여도 화를 내지 않는 인욕선인의 교훈이라든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내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쉽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보면 부처님이 아니고서야 불뚝 불뚝 치솟는 분노를 참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를 내는 일은 옳지 않다' 고 알고 있으면서도 치솟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일만큼 참기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일으킨 한 남자가 모처럼 부처님과 승단의 스님들을 모두 초청하여 아주 맛난 음식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집에 부처님과 천 명이 넘는 스님들이 몰려오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손수 스님들의 발우에 음식을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그날 아침에 하필이면 미리 죽을 먹어서 속이 든든하였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있던 스님들은 "조금만 주시오" "조금만 주시오"라며 자꾸만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좀 서운해졌습니다.

"스님, 믿음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공양이라서 조금만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도 사양하지 마시고 맘껏 드십시오."

스님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죽을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대체 이 스님들은 나의 공양초청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죽을 먹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커다란 보시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자기는 온갖 정성을 들여서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스님들은 '얻어먹는 주제에' 고맙게 받아서 먹지 않고 이미 배부르다고 사양하는 것이 아니꼬웠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떠나자 집에 홀로 남은 남자는 곰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오늘 한 짓이 잘한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돈과 정성을 쏟아 붓고도 화를 내고 심술을 부렸으니 이익은커녕 해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는 불현듯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아,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후회합니다. 저는 오늘 참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불쾌해하며 심술을 부리고 스님들을 모욕하였으니 복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은 복된 일일까요, 복되지 않은 일일까요?"

> 좋은 일 하고도 화내는 경우 많아
> 길 잃은 사람이 서둘러 길 바꾸듯
>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참회해야

부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승단을 초청하던 그 순간부터 그대는 많은 복을 쌓았소. 또한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던 그 순간에 이미 그대는 많은 복을 쌓았소. 보시를 크게 하였으니 큰 복을 받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뭘 듯이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떠나간 뒤에 부처님은 스님들을 불러서 조용히 꾸짖으신 뒤에 재가자의 초청을 받은 날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음식을 미리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을 제정하였습니다. <마하박가>

기껏 고생하며 남 좋은 일 해놓고는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원성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후회하는 남자에게 부처님이 그것을 문제 삼아 질책하지 않고 "좋은 일했다"며 그의 선행과 장점만을 인정하고 격려해준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럼,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길 잃은 사람이 서둘러 길을 바꿔야 하듯이 분노를 일으킨 사람은 뉘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속으로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후회하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일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출요경>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www.webtbm.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051)505-2434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요.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위패, 봉투, 등표, 인등표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정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종무행정의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입력
②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③ 용지 3종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전통찻집'에서 '산사의 차'를 만나자

서울 조계사에서 모처럼 오랜 친구를 만난 L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 근처 '전통찻집'을 찾았지만 잡냄새가 잔뜩 밴 녹차와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질려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산사의 고즈넉함과 향긋한 차 한 잔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서울 인사동과 가회동 일대에 숨겨진 보물 같은 차실을 찾아가 보자. 차로 유명한 스님들이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차실 네 곳을 소개한다.



지난 4월 문을 연 서울 가회동의 '강마다 뜨는 달'.

도심 속 차 한잔의 여유

지허 · 여연 · 용운 스님 등이 직접 만든 차 즐겨

4월 문을 연 서울 가회동의 **'강마다 뜨는 달'은 지허 스님**(금둔사 주지)의 차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찻집이다. 2004년까지 순천 선암사에 머물며 우리 전통차를 연구해 온 지허 스님이 금둔사로 자리를 옮긴 후 만들고 있는 '천강월 잎차'를 선보인다.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지나 100m쯤 지난 골목길에서 '강마다 뜨는 달'이란 간판이 붙어 있는 자그마한 한옥을 볼 수 있다.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면 마당에 핀 꽃들과 조용한 차실이 반긴다. 주말이면 지허 스님의 차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인 '차사모' 회원들이나 사찰 청년회 회원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참선을 한다. 인사동이나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도 편안한 분위기에 끌려 들어와 차를 마시기도 한다.

'강마다 뜨는 달'을 운영하고 있는 정현석(33)씨는 "우리 전통차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차실을 열게 됐다"며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차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허 스님이 직접 만든 녹차와 생강차, 모과차 등이 준비되어 있다. (02)742-3337

조계사 근처 수송동의 두산위브 파빌리온 2층에 문을 연 **초의차명상원(원장 지장)은 해남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의 '반야차'를 만날 수 있는 곳. 여연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초의차명상원은 차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30여 평 규모의 명상원은 점심시간이나 강의가 없는 시간에 찾아가면 한적하게 차를 마실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차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해 볼 수도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불교관련 단체 활동가들도 자주 찾고 모처럼 서울을 찾은 스님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장 스님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에 잠겨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02)733-7209

용운 스님의 제다법으로 다양한 국산 발효차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지리산 명차원은 **서울 인사동에 '명차원'**을 마련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사동에 들렀다가 차 한 잔 마시러 찾는 사랑방같은 공간이다. 용운 스님이 제다한 녹차는 물론 발효차인 고월명차와 금황녹차, 유자녹차와 월계수녹차 등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용운 스님의 강의 녹음테이프와 저서도 판매한다. (02)722-1060

인사동 초입 관훈동에 자리잡은 **불교전통문화원**은 전남 보성에서 반야다원을 일구고 있는 **선혜 스님**이 운영하는 차실. 87년 문을 연 이후 20여 년 간 석정원 차회 차인들을 길러낸 산실이자 다양한 차문화 강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길을 지나다 유리 장식장에 가지런히 진열된 다구들이 신기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녹차 한 잔 건네며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 인심 넉넉한 곳이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전통차문화는 물론 중국 차문화와 다례 등의 강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02)732-2068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보성실업고등학교 차산업 경영 특성화고 지정

보성실업고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차 분야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로 지정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8월 25일 전남 보성군 보성실업고등학교를 차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성실업고등학교는 내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차산업경영과' 지원을 받는다. 녹차의 생산 · 가공 · 관광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차산업경영과는 1학급 24명(남녀공학)으로 구성된다.

보성실업고등학교는 "지역특화산업인 녹차와 연계해 녹차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더불어 차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제다 · 유통기술 등 다양한 산학연계교육을 통해 기능인을 양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차품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졸업 후 지역녹차산업 전문 인력으로 일하거나 차산업 관련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061)853-1905

고급 녹차 지향 '루' 나와

대기업들의 녹차 시장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루(LU:)'를 출시하며 녹차 사업에 진출했다.

새로운 녹차 브랜드 루는 중국 절강성 유기농 녹차 생산업체로부터 차를 공급받아 국내 OEM(주문자상표부착) 공장에서 생산되며, 잎차와 티백, 분말의 세 가지 형태가 판매된다. LG생활건강은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녹차 등 티백 위주의 저가 녹차와는 달리 차별화된 고급 녹차를 통한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7. 신비의 음료

⑥ 여성의 음료

유럽에 커피가 유입되어 런던, 파리, 비엔나 등에서 커피가 대중화된 지 십여 년이 지난 뒤에도 독일인들에게 커피는 그리 매혹적인 음료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독일인의 대표적인 음료인 맥주가 한 요인이었다. 이들은 맥주를 알코올음료로 음용하기도 했고, 식사대용인 수프로 먹기도 했다. 혹은 설탕과 우유를 섞어 마시는 등 맥주는 기호식품이라기보다 가정생활의 필수품이었다.

한때 북유럽에는 배가 나오거나 뚱뚱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거나 부의 상징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마른 사람은 허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회 풍조가 있었다. 그들에게 맥주는 오랫동안 갈증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닌 포만감을 주는 삶 속의 제왕이었다.

오를레앙 공작부인은 파리에 거주하면서도 커피나 차, 초콜릿을 먹지 않고 맥주 수프를 즐겨 먹는 등 독일인들의 생활 풍습을 고수하여 선조들이 마시고 즐겨 왔던 것을 소중히 지키려 했다. 철학자이며 애국자인 피히테는 사회전반에 걸쳐 절제의 분위기를 조성해, 사치품이었던 커피의 소비를 억제하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족주의와 검소한 생활이 일반화된 독일에서는 커피가 정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8세기 커피가 왕궁과 공작의 저택을 중심으로 상류층인 부르주아 계급과 젊은 여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한편으로 외부 세계와 교류가 활발했던 라이프치히는 국제교역장으로 상업과 인쇄술이 발달하였으며 많은 교역품이 모이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매년 국제 박람회를 개최해 외국 상인들이 수시로 내왕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커피의 음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해져 커피하우스가 번창하게 된다. 커피 하우스에서는 소규모의 음악회가 자주 열렸고, 젊은 여성들이 커피를 좋아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 탓으로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기도 했다.

이런 세태를 풍자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커피칸타타'는 아버지 울드 웨이즈와 딸 리스헨의 커피음용에 대한 분쟁을 다룬 곡이다.

19세기 이후 베를린의 중산층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에 간 뒤,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셨다. 하루에 열잔 이상씩 마신 것으로 보면 커피는 연한 설탕물과 같은 음료로 대화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성들에게 커피 타임은 가사로부터의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유명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험담으로 소문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검소한 생활 풍습의 독일은 커피보다 맥주 선호
카페 · 제과점 등 활성화 되며 여성 음료로 인기



카페클라치와 카페슈베스터라는 유행어를 만든 여성전용 커피하우스.

이 당시 유행어인 카페클라치(Kaffeeklatsch)란 가십(gossip)이나 스캔들을 의미하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카페슈베스터(Kaffeeschwester)라 했다. 이렇게 카페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소문을 만드는 사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고 주 고객은 여성들이었다. 이로 인해 커피는 여성의 음료이며 커피를 만드는 일조차도 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 남성들에게 일과 후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단연 맥주였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들이 제과점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커피를 즐기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콘디토라이(Konditorei)라는 제과점은 중산층 여성들이 자유스럽게 케이크, 토르테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 냈다. 한편 근교에는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커피 가든'이 생겼다. 이곳은 여행할 때 전원적인 풍경 속에서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소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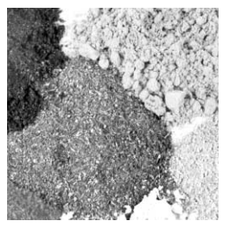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생식이 좋을까 선식이 좋을까

영양 풍부 · 칼로리 낮아 아침 건강식 각광



거르자니 허전하고 챙겨 먹자니 번거로운 아침식사.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식탁에 생식(生食)이나 선식(禪食)이 오른 지 오래다. 우유나 물에 타서 간편하게 먹는 생·선식은 영양이 우수한 반면 칼로리는 낮아 건강식이나 다이어트식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스님들의 '건강비법'으로도 꼽히는 생식과 선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림 · 박구원

▷ 생식과 선식, 어떻게 다를까?

생식은 각종 곡물을 동결 건조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양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하 40도 이하에서 얼려서 건조한다. 생식 재료로 주로 쓰이는 현미에는 쌀겨와 배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열을 가하지 않아 곡물이나 채소가 가지고 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선식은 곡식이나 야채를 열풍 건조한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화식(火食)'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미숫가루'라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선식은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머리를 맑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곡식을 볶고 갈아서 먹었던 데서 유래한다. 최근에는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찰음식을 통칭해 '선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 곡물·야채·버섯·견과류 등 재료로
> 생식, 동결 건조…선식, 볶아 사용

▷ 수행을 돕는 '지혜식'

생쌀과 솔잎, 콩가루 등으로 생식했던 구산 스님은 느릅나무 뿌리를 즐겨 먹었다. <동의보감>에는 느릅나무 뿌리가 소화기 계통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직장궤양, 암 등에 효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대 선(禪)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의 상좌 수월 스님은 생쌀과 황정, 칡뿌리, 풋콩, 솔잎으로 생식을 했다. 칡은 고혈압과 기침을 치료하는 데 좋을 뿐 아니라 신경안정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철 스님 역시 생식으로 건강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철 스님이 즐겨 먹었던 것은 솔잎.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에 백팔참회를 하고 솔잎가루, 불린 검은콩, 김 몇 장, 밥 한 숟가락으로 된 소량의 무염식(無鹽食) 공양을 들었다.

약선식연구가 정세채 교수(경북바이오산업대)는 "생식은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아 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며 "생식과 선식은 건강식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총명하게 돕는 지혜식이자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식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말한다.

▷ 생·선식 만드는 법

생식에 쓰이는 재료로는 현미 콩 옥수수 등의 곡물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 표고버섯·영지버섯 등의 버섯류, 양배추나 사과 등의 채소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한 후 재료를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 헹군 뒤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린다. 건조되면 분쇄기를 이용해 가루로 만든다. 전문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급속 동결처리해 영양소 손실이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식을 만들 때는 찹쌀, 보리, 현미, 율무, 검정깨, 들깨, 콩 등 7가지 곡물이 들어간다. 여기에 호두나 밤 등의 견과류나 사과, 호박, 다시마 등을 섞기도 한다. 재료를 방앗간에 직접 가지고 가 빻거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곡물을 골라 그 자리에서 빻을 수도 있다.

> 소화기 약한 사람 선식이 좋아
> 하루 한끼 적당…물 많이 마셔야

▷ 주의할 점

몸에 좋다고 무턱대로 생식이나 선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소화기가 약하거나 배가 너무 찬 사람, 손발이 차갑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의 경우 생·선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생식보다는 소화흡수가 잘 되는 선식이 낫다. 생식의 경우 곡식류의 껍질에 포함된 '셀룰로스'라는 섬유소가 소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친'이라는 성분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소화불량, 설사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정 재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선식은 다양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1회 섭취 칼로리가 150㎉에 불과해 영양이 부족할 수 있다. 하루 한 끼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섭취 후 물을 충분히 먹어 주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생·선식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중국산 재료가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들이 적발되기도 한다. 특히 생식의 경우 날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무농약, 유기농 재배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시판제품의 경우 믿을만한 업체의 제품을 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다. 직접 곡물을 구입해 방앗간이나 백화점 마트 등의 선식업체에서 직접 빻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2>

두부장아찌와 두부조림





저는 마음이 닿을 때마다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무조건 절을 합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하거나 허전할 때도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털어버리려 절을 합니다.

주로 늦게까지 글을 쓰기에 새벽 5~6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잠을 자기보다 차라리 절에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에 절을 찾습니다.

언젠가는 초하루에 조계사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느니 차라리 초하루 아침에 조용한 법당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고 오자는 생각으로 첫 전철에 몸을 싣고 조계사까지 간 것입니다. 하지만 법당엔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뭘 저리도 열심히 빌고 계실까?' '누구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까?' '저 보살님은 어찌 저리도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계실까?'

법당 안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새벽기도를 올리고 아는 분들과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심때가 되어 절에서 점심공양까지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콩나물과 고추나물, 두부조림, 김치볶음 등 다양한 반찬들이 공양주 보살님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전 많은 반찬들 중에서 두부조림이 제일 맛있습니다. 두부조림의 국물까지도 너무 맛있게 느껴집니다. 반찬과 두부조림 국물로 남은 밥 한 수저 비벼먹는 그 기분.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맛일 겁니다. 두부조림은 대중적인 음식이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 가득한 고단백의 반찬이기도 하지요. 지금도 두부조림 국물에 찬밥 비벼먹으면 지친 여름 입맛을 되살려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파와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사찰식 두부조림 만드는 법을 공개합니다.

■만드는 법



<두부장아찌> 재료: 두부 1모, 포도씨기름 약간, 간장 물(간장 1컵, 채수 1/2컵, 마른고추 1개, 물엿 1큰술, 청주 2작은술)

① 두부는 1cm 두께로 잘라 물기를 빼준다. ② 달군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지져낸 뒤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소금은 뿌리지 않는다) ③ 두부는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준다. ④ 냄비에 분량의 재료를 넣어 간장 물을 끓여준다. ⑤ 용기에 담은 두부에 뜨거운 간장 물을 붓는다. ⑥ 실온에서 완전히 식힌 뒤 냉장고에 보관하면 2시간 정도 후부터 먹을 수 있다.



<두부조림(2인분)> 재료: 두부 1/2모, 녹차기름 약간, 죽염 약간, 양념장(국간장 1큰술, 설탕 약간, 다진 대파 흰부분 약간, 통깨 약간, 고춧가루 약간, 표고버섯가루 약간, 다진 청·홍고추 1/2개씩)

① 두부는 0.5cm 두께로 잘라 죽염을 뿌려준다. ② 달군 프라이팬에 녹차기름을 두른 후 중불로 두부를 지져준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지져낸 두부를 접시에 돌려 담고 양념장을 뿌려준다

※계절에 따라 양념장에 달래나 쑥 등 제철 나물을 다져 넣어준다.

▶다음 주에는 우엉 영양죽과 우엉밥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발·배·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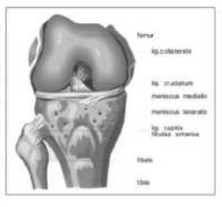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고품격의 3000배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3000배 용맹정진

⊙ 500만 배 성만하며 체득한 절수행 비법 노하우 모두를 완전 공개 하며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 분란하게 절 진행

⊙ 매 타임 마다 누구나 꼭 알아야하는 절수행에 관한 환희심나는 소참법문이 이어집니다

⊙ 삼천배 수행전에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을 통해 누구나 완벽한 호흡처리를 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아픔이 저절로 없어지고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진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수록 생생해짐을 누구나 100% 체험하게 됩니다

♣ 일시 : 2006년 9월 9일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14, 11/11, 12/9)
♣ 시간 : 저녁 7시 ~ 9시 절하는법 교육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까지
♣ 준비물 : 기도포(큰수건), 수건2매,
두꺼운 면양말 2컬레,
면티 2장 이상, 법복바지 2벌등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 문의전화 051)583-7886
청견스님 011-9088-9449
☞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두실역 7번출구 나오는방향 150m 남산자동차정비뒤 경우빌딩 4층



지난해 불국사에서 열린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 사진제공= 삼보불교음악협회

불교합창단원 2천명 한자리에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단양 구인사서 9월 12일 개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합창단원 2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전국불교음악제가 9월 12일 단양 구인사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한다.

구인사 조사전 앞에 설치될 특설무대는 가로 20m 폭 10m의 대형 무대를 자랑한다. 합창단이 오를 계단도 층 높이를 달리하는 등 굴곡을 둬 합창단의 진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 흐르는듯한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불교음악제는 '우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창작곡 '붓다의 노래'로 시작되는 1부는 '해수관음의 빛' '경사로다' '정토' '자비실천' '윤회' '몰라몰라' '보리심' '들국화' '귀의하옵고' 등으로 2부는 '예불' '향연' '부모은중경 중에서 잉태 보육 은혜 어머님' '세존께 바치는 노래' '나무 관세음보살' 등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안병길 사무처장(삼보불교음악협회)은 "올해 음악제는 어머니와 아들이 불사하는 내용이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다"며 "불심 깊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산사를 다니다가 좋은 곳을 발견해 큰 절을 만드는 내용으로 마치 뮤지컬처럼 꾸몄다"고 음악제를 소개했다.

이번 음악제는 예년과 달리 찬불가 불음포교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하는 등 1박2일 동안 음악과 불음포교에 대한 고뇌가 함께 하는 독특한 자리로 마련된다. 찬불가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원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며 찬불가를 통한 불음포교 활성화 방안을 찾아갈 전망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는 "찬불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에서 세계도 하나'로 거듭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불교음악협회로 거듭나서 모든 불교음악인의 전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보불교음악회는 11월 28일 관음회의 뮤지컬 '오세암' 창단 공연, 11월 중순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앙코르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18~20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대의 꿈이 온 인류에'를, 9월 7일에는 한국불교음악역사관 준공 기념 '제7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02)723-0440 강지연 기자

뮤지컬처럼 꾸민 대형무대 '눈길' … '붓다의 노래' 첫 선

합창단원이 직접 발표하는 '찬불가 불음포교' 주제 세미나

창극 '청' 전주서 만나요

2006전주세계소리축제 9월 16~24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기획초청공연 창극 '청'을 만나자. 9월 22~23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국립창극단이 선사하는 창극 심청전은 안숙선 명창이 작창 · 도창하고 박성환씨가 대본을 맡았다.

예술감독은 유영대 교수(고려대 국문학과)가, 연출은 김홍승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페라학과)가 맡아 심청전을 창극으로 변신시켰다.

창극 심청전 화려한 무대 안숙선 명창 직접 '열창'



권선문, 심봉사집, 임당수, 장승상댁, 왕궁 연꽃, 왕궁, 용궁 연꽃, 용궁 등으로 꾸며지는 화려한 무대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16~24일 열리는 2006전주세계소리축제는 길놀이, 가야금 병창, 힙합, 김수철과 함께, 창작공 공(空)놀이 등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공연 '소리 파라다이스'를 시작으로 만정 김소희 선생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 · 공연 등이 뒤를 잇는다. 대학창극축제, 소리 프린지 페스티벌 등 세대를 넘나드는 작은 축제들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매해마다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전통과 전위'는 올해 호주의 소리꾼들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의 소리꾼들이 선사하는 선율도 접할 수 있다. 젊은 소리꾼들의 도전 '판소리 젊은 시선', 장애인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천상의 소리', 국악팝스오케스트라의 '여민', 금난새와 함께하는 '신동의 소리' 등도 주목할 코너들이다. (063)280-3326

강지연 기자

자비와 효, 그리고 감동

불교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서울 KBS홀서

출연진 108명 모두 불자 … 10월 부산 공연



불교소재 대작 뮤지컬이 이 가을 불자들을 찾아온다. 불심과 효심을 넘나드는 뮤지컬 '갓바위'가 그 주인공. 갓바위 부처님 조성 설화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뮤지컬 '갓바위'는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9월 25일 서울 KBS홀에서 초연하는 창작뮤지컬 '갓바위'는 출연진만 108명이다. 연기자만 50명이 넘고 무용수 · 합창단 · 승가대 학인스님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대작이다.

'갓바위'의 주제는 '불심과 효심'이다. 보물 제431호 팔공산 관봉 석조약사여래불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조약사여래불 일명 갓바위 부처님은 원광 법사의 수제자인 의현 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신라 진평왕 11년(617년)에 불사를 시작해 선덕여왕 7년(638년)까지 무려 21년간의 작업 끝에 조성된 불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의현 대사가 '갓바위 부처님'을 조성하는 동안 밤마다 큰 학 두 마리가 날아와 그를 지켜주었다.

'갓바위'는 의현 스님이 출가하기 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때에서부터 갓바위 부처님을 완성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낸다.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정광진 감독은 "배우들은 강태기씨를 비롯해 모두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갓바위 부처님이 나투는 부분이나 약사여래를 조성할 때 학 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특수연출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 뮤지컬에서 첫선을 보이는 23곡의 음악은 전부 창작곡이다. 도신 스님의 '무상'만 편곡 작업을 했을 뿐이다.

정광진 감독은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한달간의 서울 장기공연 계획을 문광부와 타진 중이고 내년 뮤지컬페스티벌에도 이미 초청됐다"며 "내년 5월 전국 투어공연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뮤지컬 '갓바위'는 서울 공연에 이어 10월 28~29일 부산, 11월 3일 대구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053)427-5114 강지연 기자

2006 윤이상 월드 투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탄생 89주년을 맞아 일본 서울 독일에서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투어 연주회가 마련된다.

첫 무대는 일본 도쿄 동경예술대 주악당에서 9월 15일에 시작된다. '아시아의 약동하는 음들-한국 서울의 전통과 현대음악'을 주제로 펼쳐질 일본 공연은 윤이상 선생의 '플룻 독주를 위한 소리' '관현악곡 로양'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시나위' '해금산조' 등이 연주된다.

19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독일 공연은 베를린 성마태교회(10월 14일)와 뮌헨 칼 오르프 젠트룸(16일)에서 각각 공연 일정이 잡혀있다. 독일 공연은 윤이상 음악 해석에 있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정기공연이기도 하다. 콘트라스트 I 등 주옥같은 실내악들을 연주한다.

강지연 기자

양주 육지장사 '윤림축제'

'함께 해요' 2006 가을맞이 육지장사 윤림축제가 9월 16일 오후 7시 양주 육지장사 상설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의 축제는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인 서울시 뮤지컬단과 무용단을 초청해 풍성한 음악과 춤의 향연을 벌인다.

무용단이 '천상지연' '타의예' '진도북춤' '부채춤' '화관무'로 무대를 장식하고, 뮤지컬단은 뮤지컬 '캬바레' '아이다' '노트르담 드 파리' '아가씨와 건달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그리스' '캣츠' '포시' 등에서 유명한 노래들을 선사한다. (031)871-0101 강지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소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대행스님

일체가 공했으니 놔라 놔라! 쉬어라!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산대사와 사명 대사 때문에 불교라면 아주 자지러져서 아주 불교국으로 됐지 않습니까. 생활을 불교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에서 따 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장삼을 하오리로 만들었고,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받이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약습니까? 처음에는 행전을 당코바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각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발우공양을 공기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도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정신을 잃지 않고 혼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이 향을 꽂으려고 자기가 꽂아 놓은 것을 빼 버리면 그냥 뭐 야단이 나고, 물 떠다 놓고 초 켜 놓고 이래야만이 정성들이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향을 켜 놓고 초를 켜 놓았다 하더라도 그 초 한 자루에 수천수만이 밝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꽂아 놓은 거, 내가 꽂아 놓은 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침착한 마음으로,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이 지극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등이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뒷면에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인등을 켜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을 것이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대중 웃음) 하하하…. 백일기도 드릴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백일기도 드릴 때만 자기가 먹고 모두 움죽거리나요?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는 어떡할 겁니까? 불이 꺼져도 괜찮습니까?

이 세상 진리는 항상 밝고 항상 움죽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혹성, 이 별성이 모두 살아나가고 운동하는 데서 바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그러면 아까 자석에 모든 것이 끌려와 붙는다고 얘기했듯이, 그 불바퀴는 크니까 다 붙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바로 법바퀴가 그것을, 우리가 전력을 빼서 쓰듯이 그렇게 빼서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거죠. 멸하고 생산되고 멸하고 생산되고 이러죠.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작용이죠.

이런 진리를 탐구할 생각은 안 하고 모두 남한테 기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속에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서 모든 일을,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자기 집은 주인도 없이 비워 놓고 항상 남한테다가 기대면서 살고 있죠. 물질에 기대고 이름에 기대고, 그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인가요? '요기다 놓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아이구, 요기다 놓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래서 땀으로 뭉쳐진 종이짝 몇 개 가지곤 벼르면서, 여기 안 놓으면 안 되니까 요거 별러서 놓고 요기 놓고 조기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통스럽죠. 우리 인간이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뛰어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끄달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교 믿는 것마저도 그렇게 편안치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무슨 석달 열흘 기도를 드려라, 인등을 켜라, 뭘 해라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내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이 붙는 거지 내 생각이 시간과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공했는데 내게 팔자 운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유전성 붙을 자리가 어딨으며 병 붙을 자리가 어딨나. 가난 붙을 자리가 어딨고 우환 붙을 자리가 어딨고 날짜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는 게 어딨느냐. 집을 짓는데 구랑신이 내려서 집을 못 짓는다 하는 게 어딨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왜 이렇게 패기 있게 못 나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불자며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탈만 썼지 어떻게 인간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라고 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도요,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먹어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활하는 데에 참, 배고픈 일이 너무도 많고 애처로운 일이 너무도 많고, 쓰라린 일이 너무도 많고 터무니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 여러분 사시는 데에 천차만별로 닥치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도 더불어 얘기를 못하는 비밀도 많습니다. 오히려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도 정말, 자식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고 부모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참주인이 없다면 어떤 것도 커버해 나갈 수 없고 몸 안에서 병이 들어도 커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 즉 속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자기와 더불어 한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몸, 한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니까 거기서 생각할 때에 '아 참, 둘이 아니라는데….' 하고 그걸 알게 되면 죽어 가던 세포도 자꾸자꾸 살아나게끔 바로 작동을 하죠.

여러분! 어떠한 병이라도 지금 병원에서 35%는 고칠 수 있어도 그 외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뭐든지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죽거린다면 그게 바로 시자가 주인의 심부름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거기다 맡기고 부지런히 움죽거려 주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이구, 그게 뭐 나발 같은 소리야! 그까짓 것, 나는 광대한 부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그냥 봐 줄 텐데, 뭐.' 요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믿고 다 맡겨야 하고 그 다음에, 맡겨서 밝게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견성했다'고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 공부는 글렀죠. 그리고 미해지죠. 세 번째는 둘이 아닌 걸 알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네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다'는 그 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개구리가 도와 달라고 그랬을 때는 개구리가 되어 한마음이 돼서 응해 주시고, 병신이 달래든 또는 못생긴 사람이 달래든 잘생긴 사람이 달래든, 부자가 달래든 가난한 사람이 달래든, 새가 달래든 곤충이 달래든 짐승이 달래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대로 자기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돼 주려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작아져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건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뭐가 됐을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 소 이런 짐승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요, 사람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라는 얘깁니다.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으니 거기다가 맡겨서 실천을, 실험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할 수밖엔 없으니 거기다 맡기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기도를 하라' 뭐 '정성을 들여라' 이럽디까?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성불이며 열반이며,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앞뒤가 없는 불바퀴를 넘어 참으로 영원한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얻는다면 바로 평등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 다음에는 칠보활궁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 다음에는 팔수레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도리천, 즉 도리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발이니 평손이니 평눈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종합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인이 바로 부처이자 바로 신이죠. 그냥 보통 자기를 불러도 '자신' 이러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있는데 왜 타신을 믿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타신도 둘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내 집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올 수 있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법당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방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떡을 해서 둥그런 그릇에 딱 담으면 그게 그냥 둥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둥그런 떡 한 그릇이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다는 뜻을 아시라고 항상 그럽니다. 내 조상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당에 올라가시면 내 마음으로 부처든 나든 조상이든 뭐 중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전체 둥글려서 지극하게 한다면 일 배를 드려도 삼 배, 삼정례 한 것보다도 더 많아지고 백팔 배를 했다 해도 일 배도 한 사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북하면 달마 대사께서 양 무제더러 "당신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건 뭐 있습니까, 또. 몸이 죽어 없어진 뒤에도 바로 그 몸을 해 가지고 짚세기 한 짝은 거기 두고 짚세기 한 짝은 주장자 끝에 턱 메고서 가다가, 나라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입에서 뱅뱅 돌고 또 안 나와요.

▲대중 가운데서: 사신.

▲큰스님: 네, 사신이지요.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오는 도중에 딱 달마 대사를 만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그 모습을 다시 해 가지고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터억 보였으니 어떻습니까? 어버이라는 마음은 죽으나 사나 여러분을 아마…. 지금도 부처님이 내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것이 바로 부처가 살아 계신 것이니까요.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 하는데 열반한 게 아닙니다. 사대가 흩어졌을 뿐이고 여러분이 또다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하하하….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죠.

그러니까 법당에 가시면 부처님 형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마음에 둥글려서 둘 아니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부처가 저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셔 놓은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한데 둘 아니게 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하! 방편으로 놓았든 뭘로 놓았든 하여튼 진짜 부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진짜 부처니까요.

예를 들어서 각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 조사들이 그림을 그려서 놓거나 형상을 조성해 놓은 것을 "이거는 사리가 없다." 그러고선 갖다 태워 버리질 않나, 임신을 못해서 어린애를 좀 낳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들이면 다기 그릇에다 손을 터억 넣어 가지고 밥을 갖다 뚤뚤 뭉쳐서 부처님 입에다 척 붙여 놓곤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애를 달래니 이거 먹고 해 주라." 그러고선 터억

☞30면으로 계속

"마음의 인등을 켠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을 것이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깨달으면 부처!

☞29면에서 계속

하니 걸망을 지고 털럭털럭 가면서 "인연 있으면 요다음에 어린애 낳거든 또 만나자." 그랬다는 거죠. 낳아서 업고 와서 보니까 그 스님이 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그 몸이나 둘이 아닌데 그 사람이 모르고 스님들이 모르니까 방편으로 "야, 너 부처지?" "예." 자기가 대답해요, 또. "너 부처지?" 그러니까 "예." "부처걸랑 그럼 이거 먹고 해 줘." 그러고선 그냥 탁 입에다가 붙여 놓고는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참, 그 멋지죠. 삿갓 쓰고 주장자 하나 들고 평발로서 바리때 하나 들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아무 데고 그저 내 각장 장판인 줄 알고 턱 드러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먹고는 소화시키니, 똥마려우면 똥 누고 오줌 마려우면 오줌 누고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똥 누고 이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 먹고 배설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일체 생활을 하면서 생각 한번 잘하고 소화를 잘 시킨다면' 이런 소리와 똑같은 얘깁니다. 생각 한번 잘하면 먹는 것이고 먹으면 소화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먹고 소화 못 시키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여러분이 불교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지 여러분 빼놓고 불교가 어딨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부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부처가 어딨는지 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부처를 보고 믿게 되고 듣고 보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 것 없어요? 하지 않아도 좋아요. 팔으로 메주를 쑨대도 나는 믿으니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팔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나는 믿어요. 머리가 발이라고 해도 믿고요, 발이 머리라고 해도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몸은 물질이고 물질 아닌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실체가 아니며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이라고 한들 어떻고 팥이라고 한들 어떻습니까? 콩이라고 생각한다면 콩인 것이고 팥이라고 생각한다면 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세계에서 그렇게 관습에 젖어서 기복에 젖어서 산다면 요다음에 몸뚱이 속에 인과응보로 뭉쳐진 것이 수없이 늘어나 가지곤, 화해 가지곤 내가 죽은 뒤에 턱하니 나와서 눈앞에 벌어집니다. 살아 있을 때도 수없이 자꾸 파워를 일으키고 자꾸 입력됐다가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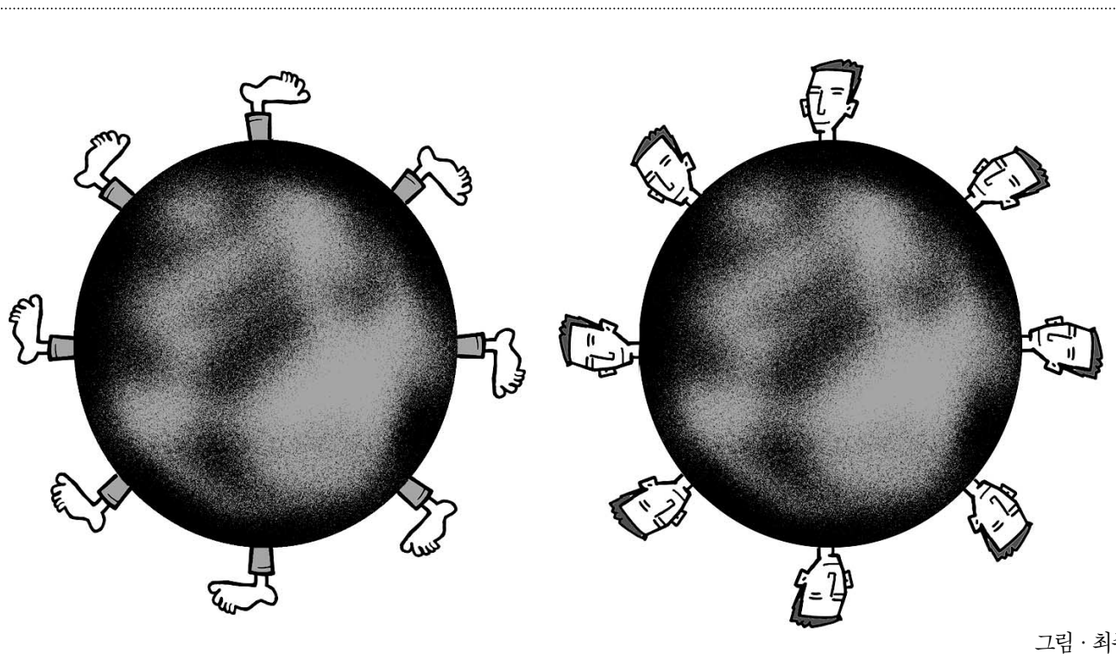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마음 뒷면에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데, 죽어서도 고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냥 크게, 요만한 벌레도 크게 돼 가지곤 눈에 다 보이니까 한 발짝도 못 들어서요. 자기가 인연 지은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머릴 풀어 산발을 한 사람으로 나오죠, 벌레로 나오죠, 짐승으로 나오죠, 독사로 나오죠. 모두 그렇게 나와서 늘비하게 널려 있으니 그 길밖에 없는데 한 발짝이나 떼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일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 여러분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일 단계에도 뛰어넘는 거지만 그것도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될 것을 내가 항상 의식으로 물질로다가 아주 관습이 됐기 때문에 젖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가 와야 건너가지 내가 그냥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빠져 죽지.' 이런 생각으로 영혼들이 그냥 주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때요? 거짓말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여기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강을 건너가서 우리 같이 만나자, 같이 건너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 죽어서도 고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글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오백 생을 기다리면 옵니까? 그러니 천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요새 그러한 도리를 배우니까 좀 아시겠지마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그저 요런 거 하나 조런 거 하나 일일이 따지고 덤비고 그냥 먹으려고 하고 그랬겠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까 불바퀴라고 얘기했죠. 통로인 거기를 마저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이름 해서 성불이라고 하고 또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영원히 끝간 데 없이 밝음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 죽을까 봐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타 죽을 몸이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다는 거죠. 의식이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했으니 놔라 놔라! 쉬어라! 놔라!" 그냥 수없이 그러셨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어린애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또 남편은 부인을 돌보지 않고 만날 백팔 배나 하고 염불이나 하고 경이나 외우고 구석방에 들어가서 염하기나 하고 이래야만이 불교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인제는 좀 놓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림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지금 애들이 학교에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먹거나 말거나 "얘들아, 여기 차려놨으니 먹어라." 그러곤 그냥 홱 나가야겠습니까? 훤해요, 아주! (대중 웃음) 그거 오순도순 밥 먹고 오순도순 얘기하고 오순도순 친절하게 참, 말을 해서 내보내면 그날 일도 잘돼요.

그런데 자기 일 보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입니다. 그게 바로 애정에 굶주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나가죠. 중학생쯤 되거나 고등학생쯤 되면 잠잤던 것이 바락바락 일어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거를 누구한테다 항거를 합니까? 하다못해 시장을 가더라도 참, 애들이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온다면 "내가 지금 당신 좋아하는 거 사러 시장에 가요." 한다든가, 애들한테도 '나 이렇게 갔다 올 테니 너희들 냉장고에서 요런 거 꺼내 먹고 있어. 기다려. 참 사랑해.' 하고 요렇게 써서 냉장고 문에나 붙여 놓고 뽀뽀 한 번 해 놓고 가면 이탈될래야 이탈될 수가 없지요. 그건 떠다밀어도 안되죠. 아주 접착제로 붙어 있듯이 고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로 이탈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서로에게 있으니 누구에게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들한테나 아내한테나 아무리 바깥에서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남자는 가슴이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넓은 게 아니라 남자니까요. 못났든 잘났든 내 아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그저 아내가 늦게 들어오거나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고 "여보, 밥이나 먹고 다녀? 배고프지 않아? 내가 꺼내 줄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고만 그 하루 동안 고통받았던 게 싹 씻어지죠. 말 한마디에 구덩이에서 빠지느냐 구덩이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여러 가지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을 '저 스님이 불교는 말 안 하고 별 말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게 불교니까요. 돌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은 전부 부처가 돼서 질문이 하나도 없군요. (대중 웃음)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인연이 돼서 여기에 지원을 내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그 작업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건강도 되찾을 수 있으며 또 가난도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는 가환, 우환, 뭘 듯하면서도 안되는 그런 모든 가환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이 입력된 도청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 한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1년 8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說禪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
(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화상(火傷)에서 얻은 지혜 (중)

조대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그림 · 문병성

일주일 사이클의 생활은 매주 한차례씩의 설법과 철야정진을 반복하면서 그럭저럭 평온을 찾아간 듯하였으나, 일 년의 사이클에서는 여름 겨울 두 번의 용맹정진이 분수령이다.

새말귀선원에서는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3박4일이나 4박5일간의 철야용맹정진을 한다. 그 용맹정진을 다녀오면 그 다음 한 달간은 마음이 깊이있게 침잠(沈潛)되어서 안정되나 한 달이 지나면 또 어느새 세상의 물이 들어서 파도가 넘실거렸다. 그러다가 또 용맹정진에 다녀오면 많이 안정되었다가 또 한 달여 지나면 파도가 넘실거리기를 몇 년을 계속하였다.

잠을 자지 않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이어나가는 용맹정진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그동안 알고 있거나 믿고 있던 것들이 참으로 좁은 소견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다음 용맹정진이 지나면 '그 전에 느꼈던 것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수행의 희열감이나 조금씩 알게 되는 어떤 '알음알이'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매 순간 아무런 집착없이 정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정진하다보니 오히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행의 맛'을 알고부터는 항상 용맹정진 기간이 기다려졌다. 용맹정진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니,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용맹정진을 빠질 수는 없었다. 물론 용맹정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불과했다.

'전체의 10%, 2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입원한 다음날 오전 9시경 처치실로 들어가서 처치 받으면서 하루 동안 감아두었던 붕대를 벗어버리고 소독을 하고 물집이 잡힌 곳은 가위로 상처를 내서 물을 빼낸 이후 거즈를 덮고서 다시 붕대를 감은 후 병실로 갔다.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소독을 하고 화상거즈를 발라주는 것과 링거 주사에 기타 약재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한의사로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화상을 치료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실험삼아 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물집을 그대로 두고 붕대를 감지 않은 채 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

한의사로서 호기심 발동… 침으로 치료 시작
하루 300대씩 맞으며 꼼짝않고 누워 관찰
검고 화색없던 피부 차츰 생기 되찾아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위 사람들은 꽤나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 같다.

하지만 집에 오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화상을 입었을 당시에는 분명히 걸을 수 있었는데, 발목부위 화상이 심해서인지 발을 제대로 디딜 수가 없어 도반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4층에 있는 집까지도반에게 업혀서 올라왔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몸을 일으키면 피가 발목으로 몰려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누워 있자니 좌절감이 밀려왔다. 좌선을 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용맹정진 때 졸기도 하여 열심히 정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빠진 적은 없었는데 화상 때문에 빠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났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데….

그날부터 하루에 300대 정도씩 고슴도치처럼 온 다리에 침을 맞고 꼼짝도 못하고 또 지쳐서 잠을 조금 자고 하는 날들이 계속 되었다.

몇 해 전에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눕지도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댔다가 일으켜달라고 하셨다가 또 금방 힘이 빠져서 또 기대게 해달라고 하시다가, 또 일으켜 달라고 하시며 앞으로 구부려 기대다가 지쳐 주무시기를 2~3일 하다가 숨을 거두었던 기억이 새삼 났다.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임종 전 고통을 알 것 같았다. 참으로 힘든 날을 보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다. 돌아가시는 날도, 돌아가시고 일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텐데, 죽음의 시절인연이 닿았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

평소에 많이 닦아 놓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화상 부위에 처음 침을 놓을 때는 피부에 기운이 없어서인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색깔도 허옇게 탈색된 것 같았다.

그런데 하루 이틀 침을 맞아갈수록 피부에 기운이 돌아오고, 색깔도 검고 생기없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침을 놓을 때 아프기 시작하였다.

화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화상 입은 사람의 피부가 징그럽겠지만, 직접 당해보고 매일 쳐다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시커멓고 화색이 없던 피부가 붉은 색을 띠고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꼭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듯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항생제나 진통제를 전혀 쓰지 않고 침으로만 치료하니까 침 한대 맞을 때마다 "아악!"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한 대 한 대 맞는 것이 그렇게 아플 수 없었다. 첫날에는 2백~3백대 정도 맞았어도 그렇게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뒤에는 50여대 맞았는데도 아예 침을 맞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 '한의사인 내가 이 정도인데 나중에 다른 일반인이 화상을 나 정도로 입었을 경우에 침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할까? 내가 엄살이 심한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법 명 : 혜승(선만선)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 1538-1번지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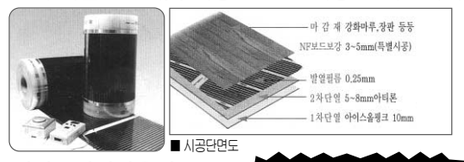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살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비 (1일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활엽수와 기암의 조화 그대로 '법당'

내장사에서 원적암, 벽련암을 거쳐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은 낙엽활엽수림지대가 '숲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내장산 서래봉을 등에 업은 내장사 벽련암의 모습이 조화롭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5) 정읍 내장산 내장사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란 환경부가 자연생태계의 장기적인 보호계획을 세우기 위해 녹지공간의 자연성을 나타낸 지표이다. 즉, 녹지식생이 없는 저수지나 강을 0으로 하여, 녹지 식생이 거의 없는 시가지를 1등급, 논밭 등 경작지를 2등급, 장령림(長齡林)과 원시림을 8등급과 9등급, 고산지대의 천연림을 10등급으로 정해놓았다.

내장사 주변은 해인사, 화엄사, 법주사, 천은사 주변의 숲과 함께 개발을 금지하고 보전해야할 8~9등급 숲에 해당된다.

문헌에 따르면 내장산(內藏山)의 본래 이름은 산중에 있던 영은사(靈隱寺)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근세의 인물인 학명선사의 사리탑에 병서된 내용에 이르기를, 내장사는 백제 무왕 때인 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조선 중종실록에 승도탁란사건(僧徒濁亂事件)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내장사 말고 영은조사가 세운 영은사가 별도로 존속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내장사로 들어가는 길은, 금선계곡에서 발원해 내장호로 유입되는 내장천 계류를 따라 난 '자연사랑길'이다. 길 오른쪽으로는 잔디밭 군데군데 조경수들이 자리하고, 계류 쪽으로는 곰의말채, 누리장, 왕버들, 비목, 신나무, 느티나무, 들메나무, 풍개나무, 층층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등의 자생수종이 보인다.

자연사랑로를 끼고 흐르는 계류는 내장천의 상류로, 버들치와 갈겨니가 우점종으로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나 내장호에 이르는 구간에는 돌고기, 긴몰개, 동사리, 왕종개, 피라미, 돌마자, 동사리, 모래무지, 밀어, 왜매치, 참종개 등이 나타난다.

내장사 계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서객들이 들어와 물놀이를 하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게다가 계류 곳곳에 허연 거품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성세제는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계류를 막아서 조성한 우화정 호수에는 갈겨니와 같은 자생어종도 있지만, 비단잉어와 같은 대형 양식어종도 함께 서식하고 있다. 관상어종인 비단잉어는 고유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놀랍게도 이 인공호수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다. 얼마 전에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는 수달이 무인 카메라에 잡혀서 언론을 탄 적이 있다. 수달은 내장사 주변 생태계의 지표종으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화정을 지나면 왼쪽으로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단풍철이 아니라도 케이블카 안에서 내려다보는 내장산의 활엽수 임해(林海)는 또 다른 승경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케이블카 상부역에는 음료수 자판기들이 놓여 있고, 전망대 매점에서는 술과 음식을 팔고 있다.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은 국립공원 안에서는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전망대에 서면 월령봉-서래봉-불출봉-망해봉-연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공룡의 갈기처럼 꿈틀거리며 지나간다. 숲의 바다 속에 자리한 벽련암도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내장사로 하산하는 길은 활엽수 숲바다 속으로 나 있다. 하산길 도중에 천연기념물 91호로 지정된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한 굴거리나무 군락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굴거리숲을 내려오면 금선골에서 내려오는 계류를 만난다. 내장사 앞에서 원적골 물과 합류하여 명당수를 이룬다. 내장산 계곡은 노랑할미새와 검은댕기해오라기와 물총새 등 계류성 여름철새들이 눈에 띈다.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아침이면 검은댕기해오라기가 계류를 거슬러 올라와 물고기들을 사냥한다.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는 단풍나무 108그루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단풍철이면 마치 불구덩이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단풍나무들은 100여년전 스님들이 심은 것으로, 이제 노거수가 되어 노쇠의 빛이 역력하다.

수백년 동안 부도전을 지켜온 천년송(千年松)은 가슴 높이의 둘레가 3m에 이르고, 키가 40m에 가까운 노거수이다.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고사하고 말았다. 금명간에 이 천년송을 베어낸다고 한다. 천년송과 같은 노거수들은 대개 우성으로 유전하므로, 죽기 전에 후계목을 키워놓았어야 했다.

노거수의 죽음은 나무 한 그루 사라지는 것 이상의 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내장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비록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안내판이라도 세워두고 기린다면 교육에도 좋을 것이다.

내장사에서 원적암-벽련암을 거쳐 일주문으로 내려오는 3.6km 구간은 내장산의 식생을 잘 보여주는 낙엽활엽수림지대이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던 바로 그 숲의 바다이다. 내장사하면 가을단풍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 낙엽활엽수림의 바다 덕분이다.

내장산은 남방계식물과 북방계식물이 함께 자라는 지역으로, 군락을 이루는 주요 식물로는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비목나무 등 대부분이 낙엽활엽수들이다. 내장사의 아름다운 단풍도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원적암에 이르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는 비자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높이도 10m를 훨씬 웃돌고 수령도 600년이나 되는 보물급 노거수들이다. 원적암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의 한계지역에 자라고 있어서 식물분포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내장산의 희귀 초본으로는 백양더부살이가 첫손에 꼽힌다. 백양더부살이는 1928년 일본인 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내장산 남창계곡에서 처음 발견한 후 75년 만에 새로 발견된 희귀종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는 백양더부살이는 쑥 뿌리에 기생하는 여러해살이풀로,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 밖 내장천 하천 둔치에서 갓길과 둑 비탈에 많은 개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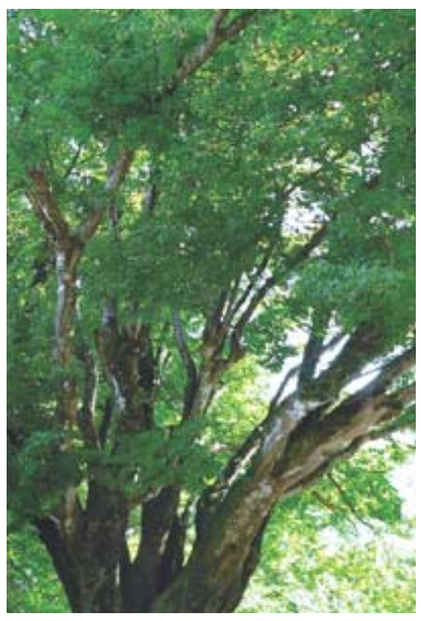
원적암에서 벽련암으로 가다보면 '사랑의 다리'라는, 이름이 좀 생뚱맞은 곳을 지나게 된다. 이곳은 너덜이라 불리우는 테일러스(Talus)지역이다. 테일러스는 8000~1만년전 빙하기 때 생성된, 물리적 풍화의 산물이다. 수직으로 솟아있던 높은 바위들이 풍화작용으로 산산이 부숴져 지대가 낮은 곳으로 굴러서 넓게 쌓인 곳이다.

벽련암의 본래 이름은 백련사(白蓮寺)였다. 절 뒤로는 웅장한 서래봉이 솟아 있다. 절 뒤에 대나무 숲을 조성한 것은 서래봉의 암맥에서 쏟아지는 기(氣)를 순화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법당 앞뒤에 노거수로 자란 단풍나무가 노장처럼 자리하고 있다.

벽련암에서 일주문까지도 식생은 낙엽활엽수 세상이다. 낙엽활엽수는 곤충을 먹여살리는 나무이다. 내장산에는 764종의 곤충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정벌레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식생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벽련암을 내려오면 백년약수가 있다. 백년장수(百年長壽)를 기원하는 의미라지만, 원래 백련사 절 이름을 따서 '백련약수'였다고 하니 본래 이름을 되찾아줄 일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주변 숲 녹지자연도 8~9등급으로 우수, 개발 금지해야
인공호수서 수달 관찰 … 생태계 지표종으로 보호 필요
백양더부살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초본



내장사는 일주문서 사천왕문까지 108 단풍터널을 이룬다.



수령 6백년 정도되는 보물급 노거수 비자나무.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윤달 예수재

예수재는 살아있을때 사후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극락 왕생 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불교의식 입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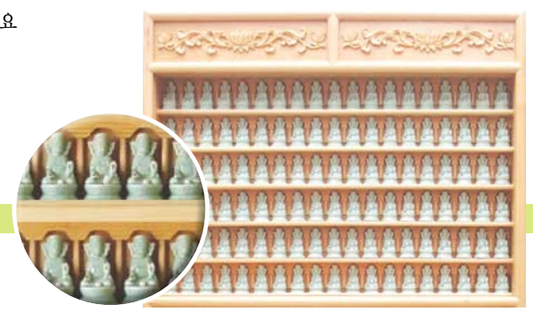
봉 至心歸命禮 특별전 축

- 일 시 : 2006. 9. 9(토) - 10. 31(화)
- 장 소 : 수덕사 근역성보관 041)337-2902
- 인 터 넷 : www.jisim.net
- 전시유물 : 중국 요녕성박물관 소장 21점/한국 소장작품 다수
  홍콩 Chris Hall Collection 소장 26점

※ 직물로 표현한 우수한 불교문화재가 전시되오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